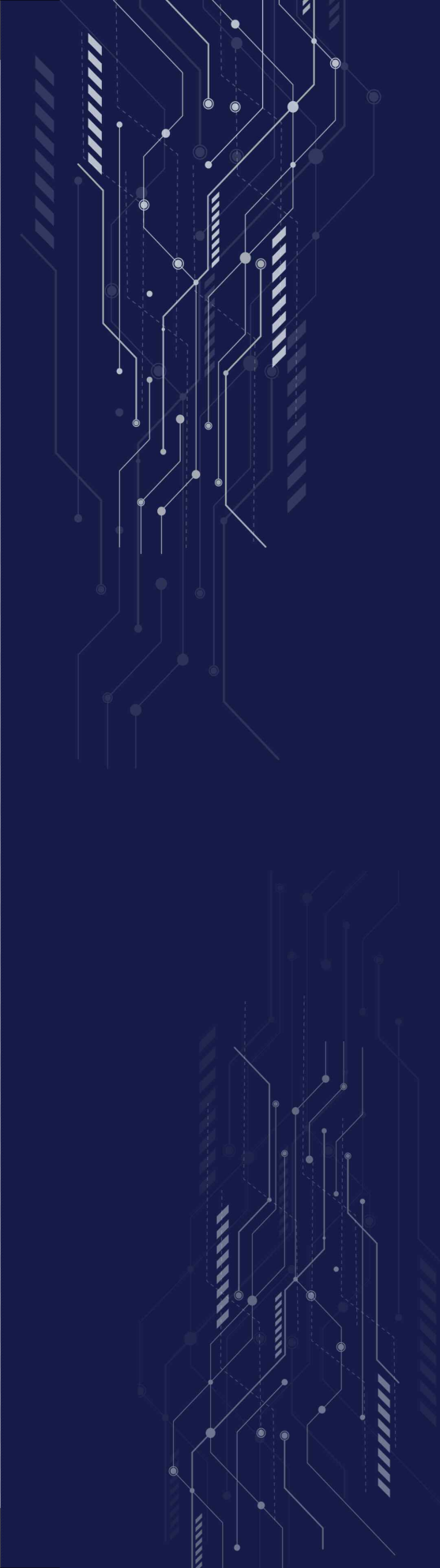




분석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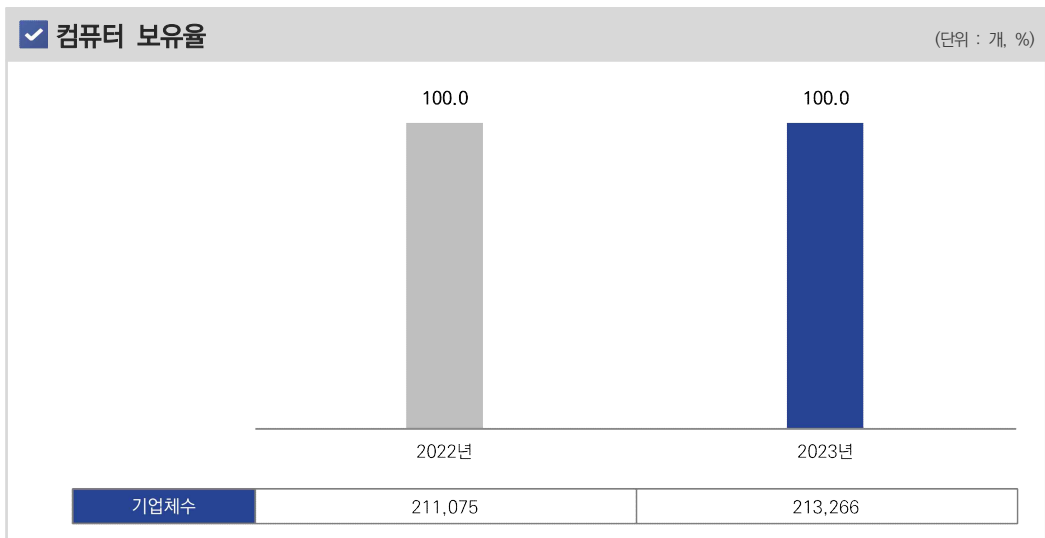
Enterprise Informatization Statistics

- 1 정보화 기반
- 2 정보화 응용
- 3 지능정보기술 활용
- 4 정보화 투자 및 효과

1 컴퓨터

1.1 컴퓨터 보유

- 기업체의 컴퓨터 보유율은 100.0%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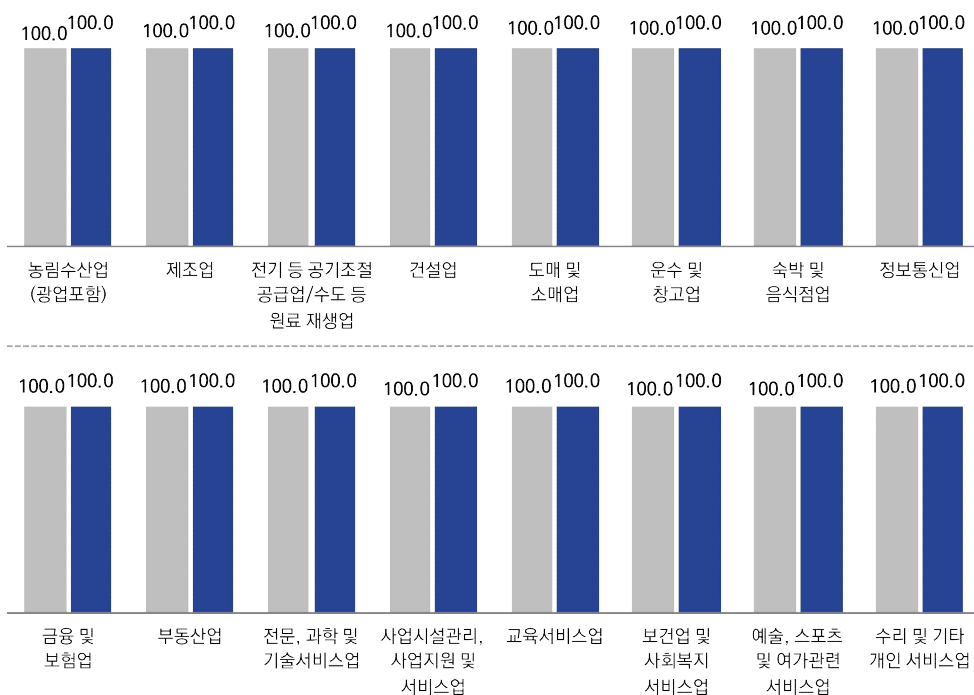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※ 컴퓨터 보유 기업체 : 컴퓨터를 한 대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

업종별_컴퓨터 보유율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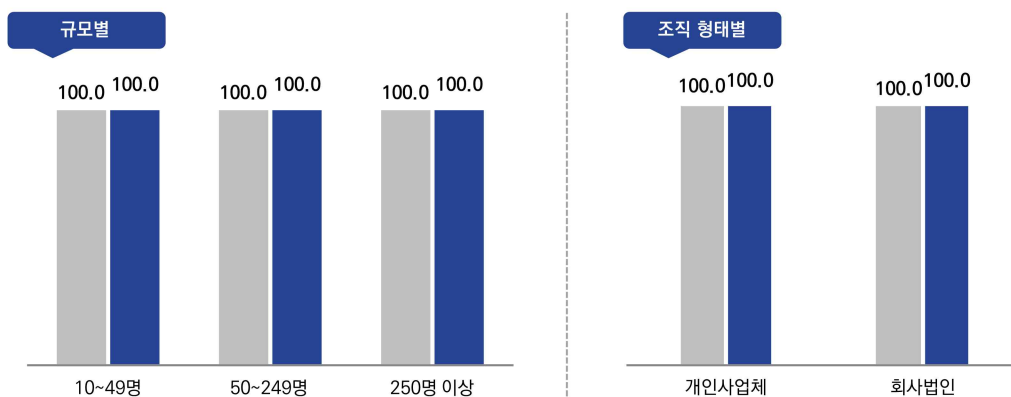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컴퓨터 보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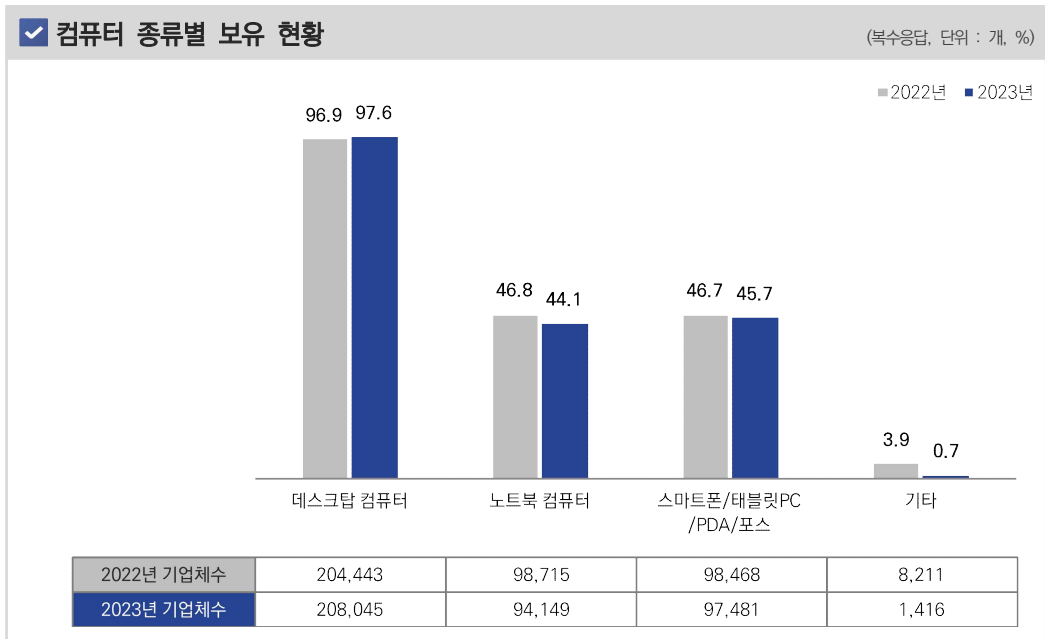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1.2 컴퓨터 종류별 보유 현황(복수 응답)

- 컴퓨터 보유 기업체는 데스크탑 컴퓨터(97.6%) 종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 그 외 노트북은 44.1%,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45.7%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- 노트북 보유율의 경우 전년 대비 2.7%p 감소하였으며, 데스크탑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보유율의 경우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컴퓨터 보유 기업체
 ※ 컴퓨터 보유 기업체 : 기준시점 현재 컴퓨터를 한 대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
 ※ 주 : 컴퓨터 종류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모든 업종에서 데스크탑 컴퓨터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노트북 보유율은 정보통신업(84.8%), 금융 및 보험업(70.5%)에서 높게 조사됨
-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보유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(66.9%), 운수 및 창고업(58.4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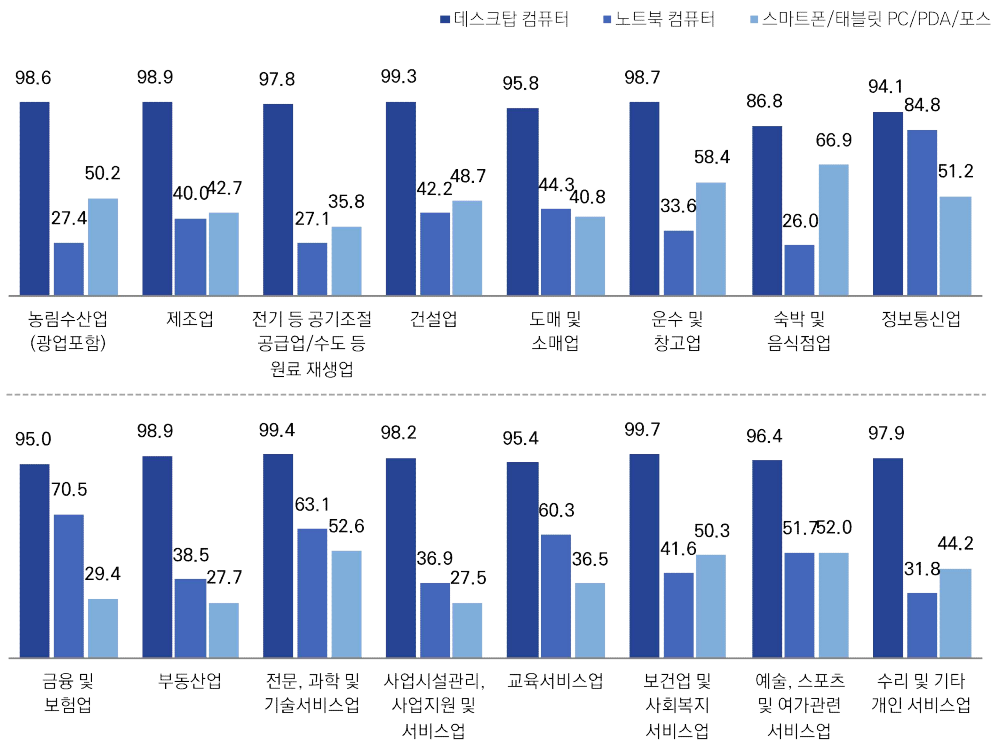
- 종사자수 250명 이상 규모에서 노트북(79.3%)과 모바일 기기(51.2%)의 보유율이 종사자수 250인 미만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노트북은 회사법인(47.3%)에서 개인사업체(32.8%)보다 높게 나타남
- 모바일 기기는 개인사업체(52.4%)에서 회사법인(43.9%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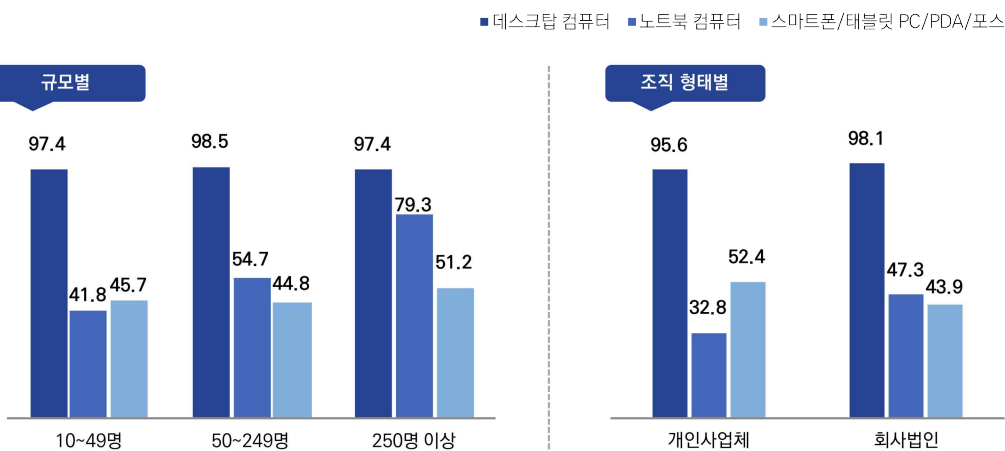
업종별_컴퓨터 종류별 보유 현황

(복수응답, 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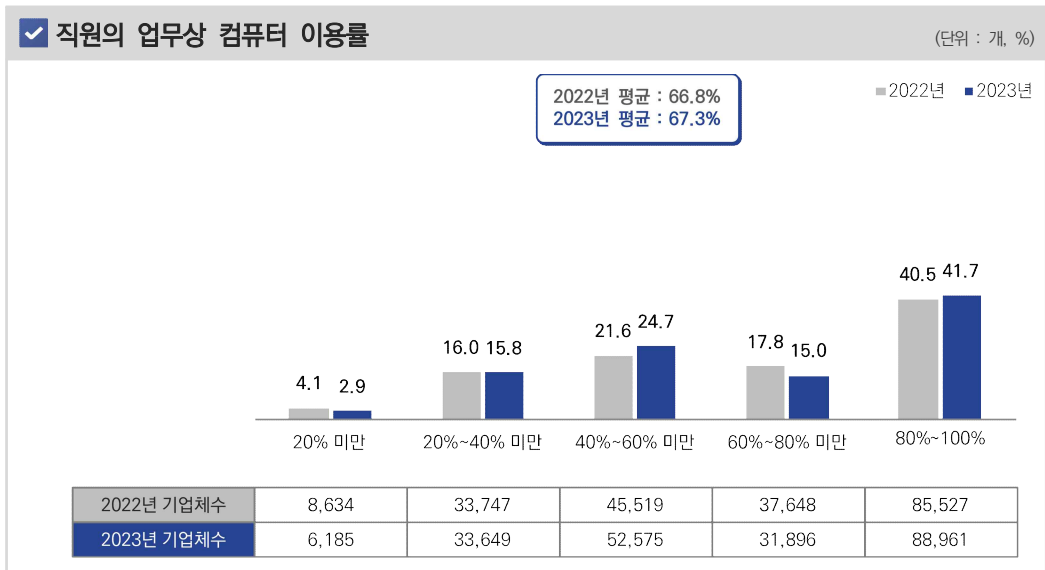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컴퓨터 종류별 보유 현황

(복수응답, 단위 : %)



1.3 직원의 업무상 컴퓨터 이용

- 직원의 업무상 컴퓨터 이용률 평균은 67.3%로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컴퓨터 보유 기업체

※ 컴퓨터 보유 기업체 : 2023년 12월 말 현재 컴퓨터를 한 대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

※ 주 : 직원의 업무상 컴퓨터 이용률은 전체 직원 중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비율을 말함

[업종별]

- 정보통신업(98.0%), 금융 및 보험업(96.3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87.5%)에서 직원의 업무상 컴퓨터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농림수산업(43.5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50.4%) 업종에서의 직원의 업무상 컴퓨터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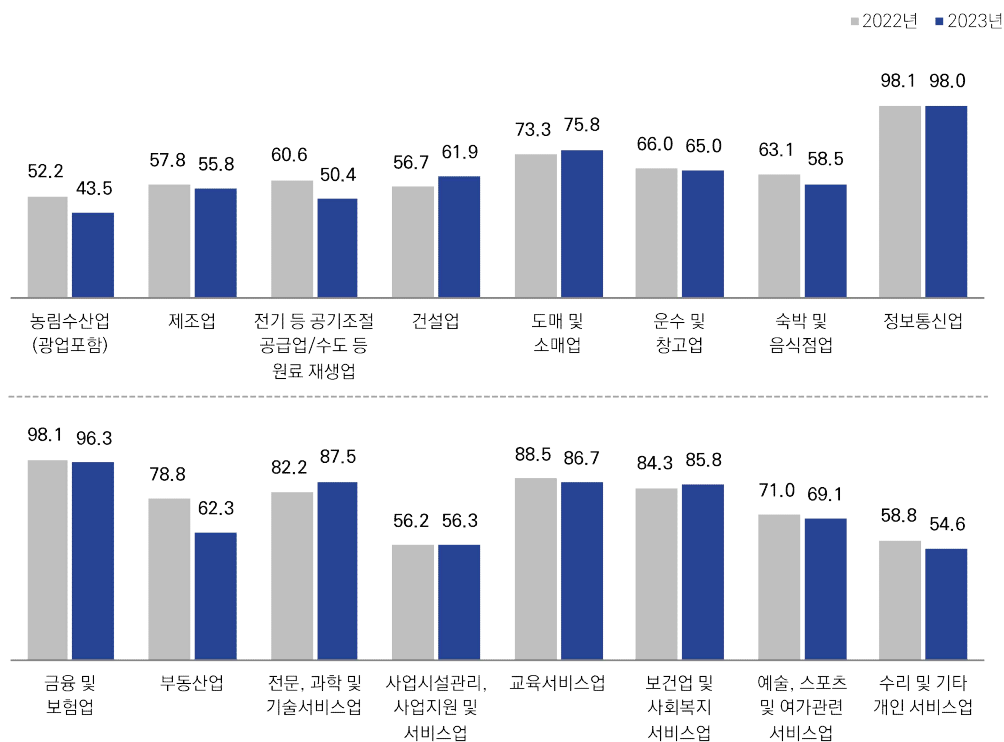
- 종사자수 10~49명 규모의 기업체에서 직원의 업무상 컴퓨터 이용률은 68.0%로 나타났으며, 종사자수 50~249명 규모의 기업체에서 63.0%, 종사자수 25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64.9%의 이용률을 보임

[조직 형태별]

- 개인사업체(67.8%)와 회사법인(67.2%)의 직원의 업무상 컴퓨터 이용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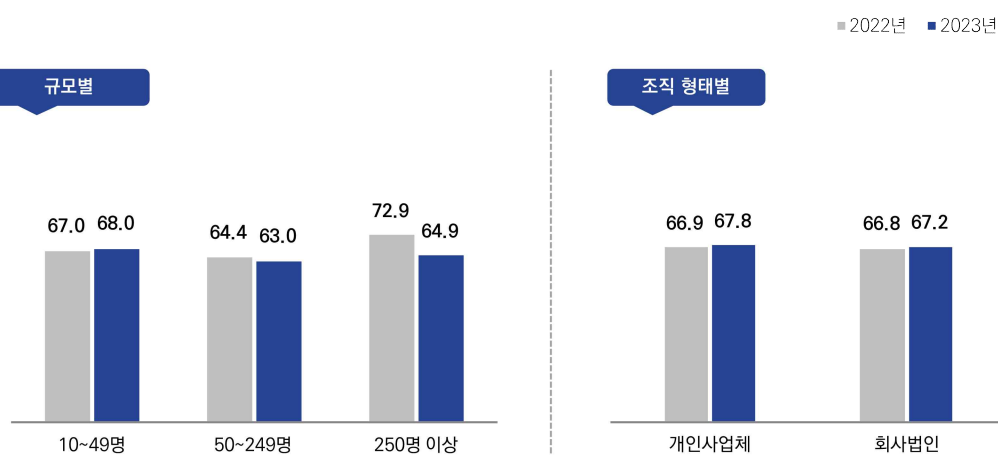
업종별_직원의 업무상 컴퓨터 이용률(평균)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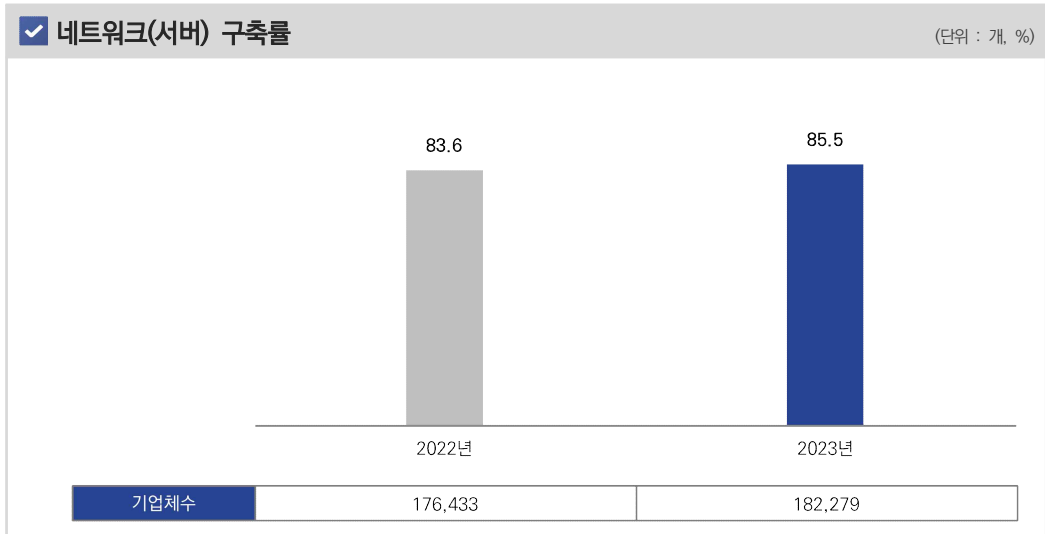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직원의 업무상 컴퓨터 이용률(평균)

(단위 : %)



1.4 네트워크(서버) 구축률

- 네트워크(서버)가 구축되어 있는 기업체의 비율은 85.5%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컴퓨터 보유 기업체

※ 컴퓨터 보유 기업체 : 2023년 12월 말 현재 컴퓨터를 한 대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

※ 주 : 1) 네트워크는 데이터 및 자원 공유와 정보교환을 위해 유·무선으로 정보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함

2) 기업체의 컴퓨터 또는 단말기가 서버를 매개로 기업체/기관 내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거나, 본사 또는 지사와 연결되어 있거나, 타사(기관)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

[업종별]

- 금융 및 보험업(98.8%), 교육서비스업(93.7%), 건설업(92.6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반면, 부동산업(62.7%), 농림수산업(69.8%), 숙박 및 음식점업(73.7%)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큰 기업체일수록 네트워크 구축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
- 종사자수 250명 이상 규모에서는 네트워크 구축 비율이 98.6%로 높은 반면, 종사자수 10~49명 규모 기업체의 네트워크 구축 비율은 83.8%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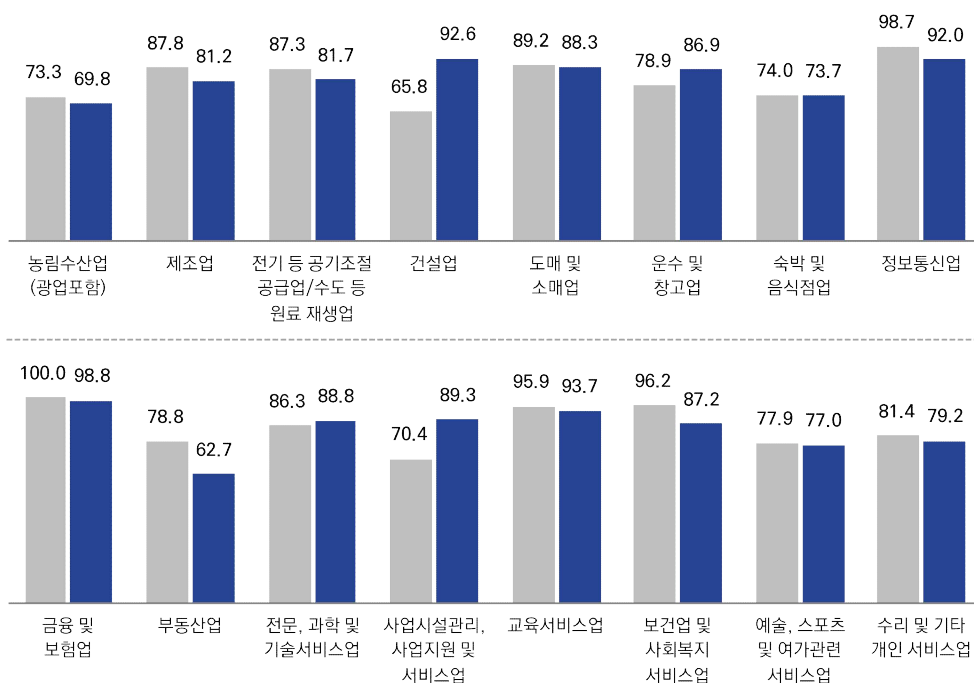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(87.4%)이 개인사업체(78.4%)보다 네트워크 구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

업종별_네트워크(서버) 구축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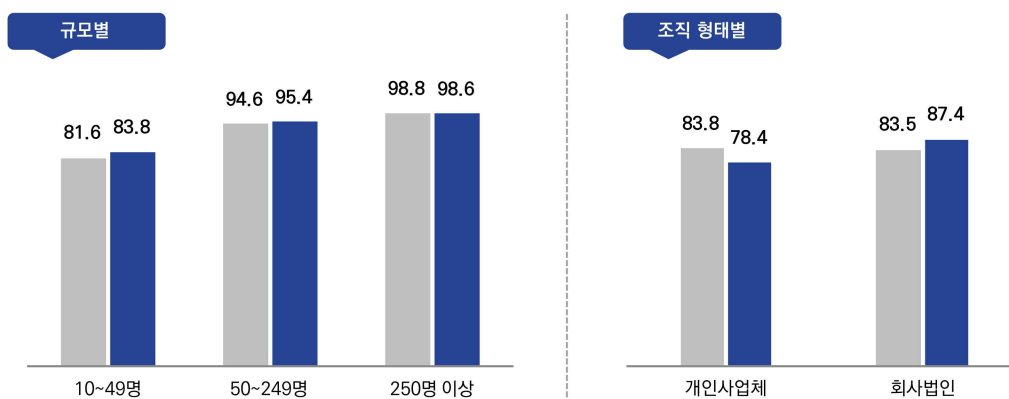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네트워크(서버) 구축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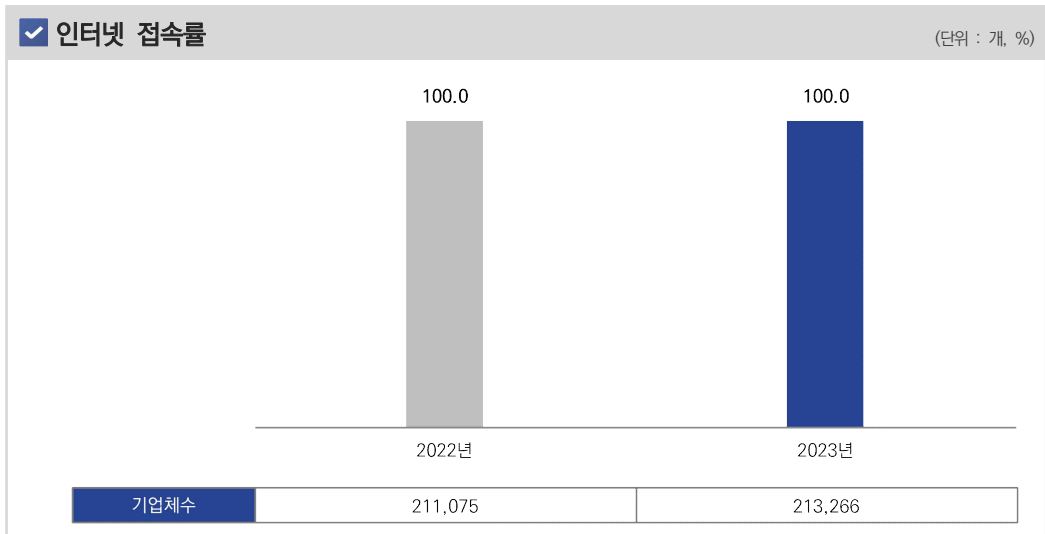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2 인터넷

2.1 인터넷 접속

-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업체는 100.0% 수준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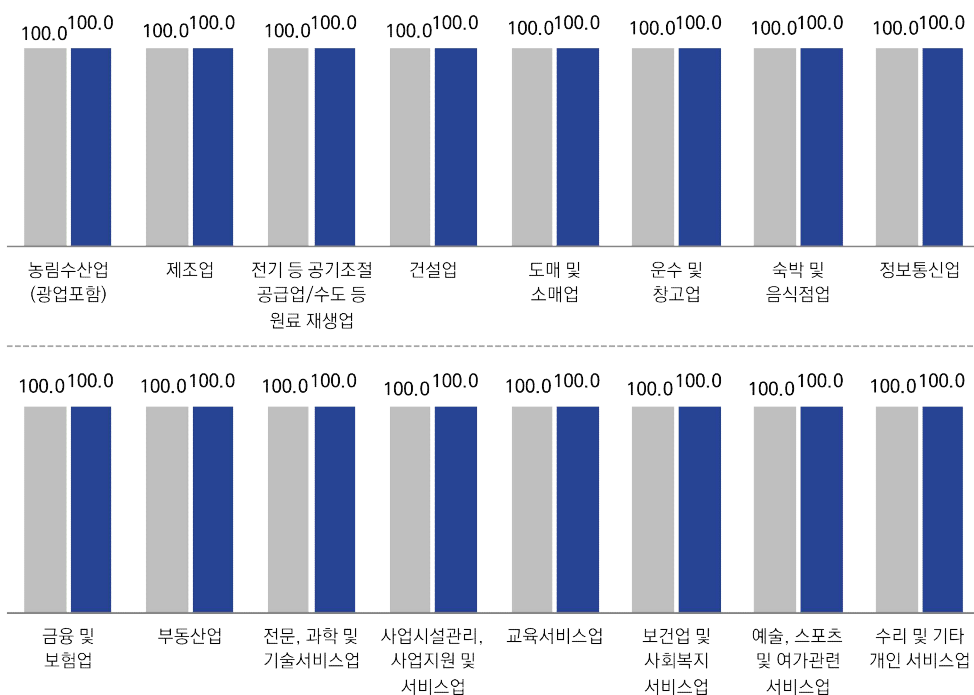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※ 주 : 인터넷 접속은 기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메일 송수신, 정보검색, 인터넷뱅킹, 데이터 파일 전송 등을 가능케 함을 말함

업종별_인터넷 접속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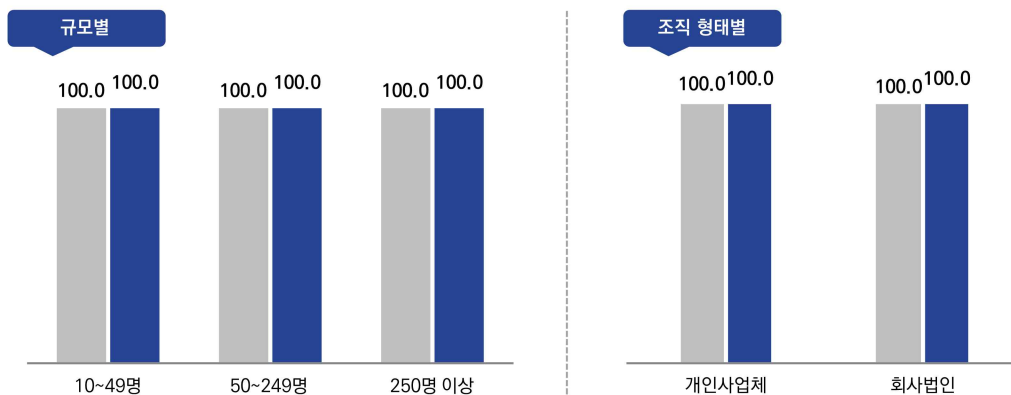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인터넷 접속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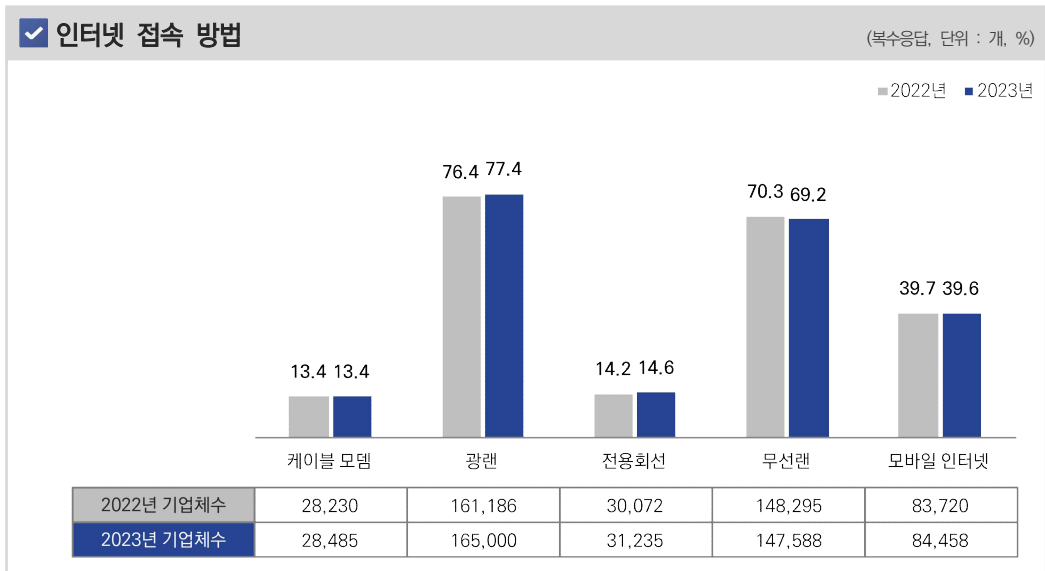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2.2 인터넷 접속 방법(복수응답)

- 광랜이 77.4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 무선랜(69.2%), 모바일 인터넷(39.6%), 전용회선(14.6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- 인터넷 접속 방법은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인터넷 접속 기업체
 ※ 주 : 인터넷 접속 방법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광랜은 정보통신업(91.9%)과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89.3%), 부동산업(87.5%), 무선랜은 정보통신업(90.4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86.9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86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모바일 인터넷은 숙박 및 음식점업(54.5%), 운수 및 창고업(54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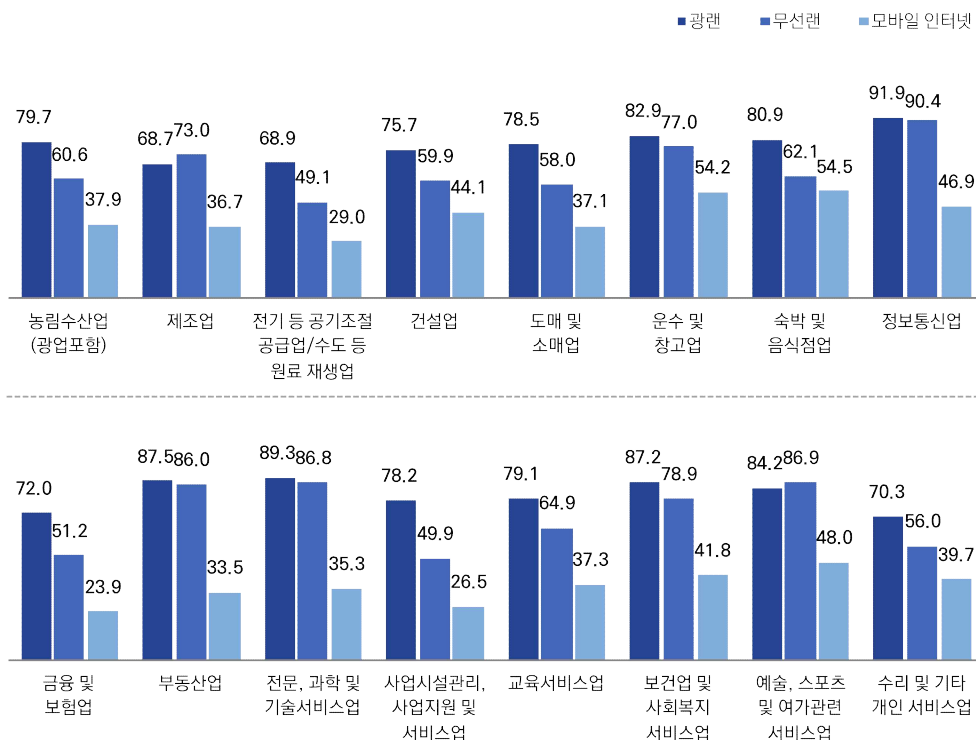
- 50~249명 기업체에서 광랜(82.5%)과 무선랜(76.3%)이, 250명 이상 기업체에서 모바일 인터넷(45.0%)이 가장 높게 조사됨

[조직 형태별]

- 광랜, 무선랜, 모바일 인터넷 모두 개인사업체가 회사법인보다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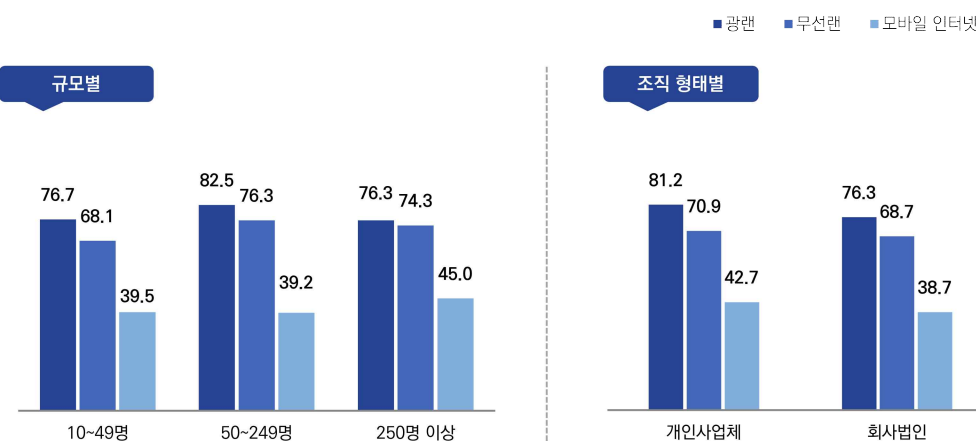
업종별_인터넷 접속 방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3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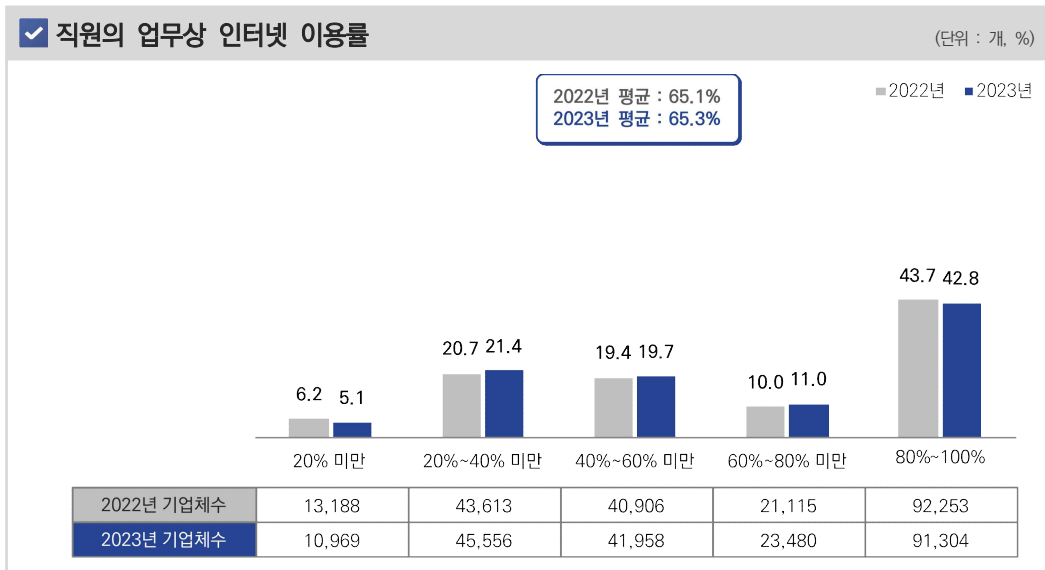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인터넷 접속 방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3순위)



2.3 직원의 업무상 인터넷 이용

- 직원의 업무상 인터넷 이용률 평균은 65.3%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인터넷 접속 기업체

※ 주 : 1) 직원의 업무상 인터넷 이용률 : 전체 직원 중 업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직원의 비율

2) 업무상 인터넷 이용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를 말함

[업종별]

- 직원의 업무상 인터넷 이용률은 정보통신업(97.8%), 금융 및 보험업(96.4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87.8%) 순으로 높게 조사됨
- 반면, 농림수산업(40.0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47.8%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(52.4%)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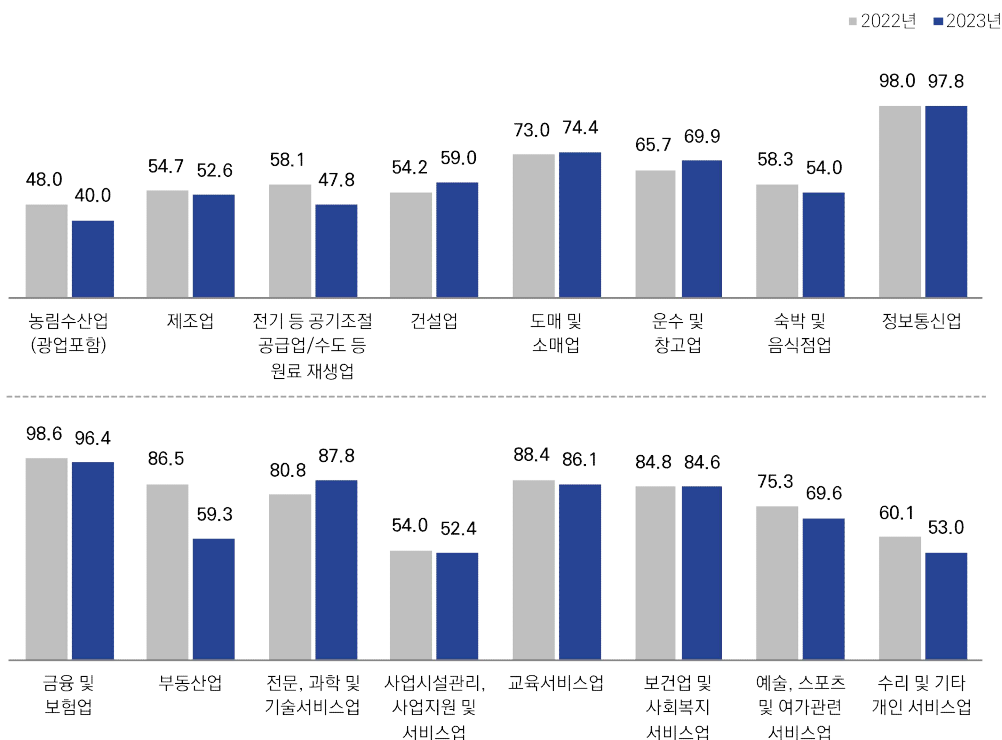
- 종사자수 10~49명인 기업체의 직원의 업무상 인터넷 이용률이 66.1%로 타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개인사업체가 65.7%, 회사법인이 65.2%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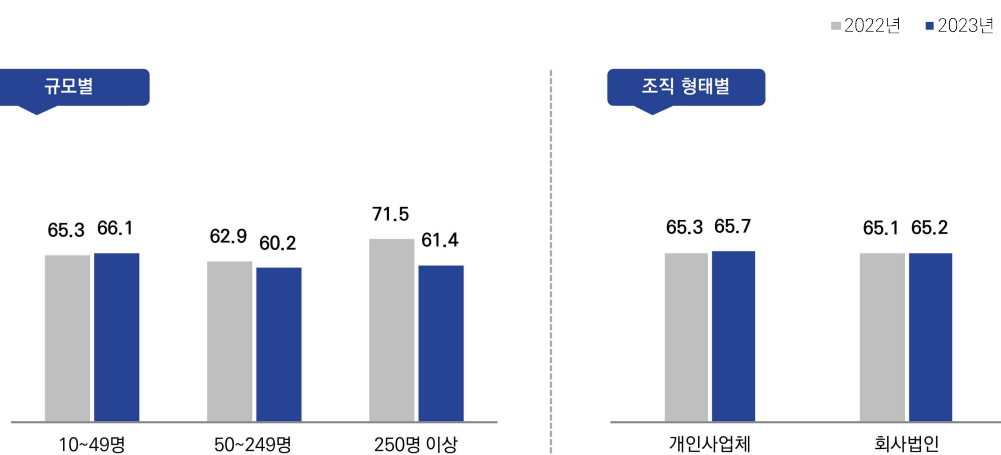
✓ 업종별_직원의 업무상 인터넷 이용률(평균)

(단위 : %)


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직원의 업무상 인터넷 이용률(평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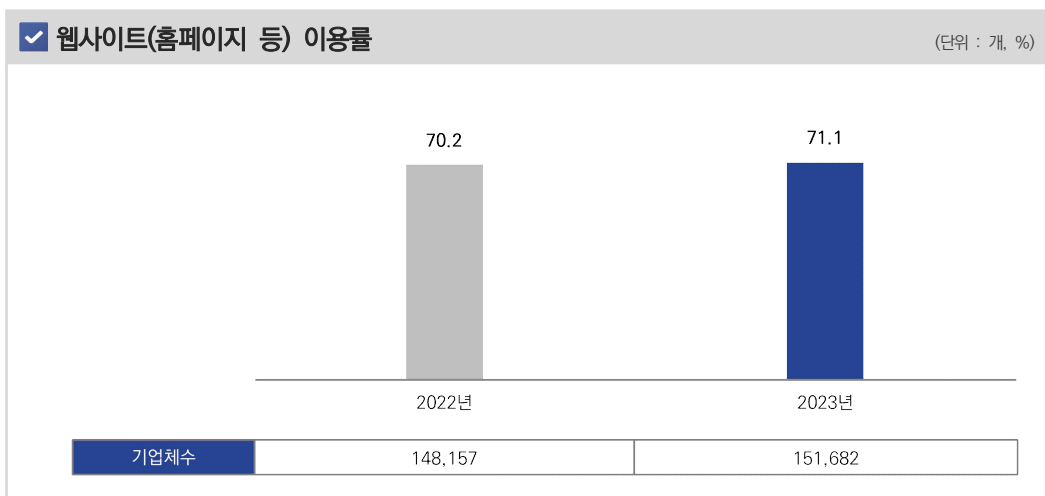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1 웹사이트(홈페이지 등)

1.1 웹사이트(홈페이지 등) 이용

-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71.1%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※ 주 : 1) 웹사이트, 홈페이지, 쇼핑몰 등을 운영하거나, 사업체/기관이 내용(콘텐츠)에 대해 통제 가능한 타사/기관의 웹사이트(관련 기업체의 웹사이트 포함)에 올라있는 경우 등을 포함함. 단, 온라인 디렉토리(기업체 주소와 전화번호 제공) 또는 다른 사업체/기관의 사이트에 광고로 게재된 경우는 제외됨
2)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, 광고 등을 위한 수단으로 이커머스 플랫폼(G마켓, 옥션, 11번가, 쿠팡,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) 및 동영상 플랫폼(Youtube, 카카오 TV, 치지직 등)을 활용하는 경우도 웹사이트 이용으로 포함함

[업종별]

-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이용률은 정보통신업(97.5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97.2%), 숙박 및 음식점업(91.5%)에서 높게 나타남
- 반면, 건설업(46.5%), 농림수산업(46.6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재생업(50.8%)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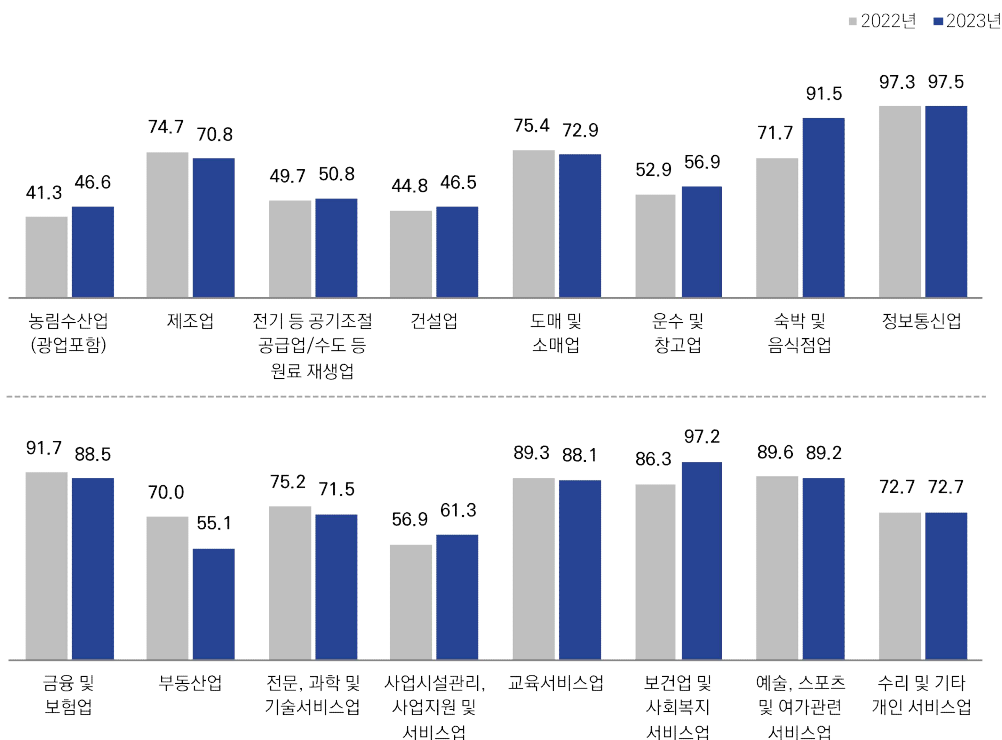
- 종사자수 250명 이상 기업체의 웹사이트 이용률은 94.2%인 반면, 10~49명 규모 기업체는 69.1%로 종사자 규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개인사업체의 웹사이트 이용률은 79.7%인 반면, 회사법인은 68.8%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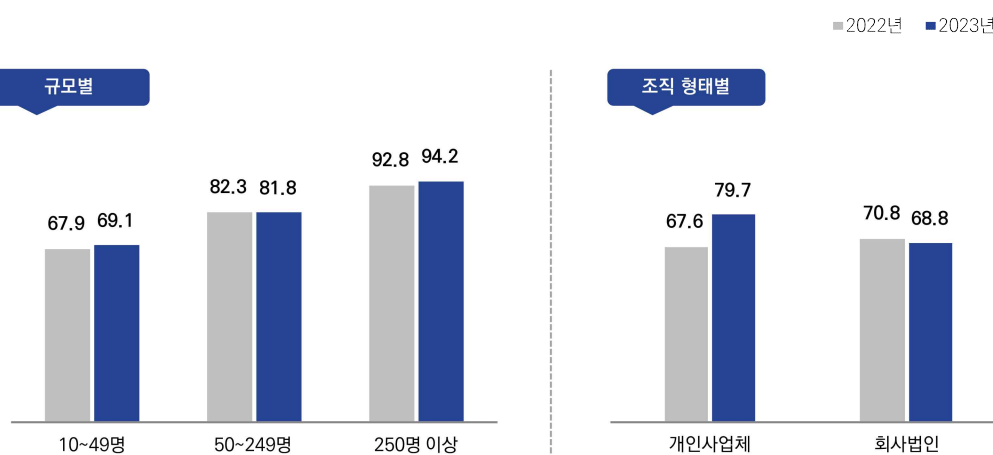
업종별_웹사이트(홈페이지 등) 이용률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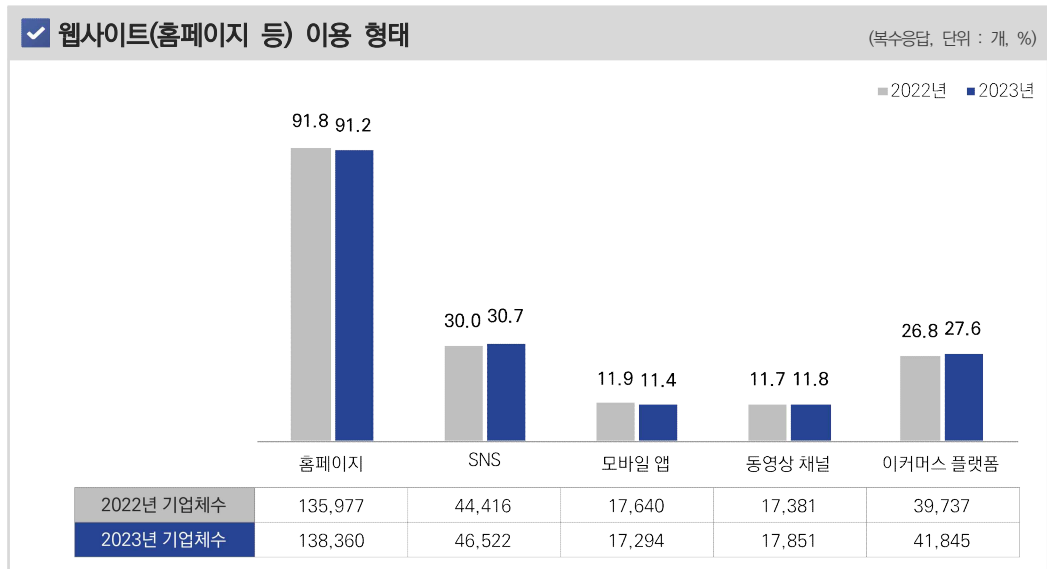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웹사이트(홈페이지 등) 이용률

(단위 : %)



1.2 웹사이트(홈페이지 등) 이용 형태(복수응답)

-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이용 형태를 보면, ‘홈페이지’ 형태의 홈페이지 보유가 91.2%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‘SNS’(30.7%), ‘이커머스 플랫폼’(27.6%), ‘동영상 채널’(11.8%) 순으로 조사됨
- 모든 웹사이트 이용 형태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웹사이트(홈페이지 등) 이용 기업체
 ※ 주 : 1) '홈페이지'의 경우 전년도 '웹사이트'가 변경된 것으로 해당 항목과 시계열 비교하였음
 2) 웹사이트(홈페이지 등) 이용 형태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‘홈페이지’ 이용률은 금융 및 보험업(99.9%), 정보통신업(98.5%), 제조업(98.4%)에서 높았고, ‘SNS’ 이용률은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53.8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52.2%), 교육서비스업(51.4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‘이커머스 플랫폼’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65.1%로 가장 높게 조사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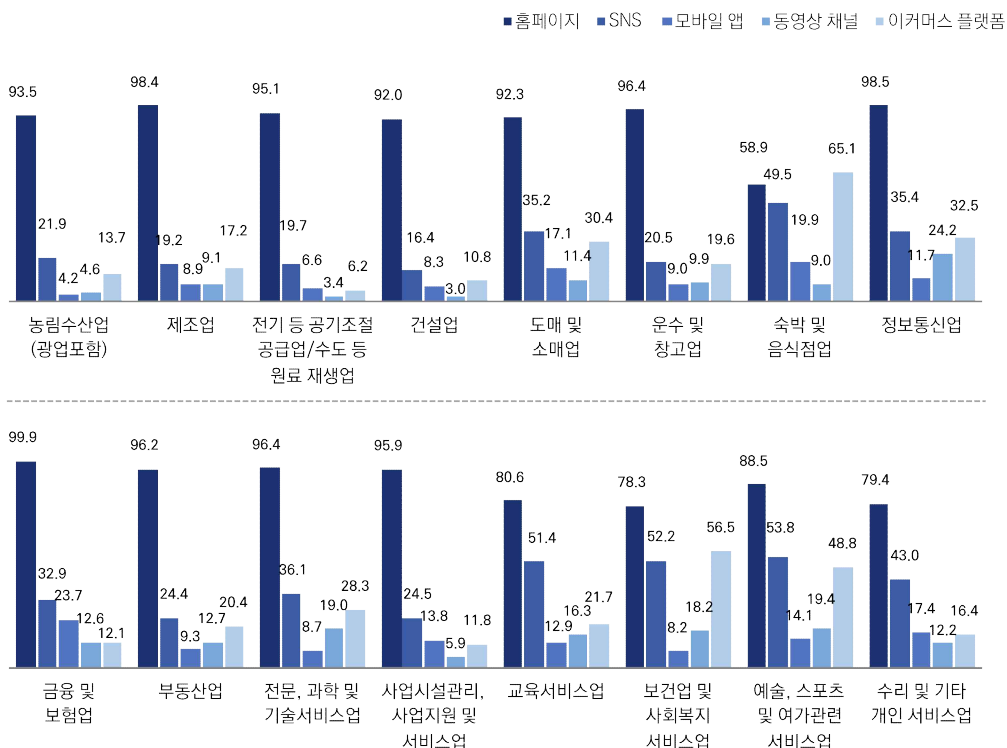
- ‘홈페이지’, ‘SNS’, ‘모바일 앱’, ‘동영상 채널’ 이용률은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
- ‘이커머스 플랫폼’ 이용률은 250명 이상 규모(30.1%)에 이어 10~49명 규모(28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홈페이지’ 이용률은 회사법인이 95.5%로 개인사업체(77.8%)에 비해 높고, ‘SNS’ 이용률은 개인사업체가 42.1%로 회사법인(27.0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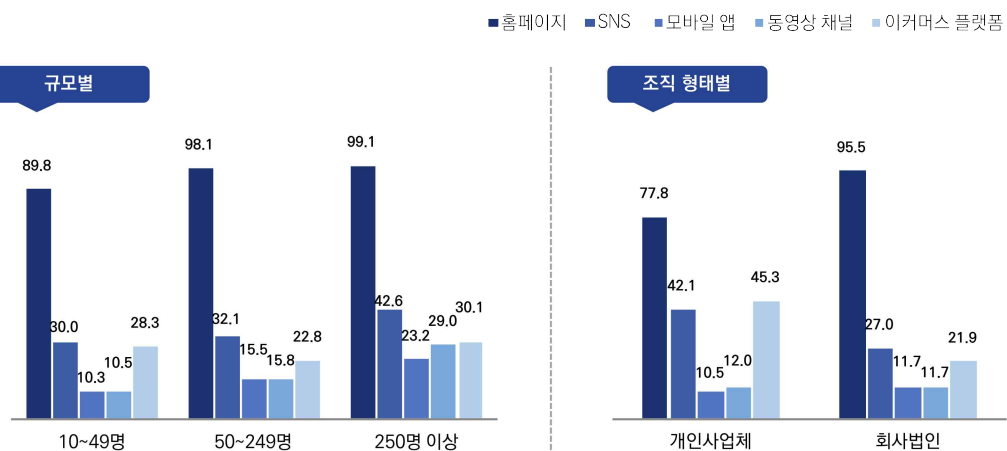
✓ 업종별_웹사이트(홈페이지 등) 이용 형태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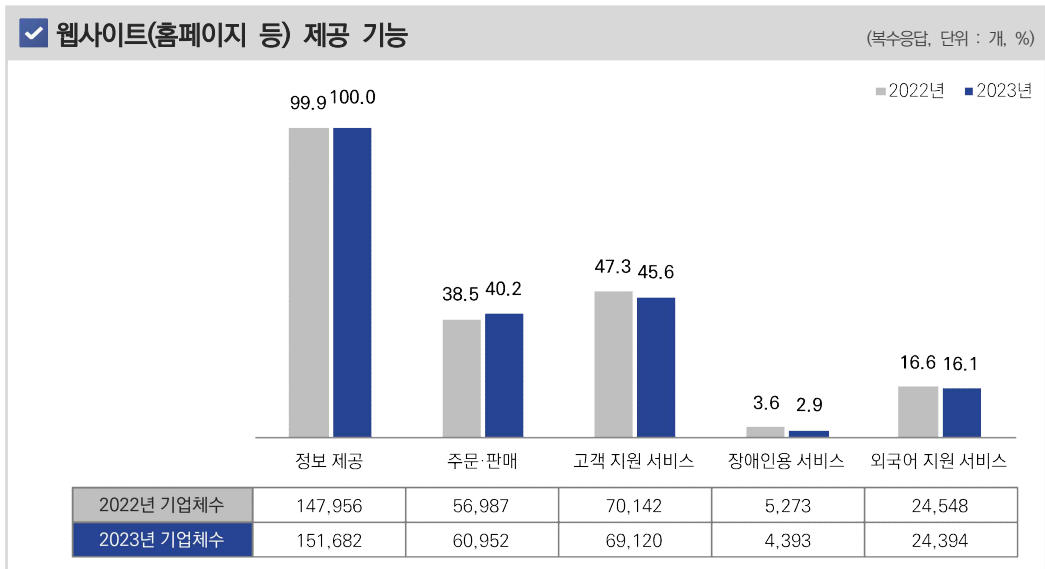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웹사이트(홈페이지 등) 이용 형태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1.3 웹사이트(홈페이지 등) 제공 기능(복수응답)

-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업체에서 '정보 제공'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, '주문·판매'는 40.2%, '고객 지원 서비스'는 45.6%, '장애인용 서비스'는 2.9%, '외국어 지원 서비스'는 16.1%가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됨
- 전년 대비 주문·판매 기능의 제공률이 소폭 증가하였으며, '고객 지원 서비스'는 소폭 감소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웹사이트(홈페이지 등) 이용 기업체
 ※ 주 : 웹사이트(홈페이지 등) 제공 기능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'주문·판매'는 숙박 및 음식점업(73.5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65.1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61.4%)에서 높게 조사됨
- '고객 지원 서비스'는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63.3%), 교육서비스업(54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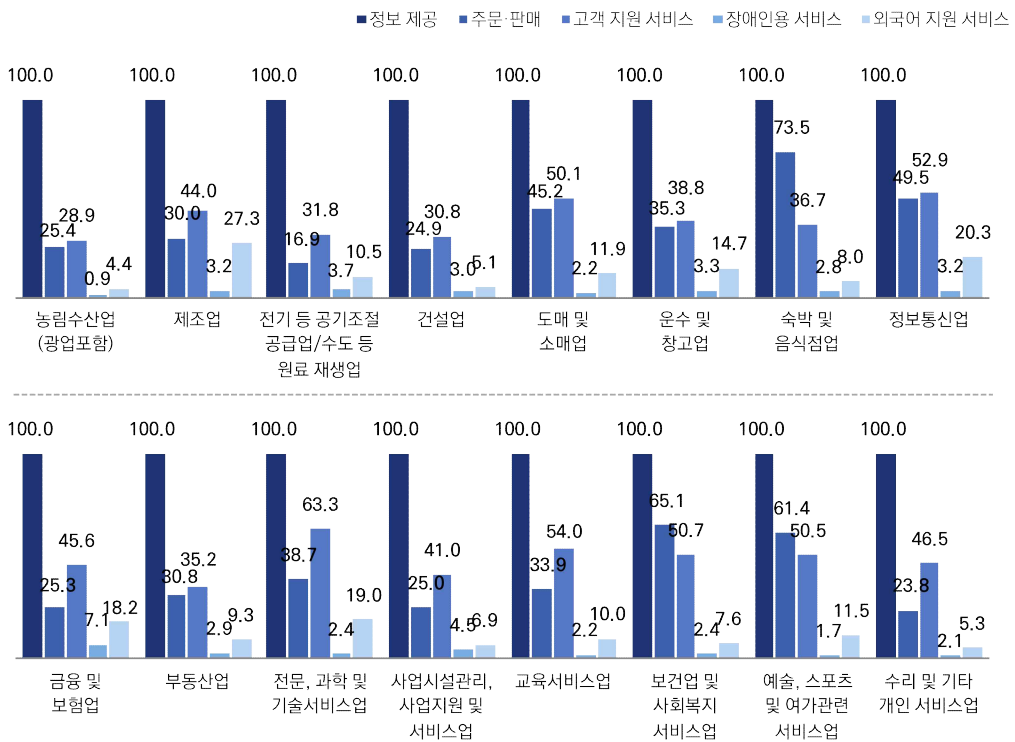
- 종사자수 250인 이상 기업체에서 모든 기능이 가장 높게 응답된 가운데, '주문·판매'의 경우 50~249인 기업체보다 10~49인 기업체에서 더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'주문·판매'의 경우 개인사업체(54.9%)가 회사법인(35.5%)보다 높게 조사됨
- '외국어 지원 서비스'의 경우 회사법인(18.8%)이 개인사업체(7.6%)보다 더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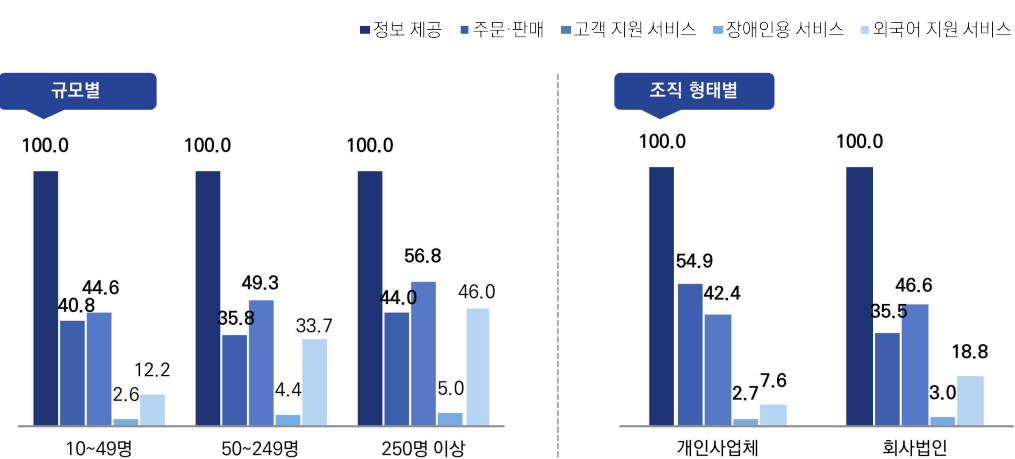
✓ 업종별_웹사이트(홈페이지 등) 제공 기능

(복수응답, 단위 : %)


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웹사이트(홈페이지 등) 제공 기능

(복수응답, 단위 : %)



1. 정보화 기반

2. 정보화 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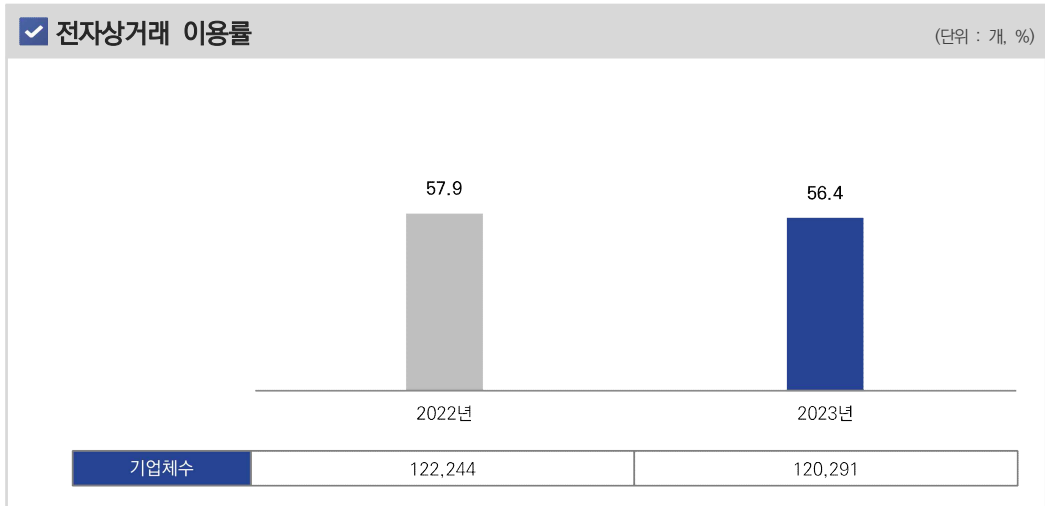
3. 지능정보기술 활용

4. 정보화 투자 및 효과

2 전자상거래

2.1 전자상거래 이용

-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판매한 경험이 있는 기업체는 56.4% 수준으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전자상거래 이용률은 1.5%p 하락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※ 주 : 1) 본 조사에서 전자상거래란 "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(발주) 또는 판매(수주)가 이루어지는 방식(모바일 상거래 포함)"을 말함

2) 인터넷 기반 이동전화(모바일 상거래 등)가 포함되나, 전화, 팩스 및 통상적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하거나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. 단, 온라인 결제여부는 관계없으나, 주문이 취소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됨

[업종별]

- 숙박 및 음식점업(78.9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77.5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75.7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반면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39.7%), 제조업(40.2%)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45.8%)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전자상거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특히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는 75.4%로 타 규모 대비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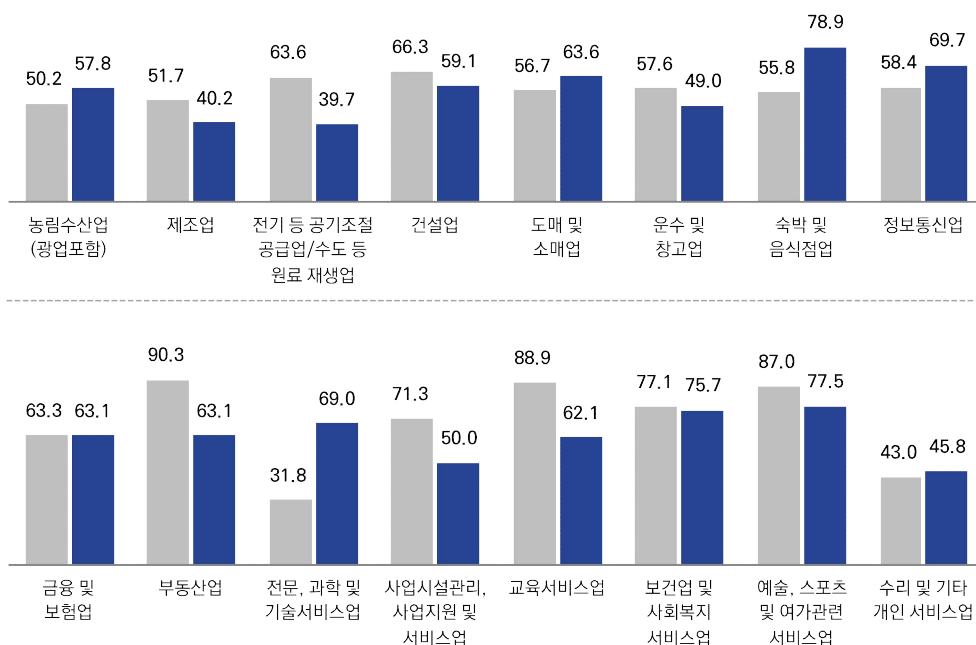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개인사업체(64.9%)가 회사법인(54.1%)보다 전자상거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

업종별 전자상거래 이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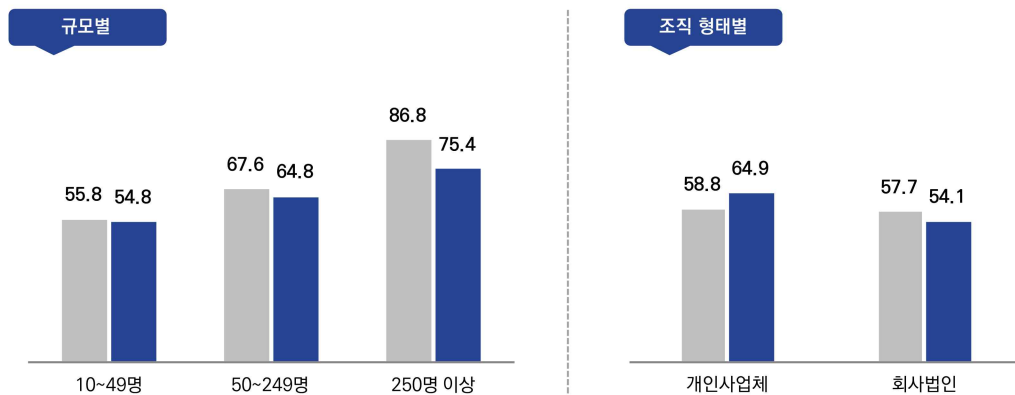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 전자상거래 이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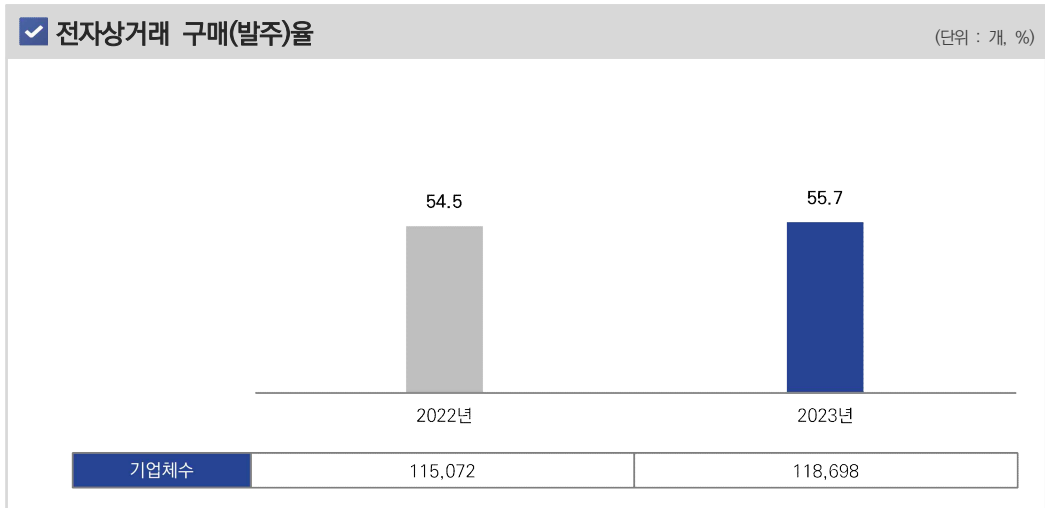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2.2 전자상거래 구매(발주)

-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체는 55.7%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전자상거래 구매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※ 주 : 구매에는 원료, 식료품, 부품, 사무용품, 기기, 유지보수용품, 보고서,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서비스, 온라인 금융, 숙박, 교통 및 항공 여행과 같은 서비스 등 모든 자원이 포함

[업종별]

- 전자상거래 구매(발주)율은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77.2%), 숙박 및 음식점업(75.6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74.7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반면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39.6%), 제조업(39.8%)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45.1%)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전자상거래 구매(발주)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특히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는 74.8%로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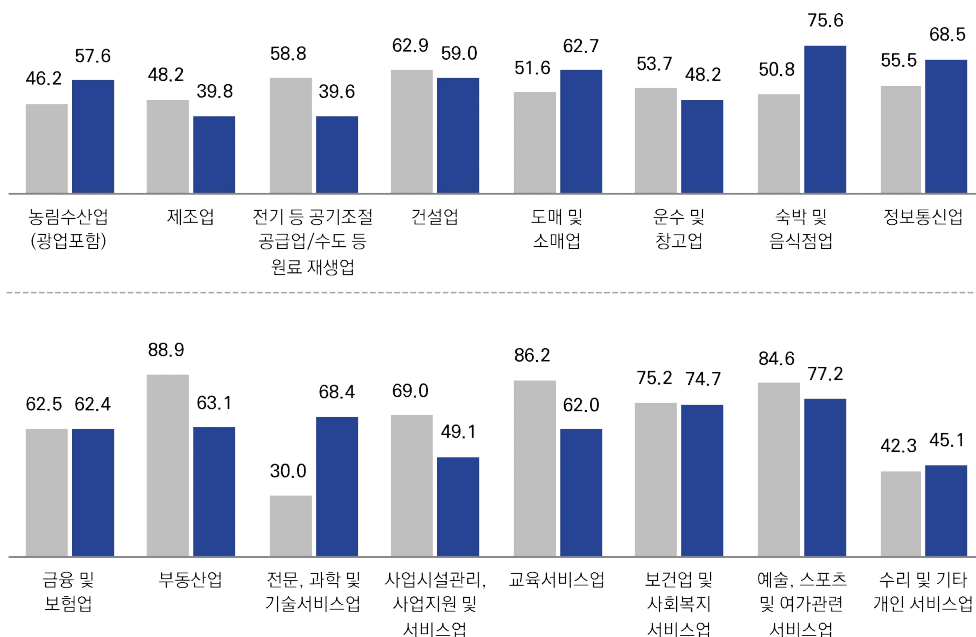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개인사업체의 전자상거래 구매(발주)율이 63.7%로 회사법인(53.4%)보다 높게 조사됨

업종별 전자상거래 구매(발주)율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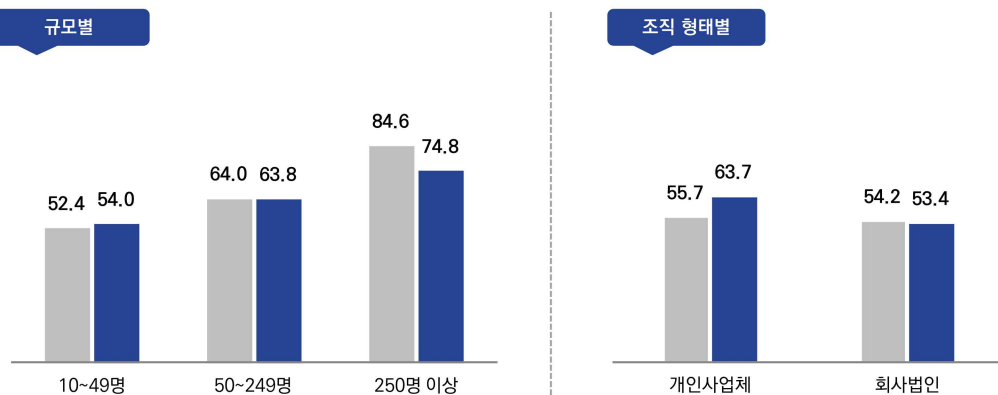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 전자상거래 구매(발주)율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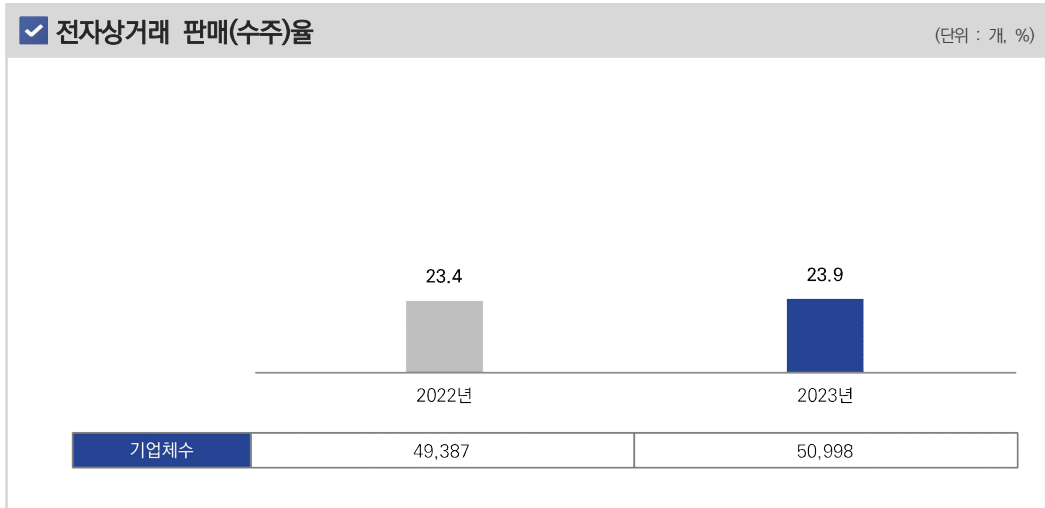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2.3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

2.3.1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율

-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(수주)한 기업체는 23.9%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전자상거래 판매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※ 주 : 타사/기관을 대신해 받은 주문도 포함되며 자사를 대신해 타사/기관이 받은 주문도 포함

[업종별]

-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(59.3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50.8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48.8%)에서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반면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4.6%), 건설업(10.5%), 농림수산업(10.7%)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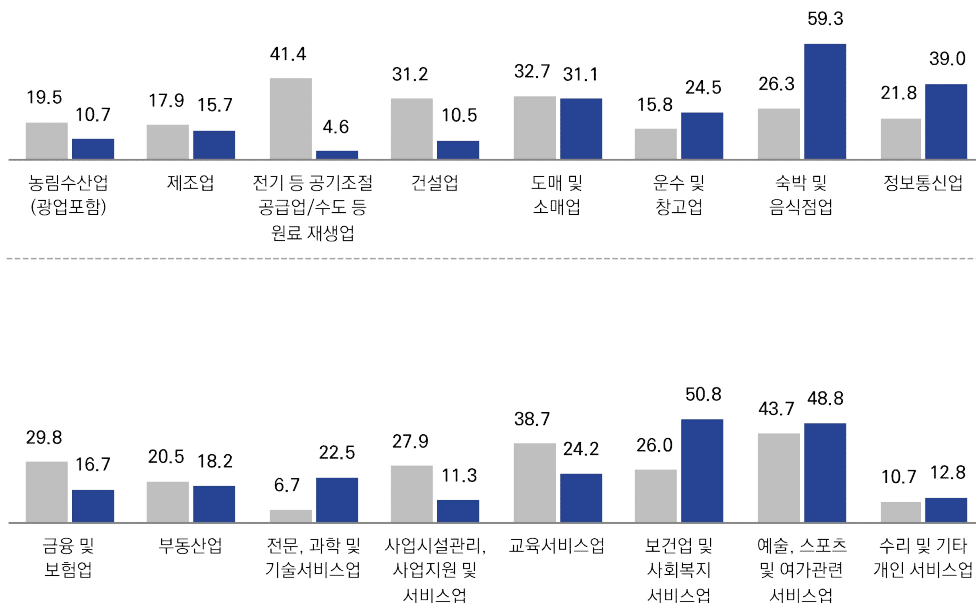
- 종사자 규모가 큰 기업체일수록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개인사업체가 36.1%로 회사법인(20.5%)보다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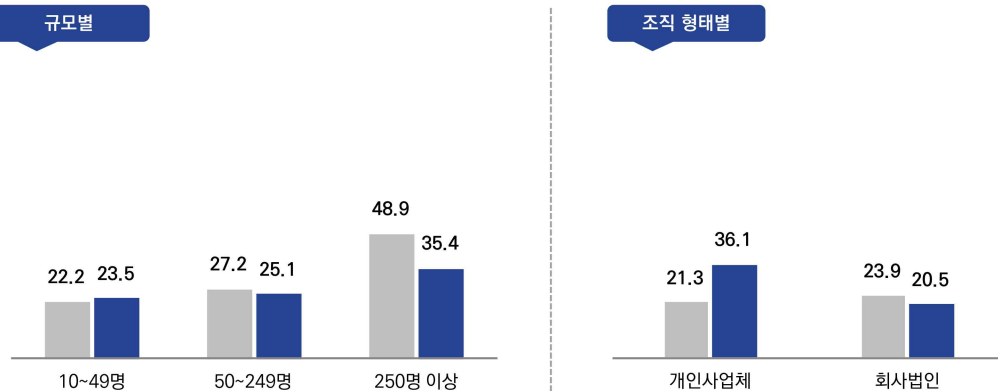
업종별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율
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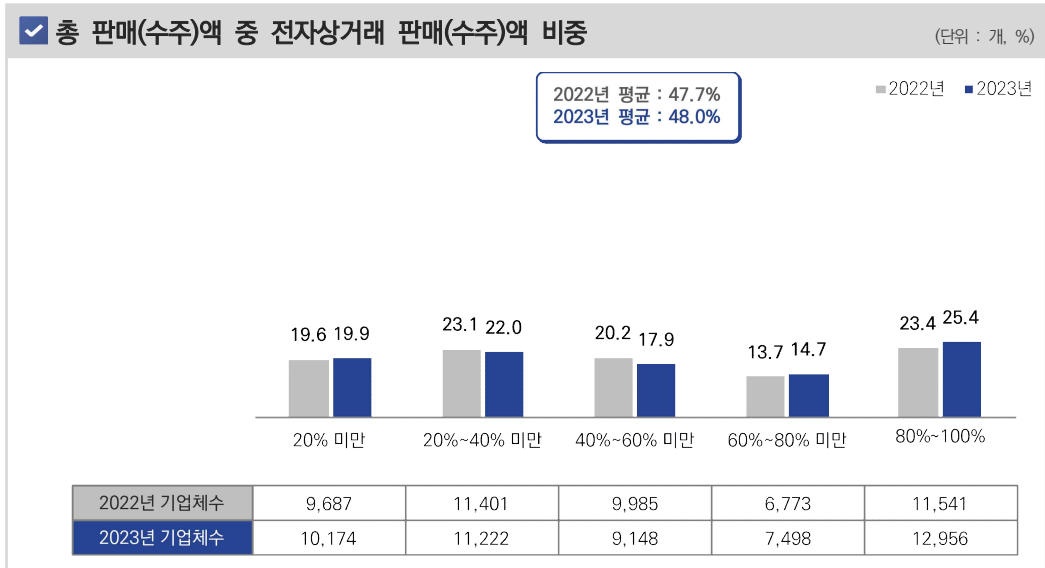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율
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2.3.2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액 비중

- 총 판매(수주)액 중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액 평균 비중은 48.0%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※ 기업체 :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 기업체

[업종별]

-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66.0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57.7%), 운수 및 창고업(56.1%)에서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액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반면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42.3%), 도매 및 소매업(43.8%), 금융 및 보험업(43.8%)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별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액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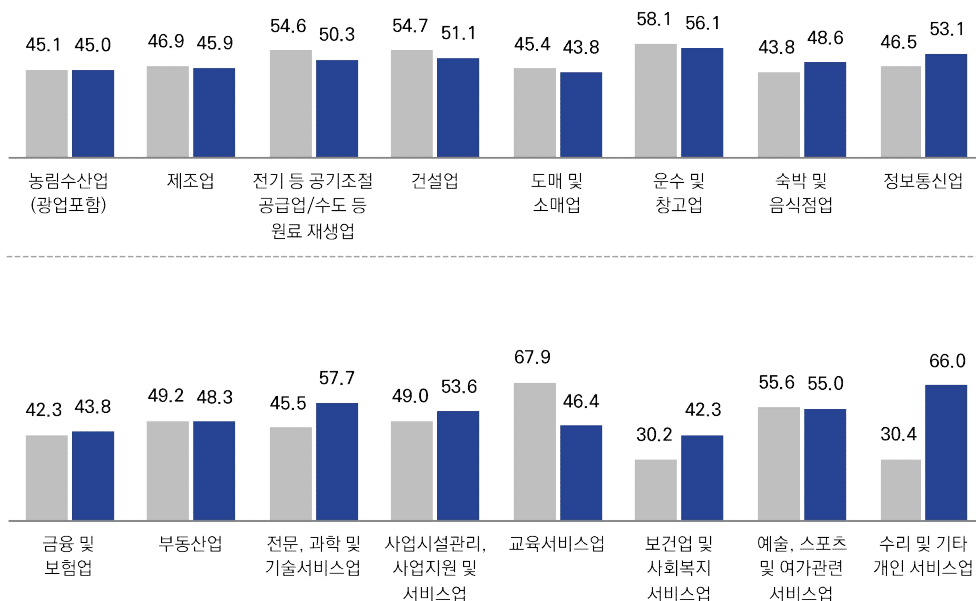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이 48.8%로 개인사업체(46.3%)보다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액 비중이 높게 나타남

업종별_총 판매(수주)액 중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액 비중(평균)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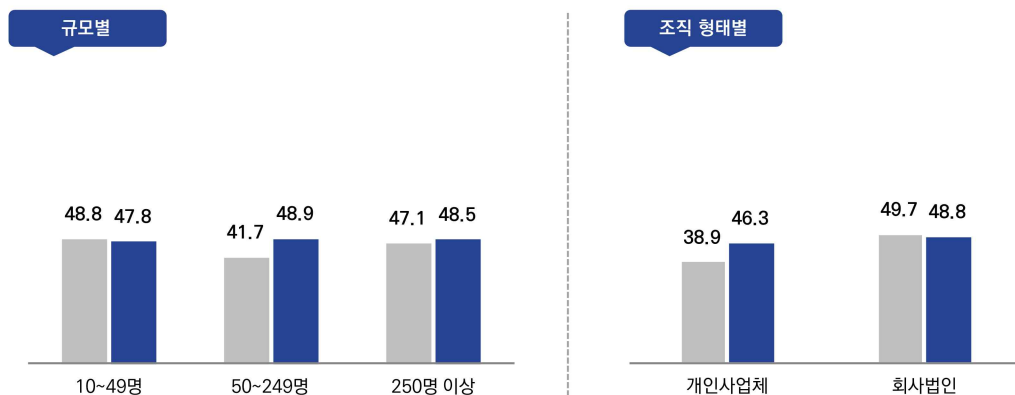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총 판매(수주)액 중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액 비중(평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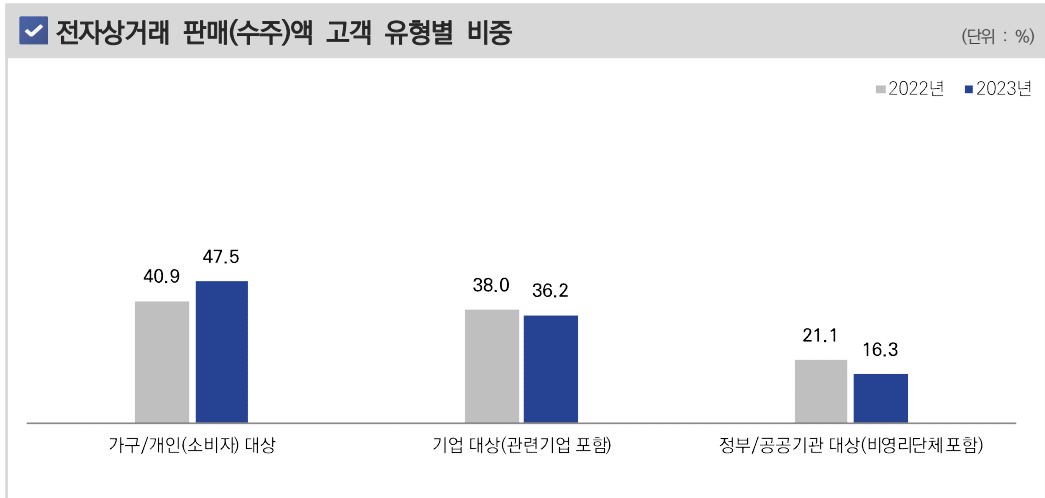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2.3.3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액 고객 유형별 비중

-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체 중 전자상거래 판매액의 고객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, ‘가구/개인(소비자)’이 47.5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다음으로 ‘기업’(36.2%), ‘정부/공공기관’(16.2%) 순으로 조사됨
- 전년 대비 ‘가구/개인’ 비중은 6.6%p 증가했고, ‘정부/공공기관’ 비중은 4.8%p 감소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액 기업체
 ※ 주 :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액 고객 유형별 비중으로 전체 합계는 100%를 의미함
 (가구/개인 소비자 대상 판매(수주)액 비중 + 기업 대상 판매(수주)액 비중 + 정부/공공기관 대상 판매(수주)액 비중 = 100%)

[업종별]

- ‘가구/개인’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81.4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78.6%)에서 높게 나타남
- ‘기업’은 제조업(53.5%), 부동산업(46.4%), ‘정부/공공기관’은 건설업(56.9%)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‘가구/개인’은 50~249명 규모 기업체(50.0%), ‘기업’과 ‘정부/공공기관’은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(각각 41.8%, 20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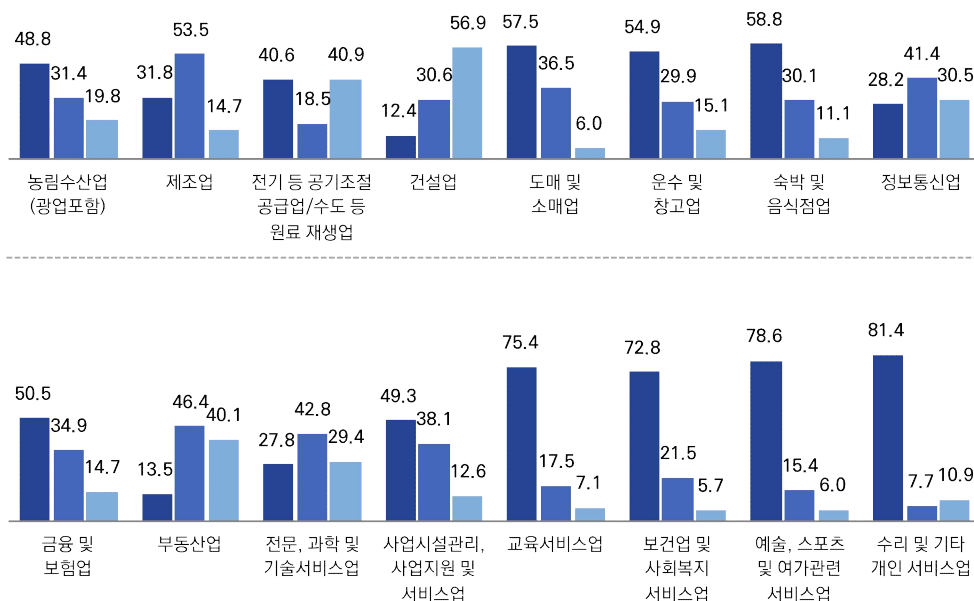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‘가구/개인(소비자)’은 개인사업체(63.4%), ‘기업’과 ‘정부/공공기관’은 회사법인(각각 40.6%, 19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업종별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액 고객 유형별 비중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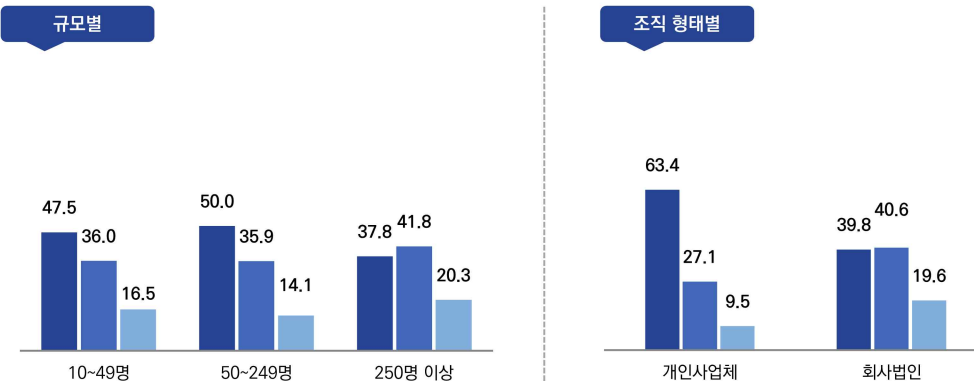
■ 가구/개인(소비자) 대상 ■ 기업 대상(관련기업 포함) ■ 정부/공공기관 대상(비영리단체 포함)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 전자상거래 판매(수주)액 고객 유형별 비중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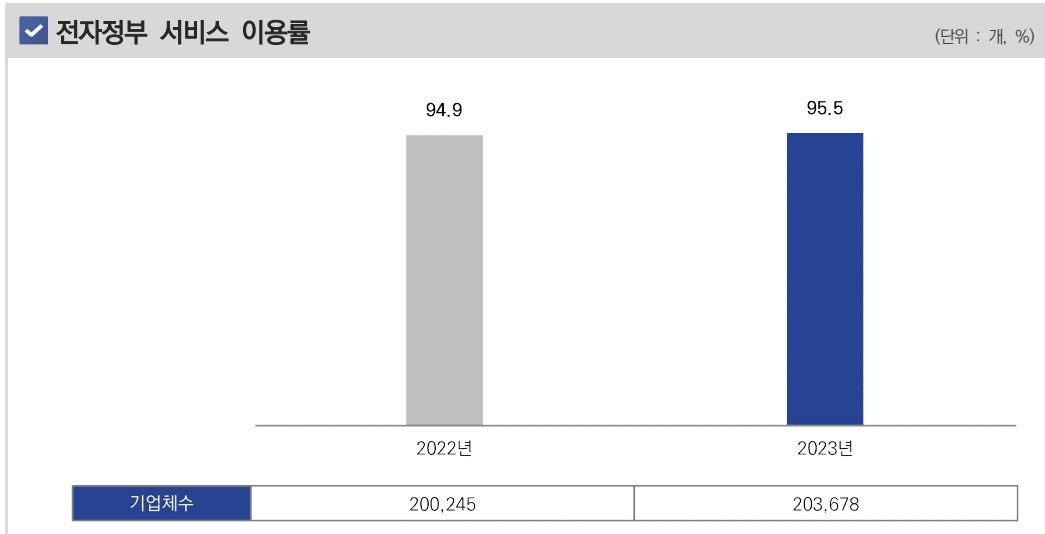
■ 가구/개인(소비자) 대상 ■ 기업 대상(관련기업 포함) ■ 정부/공공기관 대상(비영리단체 포함)



3 전자정부 서비스

3.1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

-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체는 95.5%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※ 주 : 전자정부 서비스는 '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및 공공서비스'를 말함

[업종별]

- 정보통신업(98.0%), 금융 및 보험업(98.0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97.6%) 등의 순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숙박 및 음식점업(89.3%), 농림수산업(90.0%)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
- 특히 250명 이상 규모에서는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이 99.4%로 매우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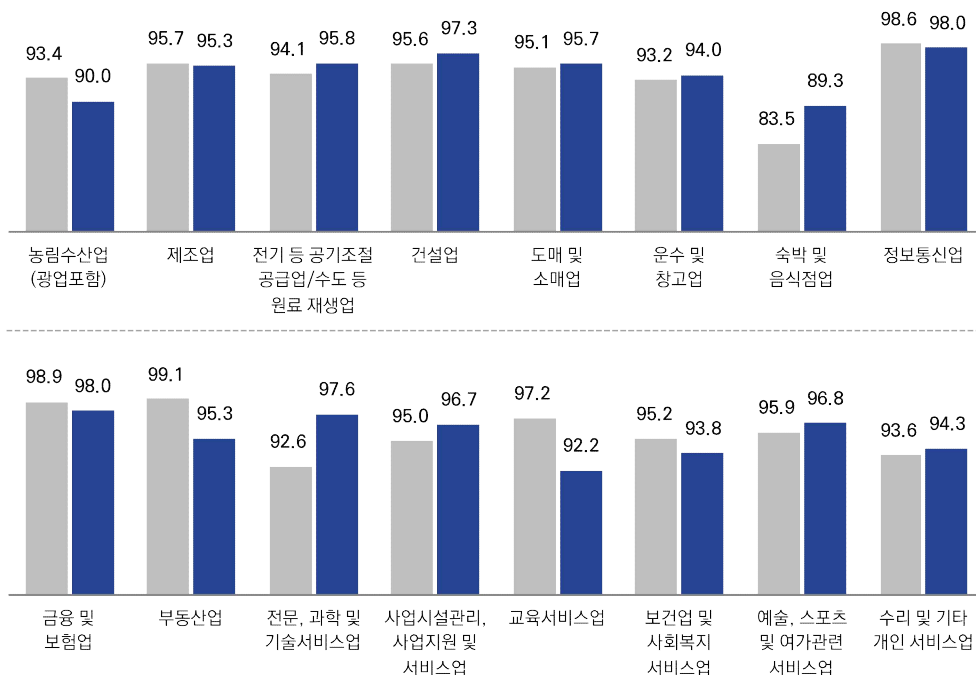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이 96.4%로 개인사업체(92.4%)에 비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

업종별_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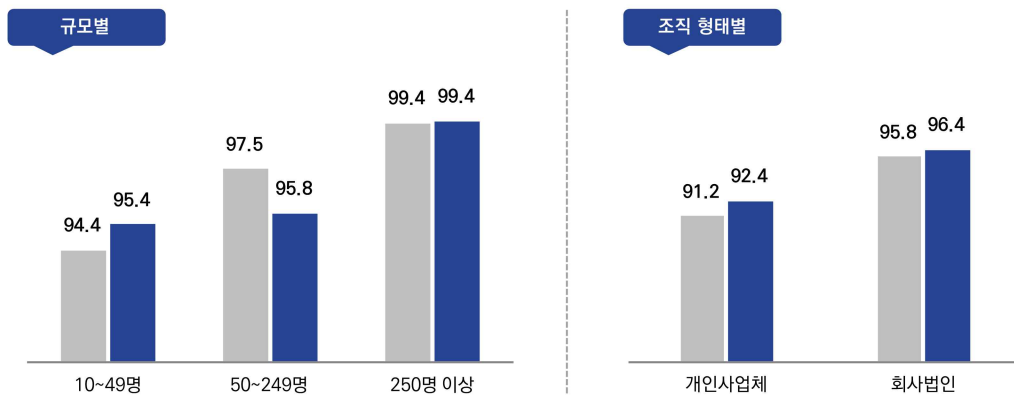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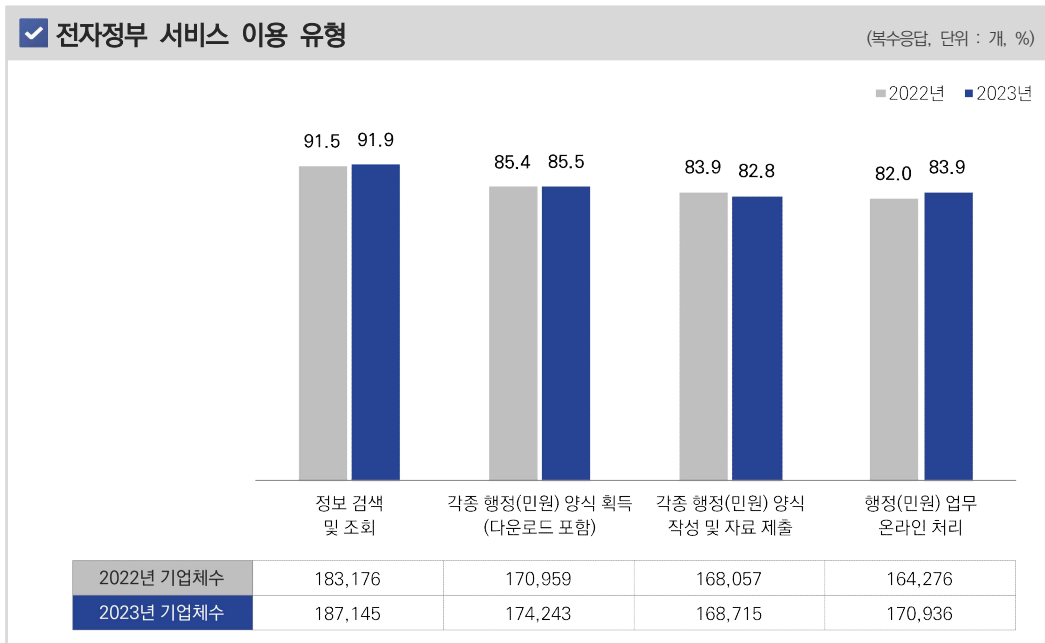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3.2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유형(복수응답)

-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기업체의 이용 유형으로는 ‘정보 검색 및 조회’가 91.9%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‘각종 행정 양식 획득’(85.5%), ‘행정 업무 온라인 처리’(83.9%), ‘각종 행정 양식 작성 및 자료 제출’(82.8%) 순으로 조사됨
- 모든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유형이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유형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‘정보 검색 및 조회’는 정보통신업(97.4%), 운수 및 창고업(97.4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95.8%) 등에서 높게 나타남
- ‘행정(민원) 업무 온라인 처리’는 부동산업(92.9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92.9%), 정보통신업(92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25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4가지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유형이 모두 타 규모보다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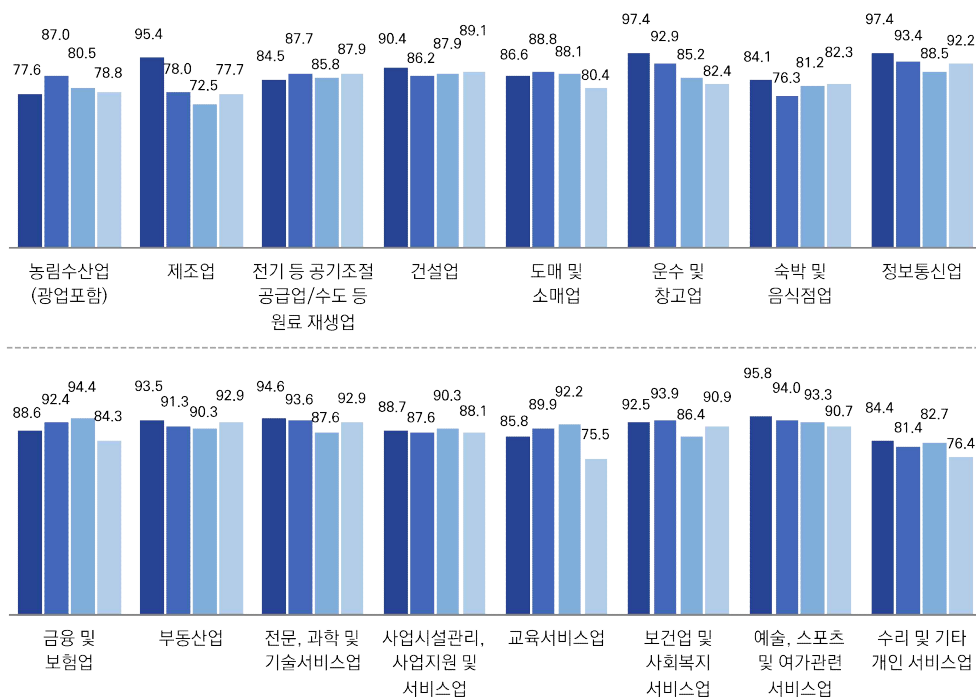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‘행정(민원) 업무 온라인 처리’를 제외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유형은 개인사업체보다 회사법인에서 높게 나타남

업종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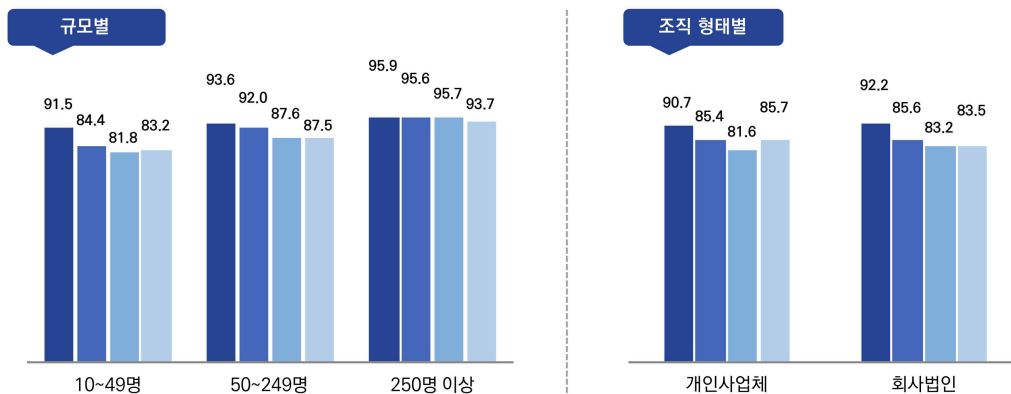
■ 정보 검색 및 조회 ■ 각종 행정(민원) 양식 획득(다운로드 포함) ■ 각종 행정(민원) 양식 작성 및 자료 제출 ■ 행정(민원) 업무 온라인 처리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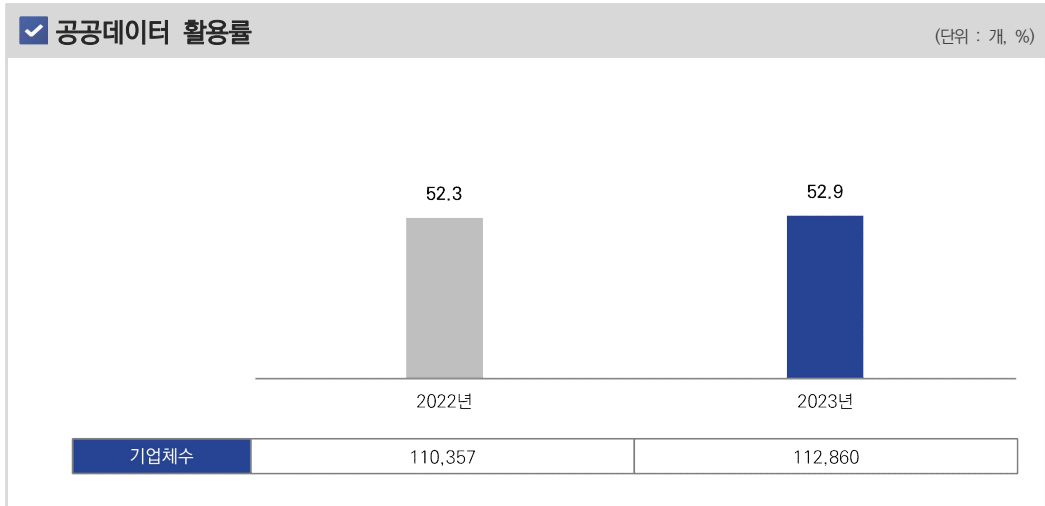
■ 정보 검색 및 조회 ■ 각종 행정(민원) 양식 획득(다운로드 포함) ■ 각종 행정(민원) 양식 작성 및 자료 제출 ■ 행정(민원) 업무 온라인 처리



4 공공데이터 활용

4.1 공공데이터 활용

-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52.9%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※ 주 : 공공데이터는 '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, 작성,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자, 영상, 음성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'를 말함

[업종별]

-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75.1%), 건설업(65.8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64.6%) 등의 순으로 공공데이터 활용률이 높게 조사됨
- 반면, 숙박 및 음식점업(39.0%), 제조업(39.0%)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41.6%)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률을 보임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큰 기업체일수록 공공데이터 활용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
- 종사자수 250명 이상 기업체의 공공데이터 활용률은 76.6%로 높은 반면, 종사자수 10~49명 규모 기업체의 공공데이터 활용률은 50.5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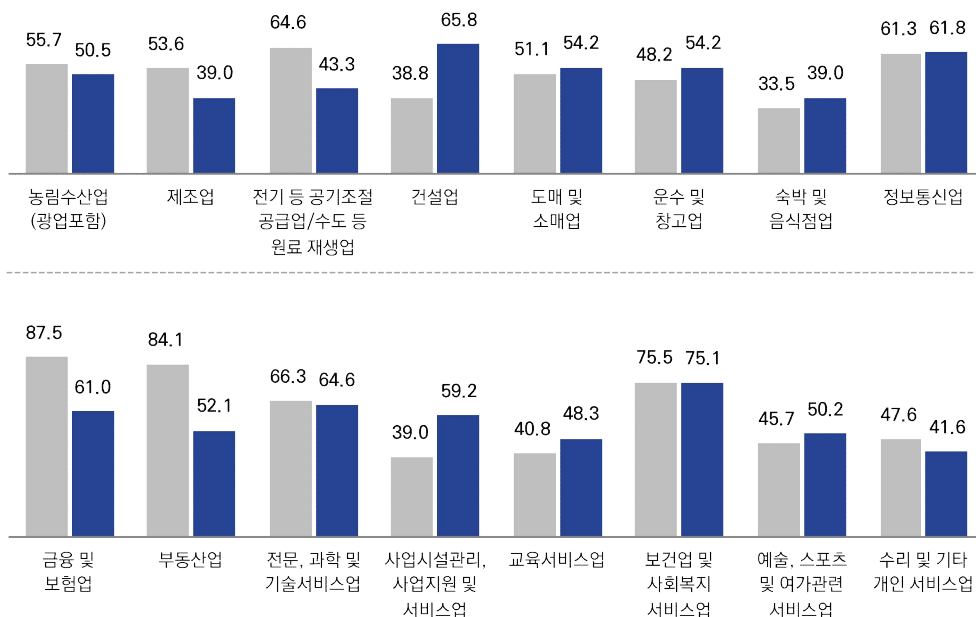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개인사업체(52.4%)와 회사법인(53.1%)이 비슷한 공공데이터 활용률을 보임

업종별_공공데이터 활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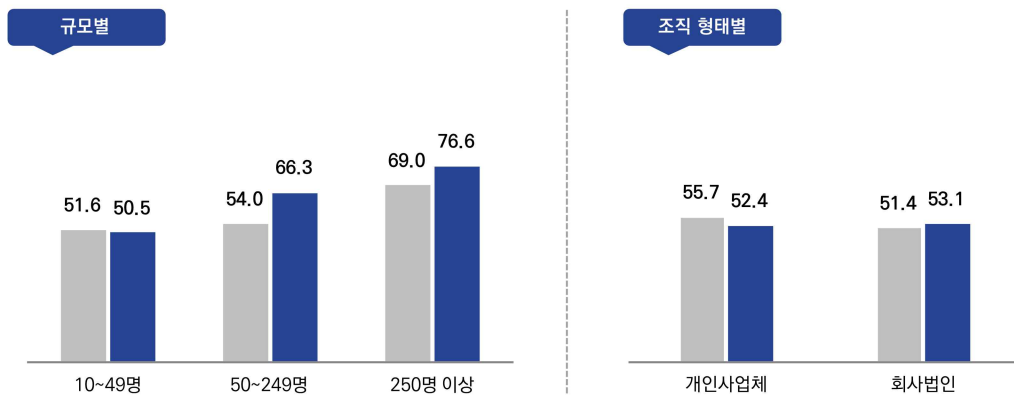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공공데이터 활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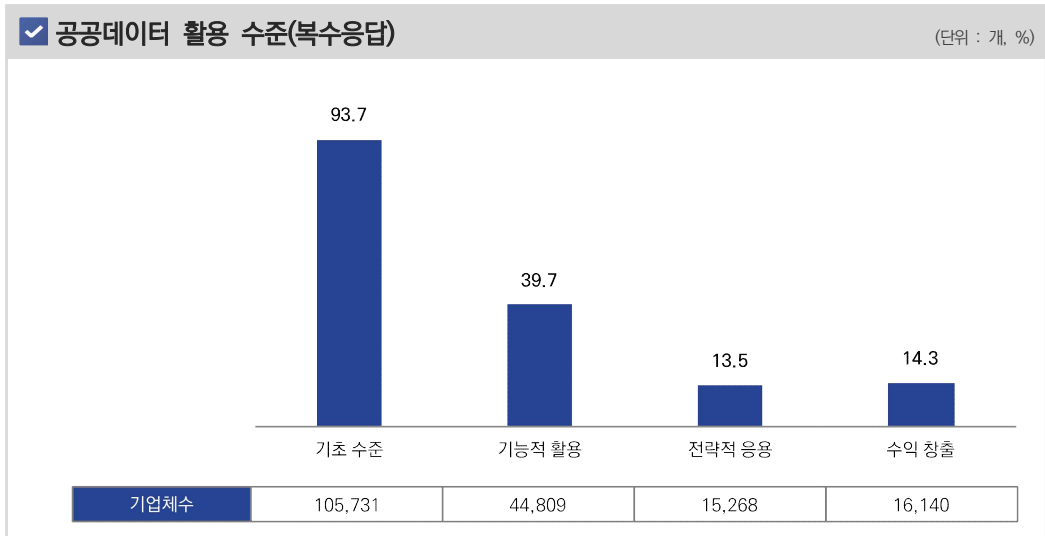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4.1 공공데이터 활용 수준(복수응답)

-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체의 활용 수준으로 '기초 수준'이 93.7%로 가장 높게 나타남
이어서 '기능적 활용'(39.7%), '수익 창출'(14.3%), '전략적 응용'(13.5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체
 ※ 주 : 1) 공공데이터 활용 수준별 복수응답 수치임
 2) 2024년 신규 문항으로 시계열 비교 없음

[업종별]

- '기능적 활용'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56.4%), 정보통신업(54.5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53.1%)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
- '수익 창출'은 건설업(30.3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25.8%), 정보통신업(25.5%)에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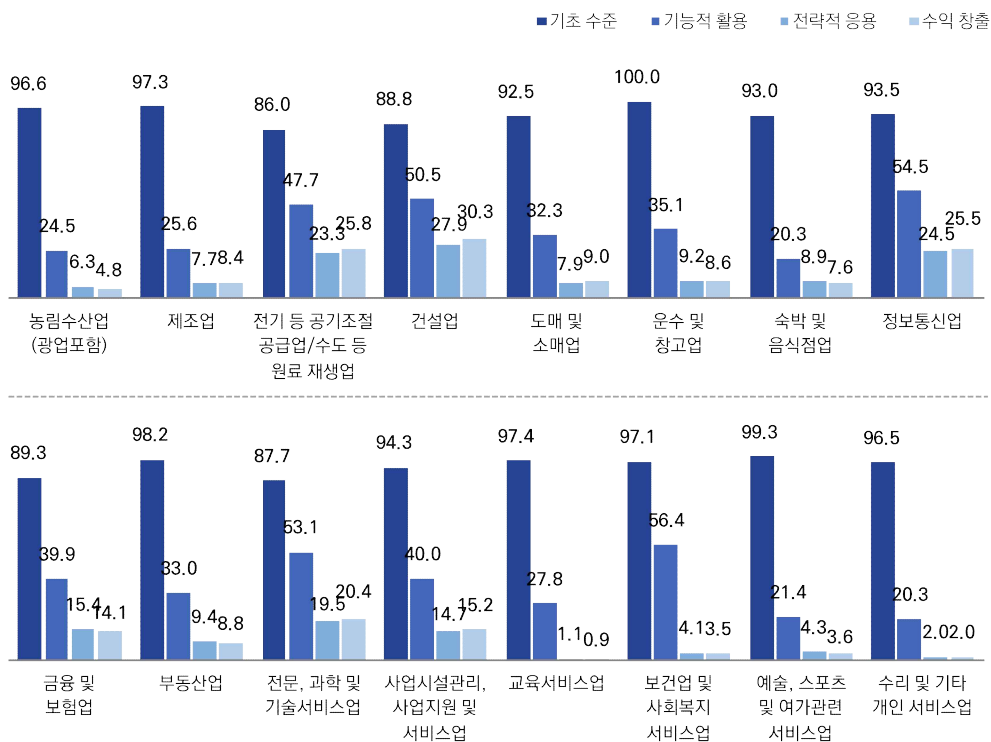
- 종사자 규모가 큰 기업체일수록 공공데이터 활용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
- 종사자수 250명 이상 기업체의 절반(49.9%)은 '기능적 활용'으로 응답하였고, '전략적 응용'과 '수익 창출' 역시 각각 22.0%와 22.1%로 타 규모 대비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에서 공공데이터의 '전략적 응용'(15.7%)과 '수익 창출'(16.7%)이 개인사업체(각각 5.5%, 5.5%)에 비해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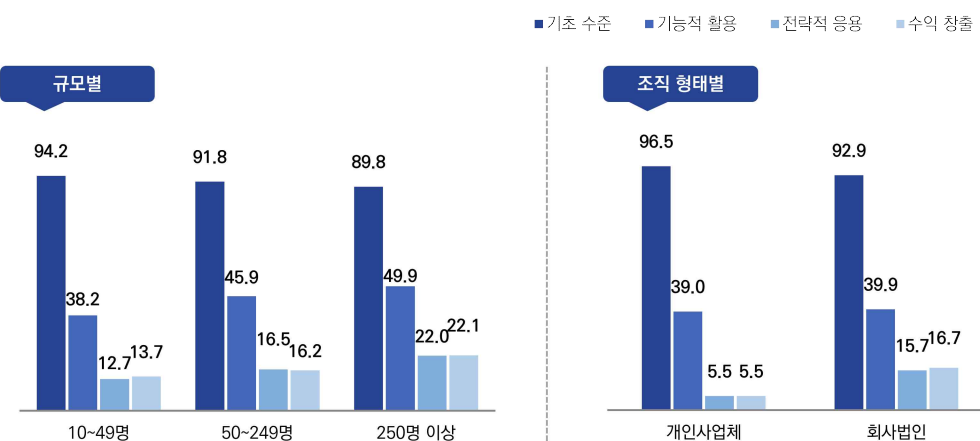
업종별_공공데이터 활용 수준(복수응답)

(단위 : %)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공공데이터 활용 수준(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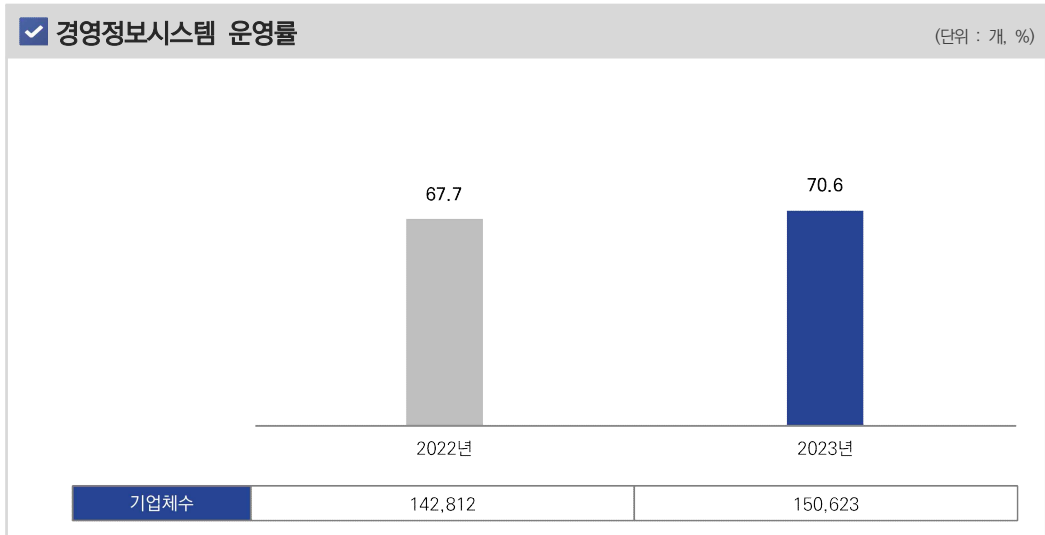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5 경영정보시스템

5.1 경영정보시스템 운영

- 경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는 70.6%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경영정보시스템 운영률은 2.9%p 증가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금융 및 보험업(89.2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82.1%), 정보통신업(77.9%)에서 경영정보시스템 운영률이 높게 조사됨
- 반면, 숙박 및 음식점업(54.1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64.4%), 부동산업(64.4%)에서는 경영정보시스템 운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큰 기업체일수록 경영정보시스템 운영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
- 종사자수 250명 이상 기업체의 경영정보시스템 운영률은 96.0%인 반면, 10~49명 규모의 기업체에서는 68.1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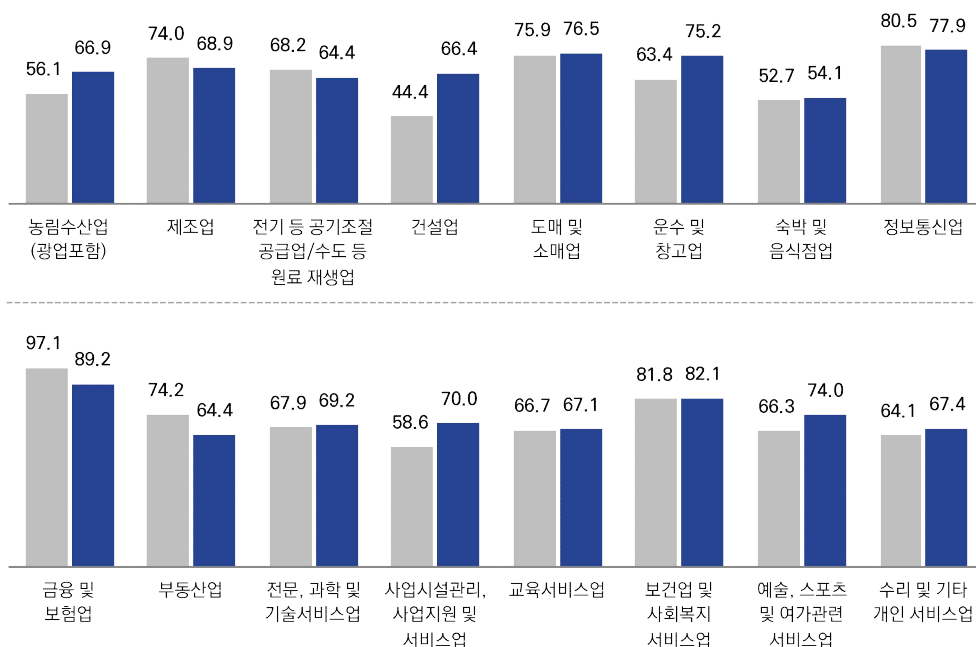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의 경영정보시스템 운영률이 71.9%로 개인사업체(66.0%)보다 높게 나타남

업종별_경영정보시스템 운영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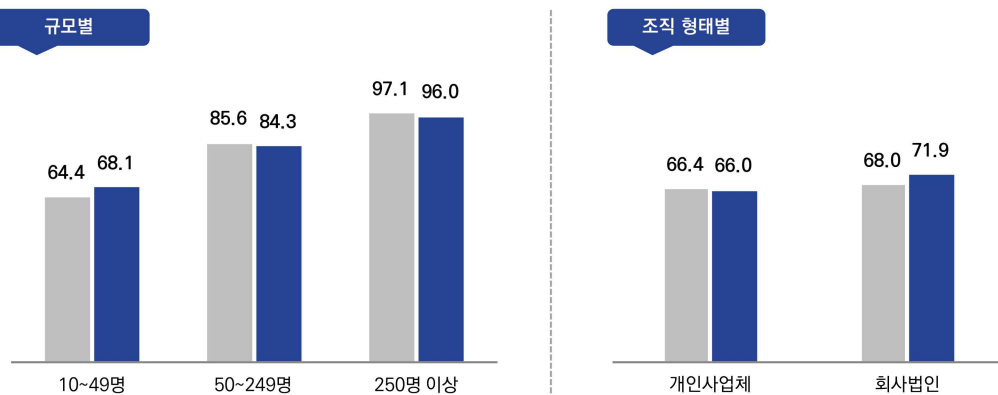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경영정보시스템 운영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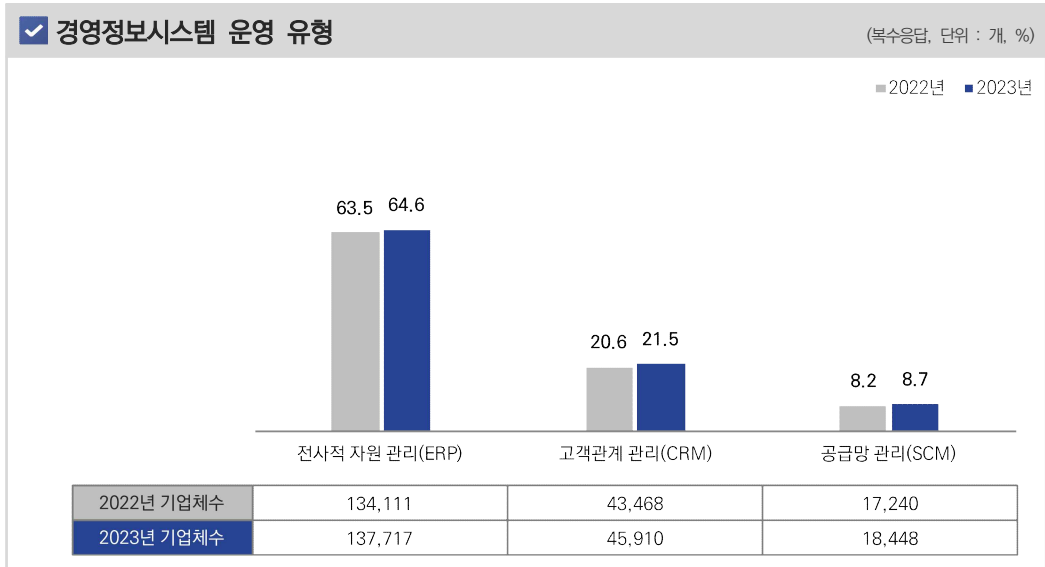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5.2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유형(복수응답)

- 운영 중인 경영정보시스템 유형으로 ‘전사적 자원 관리(ERP)’가 64.6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‘고객관계 관리(CRM)’가 21.5%, ‘공급망 관리(SCM)’는 8.7%로 조사됨
- 전년 대비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유형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 ※ 주 :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항목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‘전사적 자원 관리(ERP)’는 금융 및 보험업(85.8%), 정보통신업(72.4%), 도매 및 소매업(71.4%)에서 높게 나타남
- ‘고객관계 관리(CRM)’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52.6%), 금융 및 보험업(39.3%), 교육서비스업(33.7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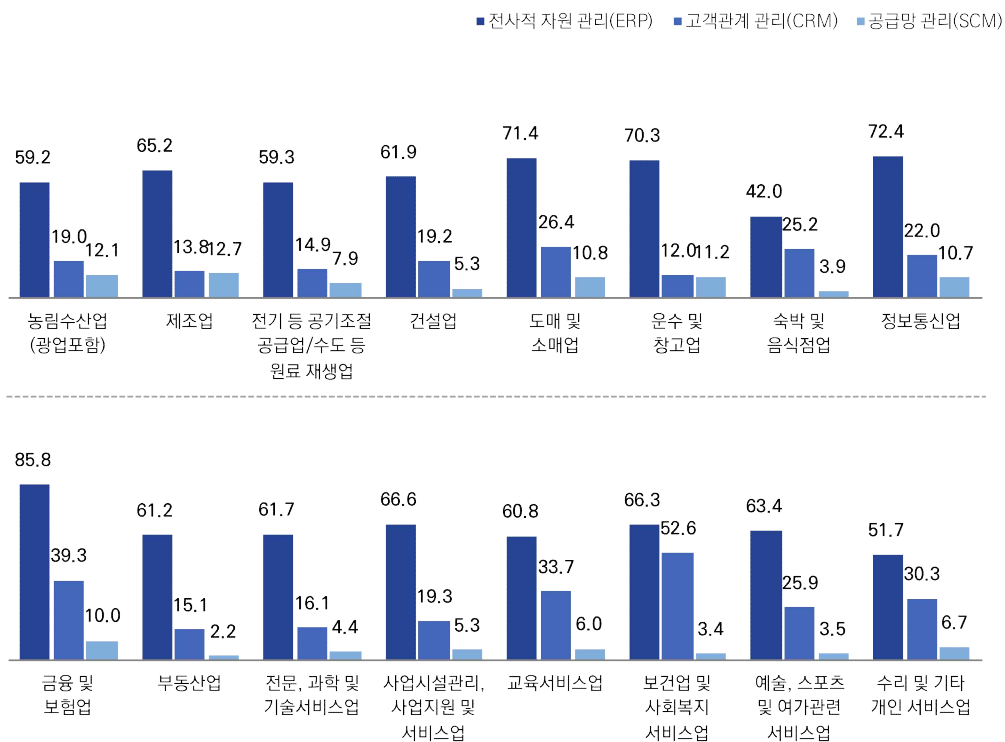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각 시스템의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남
- 특히 250명 이상 규모의 기업체에서는 ‘전사적 자원 관리(ERP)’가 95.5%로 매우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전사적 자원 관리(ERP)’는 개인사업체(55.3%)보다 회사법인(67.1%)에서 더 높게 나타남
- ‘고객관계 관리(CRM)’는 회사법인(19.6%)보다 개인사업체(28.5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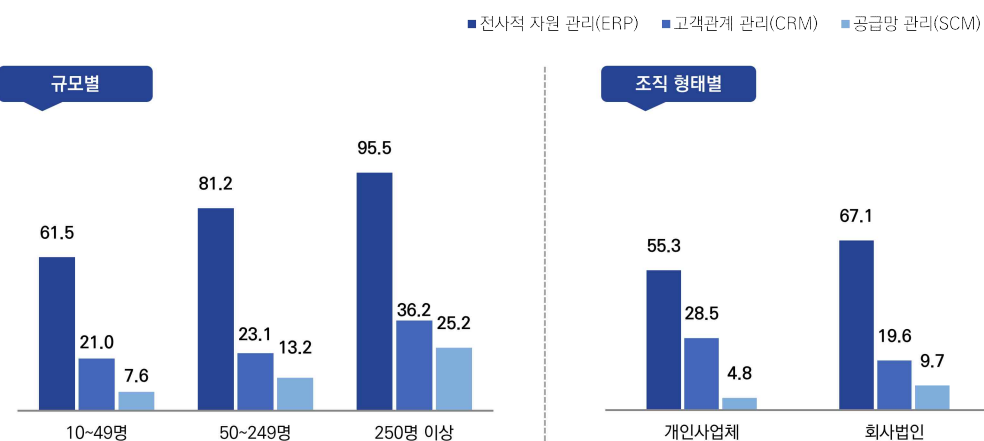
업종별_경영정보시스템 운영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)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경영정보시스템 운영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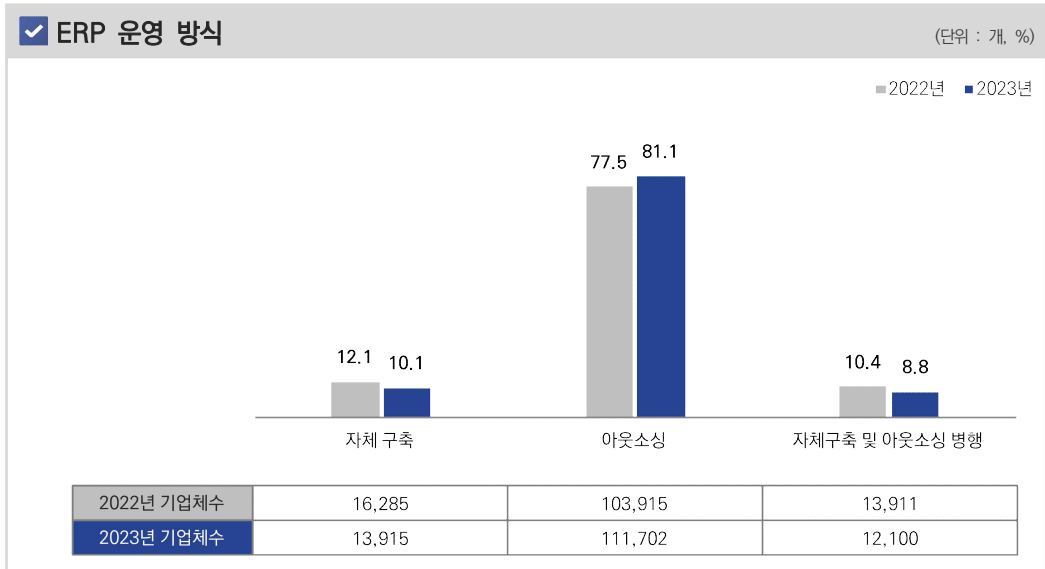
(복수응답, 단위 : %)



5.3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방식

5.3.1 ERP 운영 방식

- ERP 시스템을 운영중인 기업체의 운영 방식으로 ‘아웃소싱’이 81.1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‘자체 구축’(10.1%), ‘자체구축 및 아웃소싱 병행’(8.8%) 순으로 조사됨
- 전년 대비 ‘아웃소싱’ 방식은 소폭 증가했고, ‘자체 구축’, ‘자체구축 및 아웃소싱 병행’은 감소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ERP 운영 기업체

[업종별]

- ‘자체 구축’은 정보통신업(22.6%), 교육 서비스업(13.3%), 제조업(12.2%)에서 높게 나타남
- ‘아웃소싱’은 부동산업(92.8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91.7%)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89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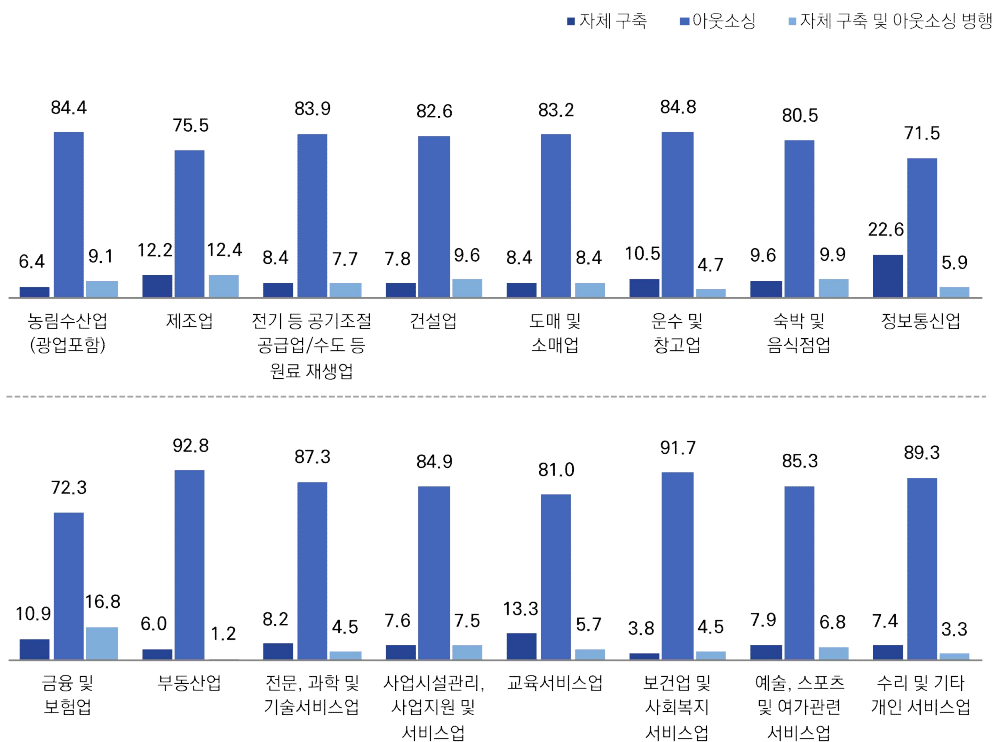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‘자체 구축’과 ‘자체 구축 및 아웃소싱 병행’ 비율이 높게 조사됨
- 250명 이상 기업체에서 ERP 시스템을 ‘자체 구축’하여 운영한다는 응답은 20.3%로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개인사업체보다 회사법인에서 ‘자체 구축’과 ‘자체 구축 및 아웃소싱 병행’ 비율이 더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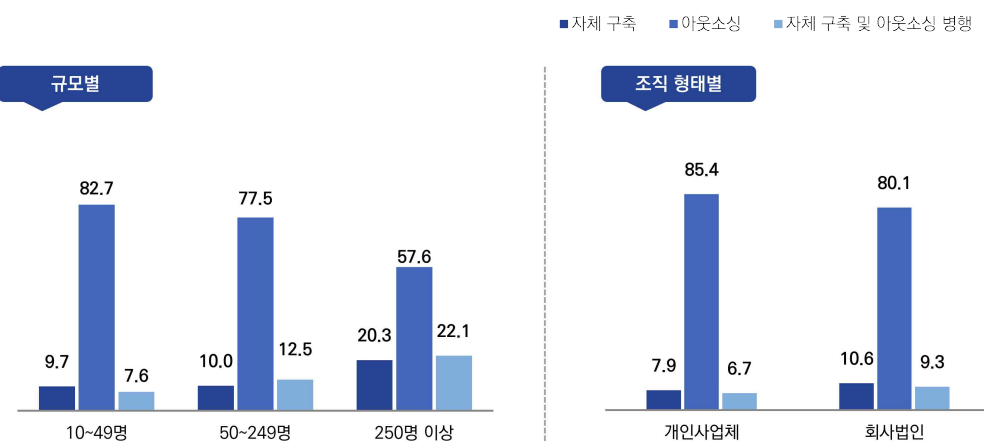
업종별_ERP 운영 방식

(복수응답, 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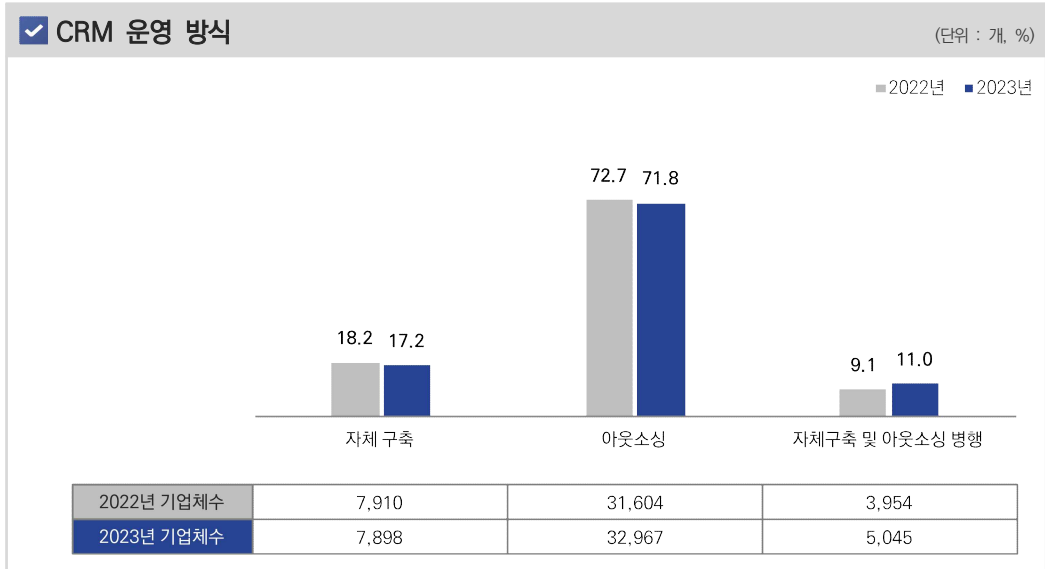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_ERP 운영 방식

(복수응답, 단위 : %)



5.3.2 CRM 운영 방식

- CRM 시스템을 운영중인 기업의 운영 방식은 '아웃소싱'이 71.8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'자체 구축'(17.2%), '자체구축 및 아웃소싱 병행'(11.0%) 순으로 조사됨
- 전년 대비 CRM 운영 방식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CRM 운영 기업체

[업종별]

- '자체 구축'은 정보통신업(31.4%)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21.9%), 숙박 및 음식점업(21.4%)에서 높게 나타남
- '아웃소싱'은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재생업(79.2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78.0%), 농림수산업(78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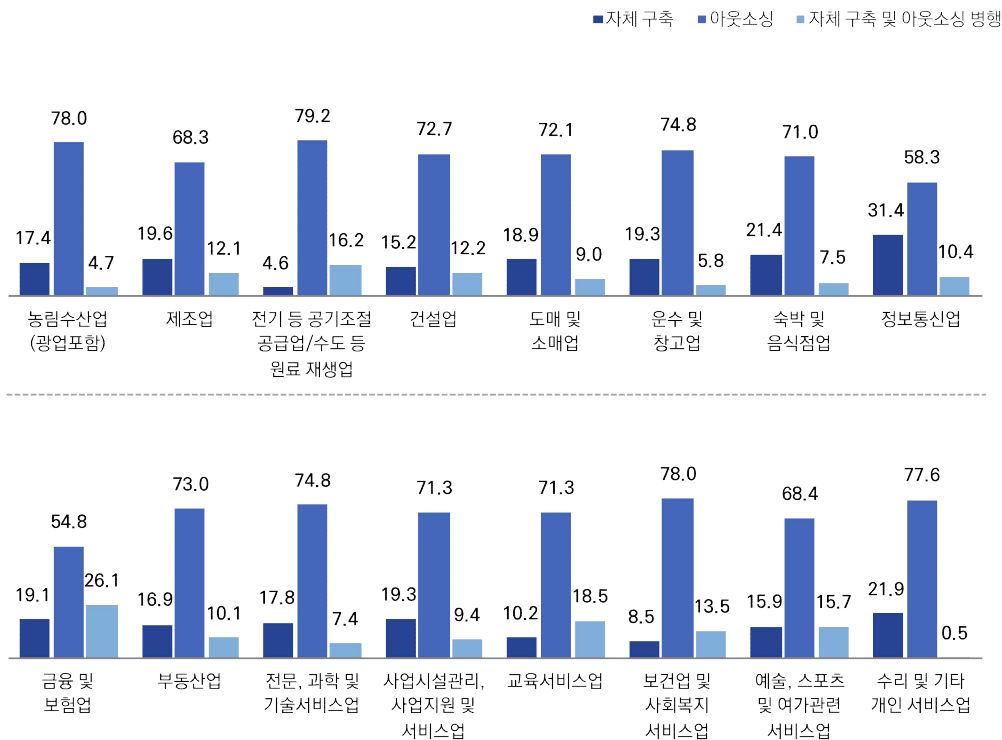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'아웃소싱' 비율이 낮고, '자체 구축'과 '자체 구축 및 아웃소싱 병행'이 높게 나타남
- 특히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에서 CRM '자체 구축' 비율은 33.1%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개인사업체보다 회사법인에서 '아웃소싱' 대신 '자체 구축'과 '자체 구축 및 아웃소싱 병행'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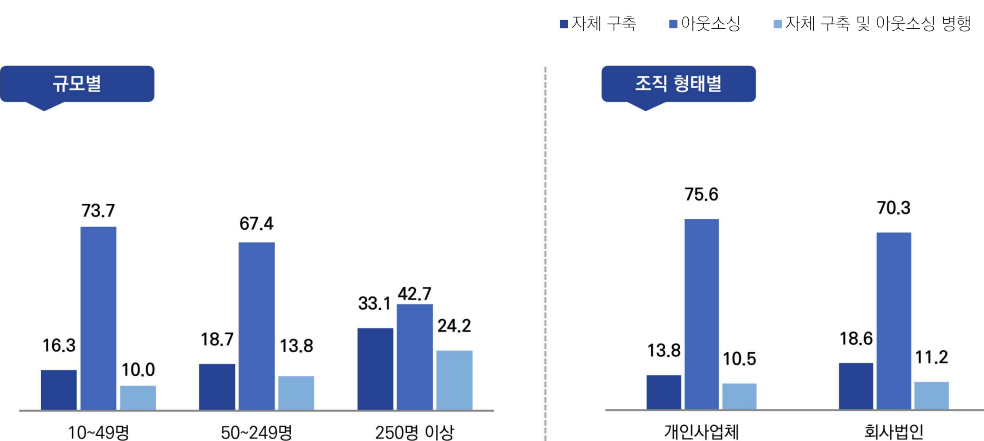
업종별_CRM 운영 방식

(복수응답, 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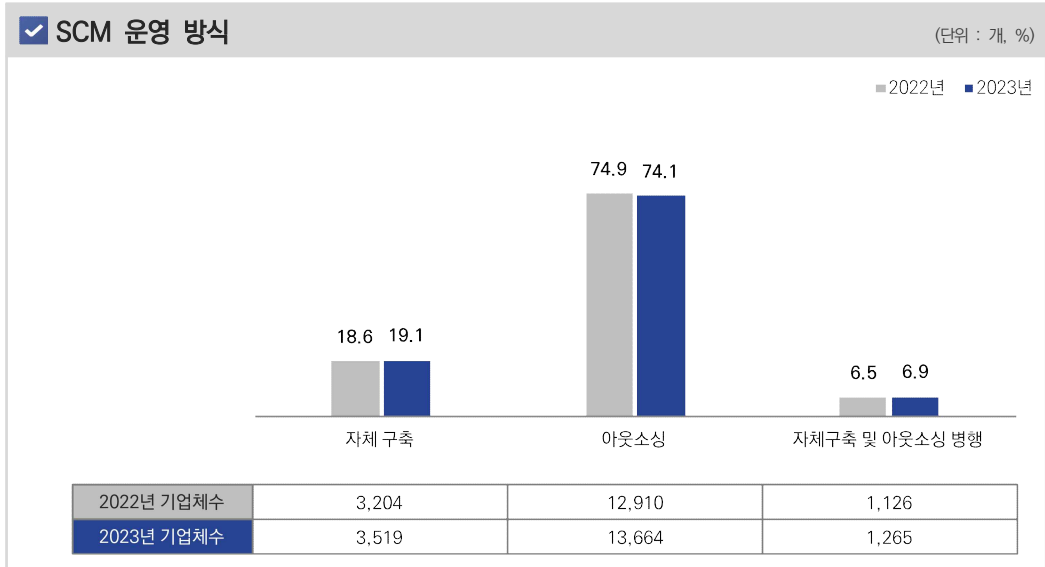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_CRM 운영 방식

(복수응답, 단위 : %)



5.3.3 SCM 운영 방식

- SCM 시스템을 운영중인 기업의 운영 방식은 '아웃소싱'이 74.1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'자체 구축'(19.1%), '자체구축 및 아웃소싱 병행'(6.9%) 순으로 조사됨
- 전년 대비 SCM 운영 방식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SCM 운영 기업체

[업종별]

- '자체 구축'은 숙박 및 음식점업(41.5%), 정보통신업(37.3%), 농림수산업(23.4%)에서 높게 나타남
- '아웃소싱'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96.9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88.2%), 부동산업 (87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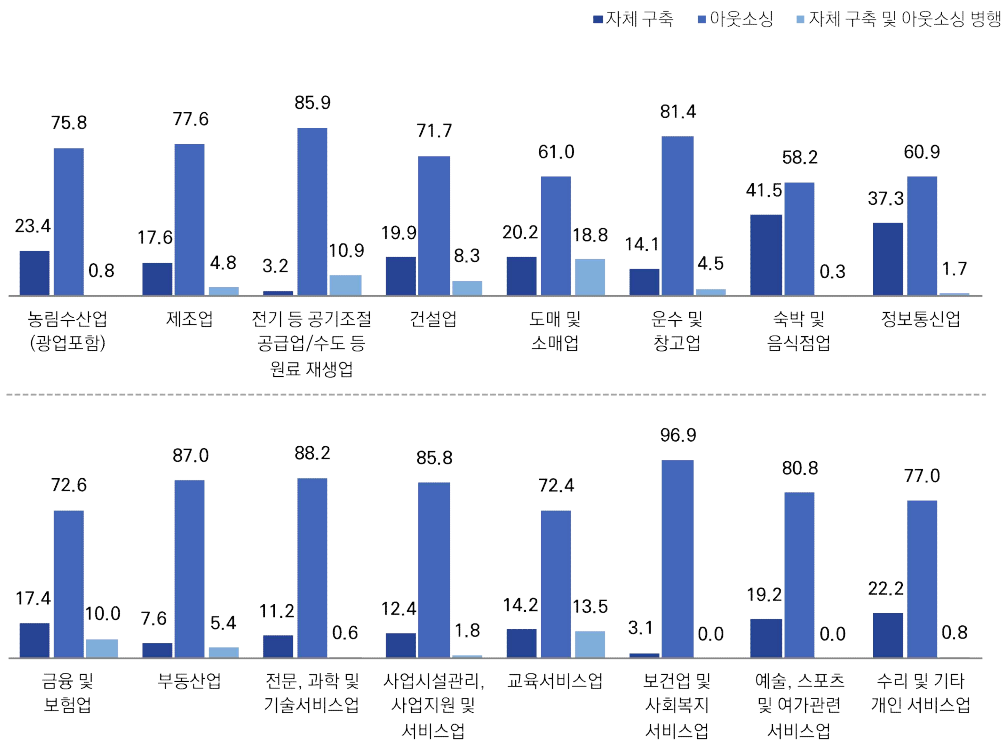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'자체 구축', '자체 구축 및 아웃소싱 병행' 비율이 높게 나타남
- 특히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에서 SCM '자체 구축' 비율은 31.8%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개인사업체보다 회사법인에서 '자체 구축', '자체 구축 및 아웃소싱 병행' 비율이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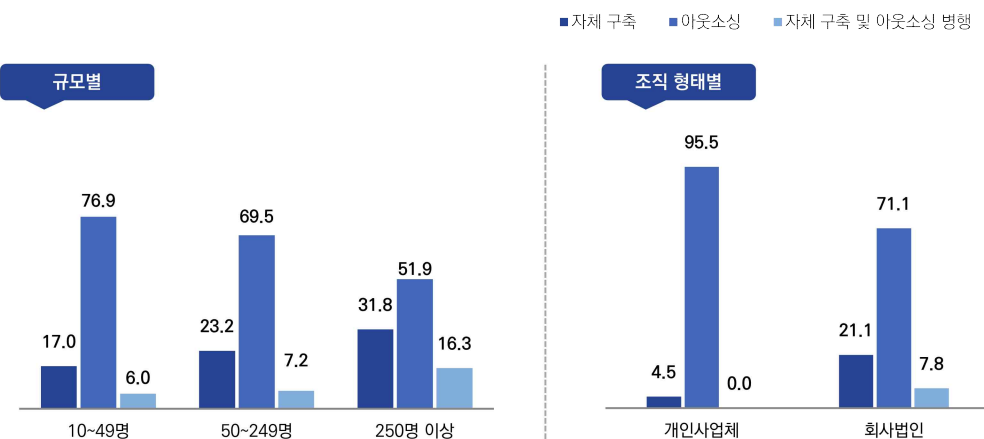
업종별 SCM 운영 방식

(복수응답, 단위 : %)



규모 및 조직 SCM 운영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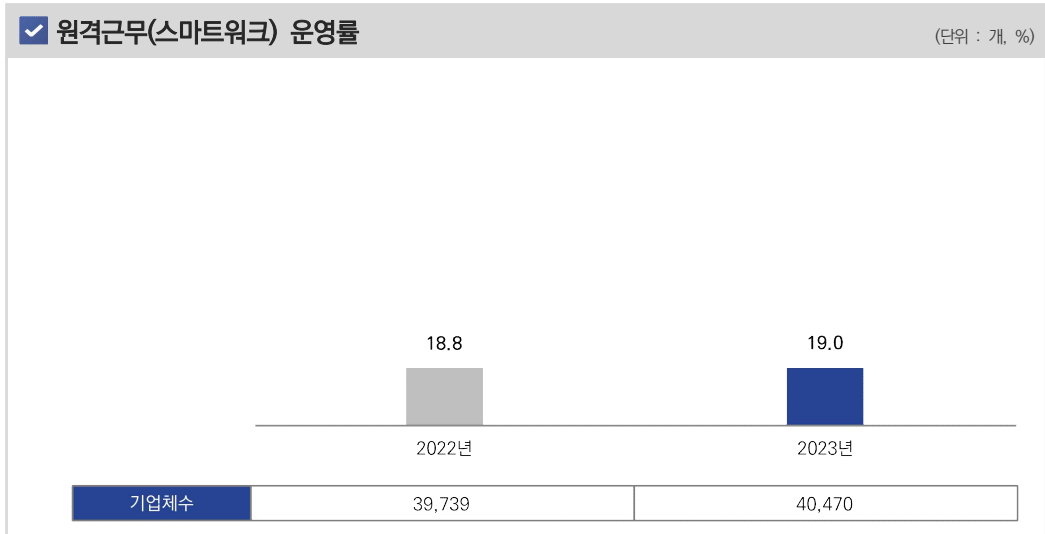
(복수응답, 단위 : %)



6 원격근무(스마트워크)

6.1 원격근무(스마트워크) 운영

- 원격근무(스마트워크)를 운영하는 기업체는 19.0% 수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※ 주 : 원격근무(스마트워크) :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말함

[업종별]

- 정보통신업(49.5%)의 원격근무 운영 비율이 가장 높고, 다음으로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44.2%), 운수 및 창고업(36.2%) 등의 순으로 원격근무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숙박 및 음식점업(5.7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7.0%)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8.5%) 등은 원격근무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원격근무 운영 비율이 높게 조사됨
- 종사자수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의 원격근무(스마트워크) 운영률이 41.8% 로 가장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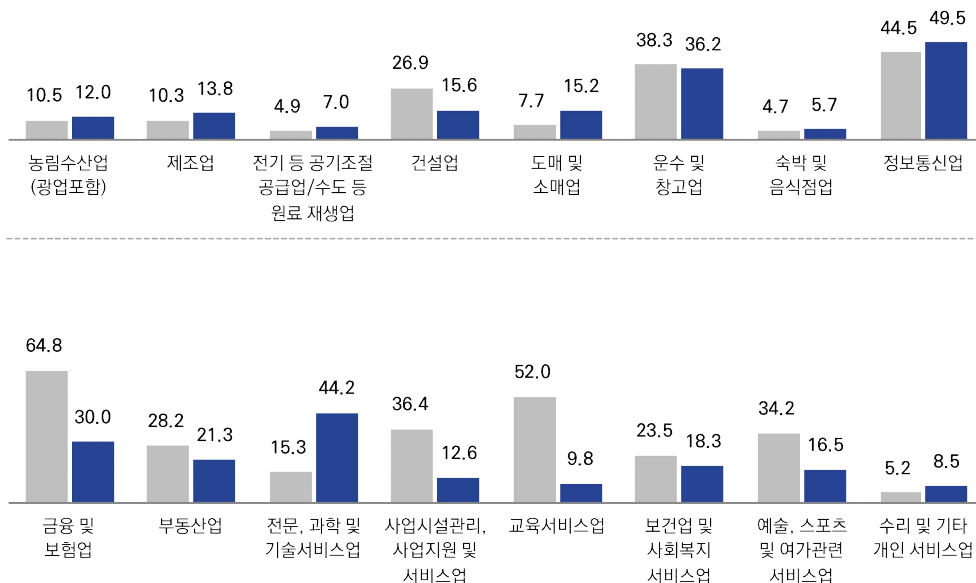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(20.3%)이 개인사업체(14.2%)보다 높은 원격근무 운영률을 보임

업종별_원격근무(스마트워크) 운영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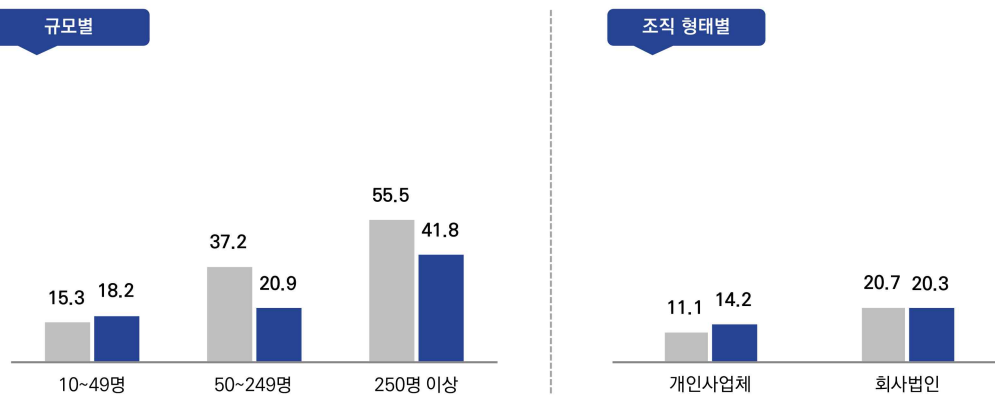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원격근무(스마트워크) 운영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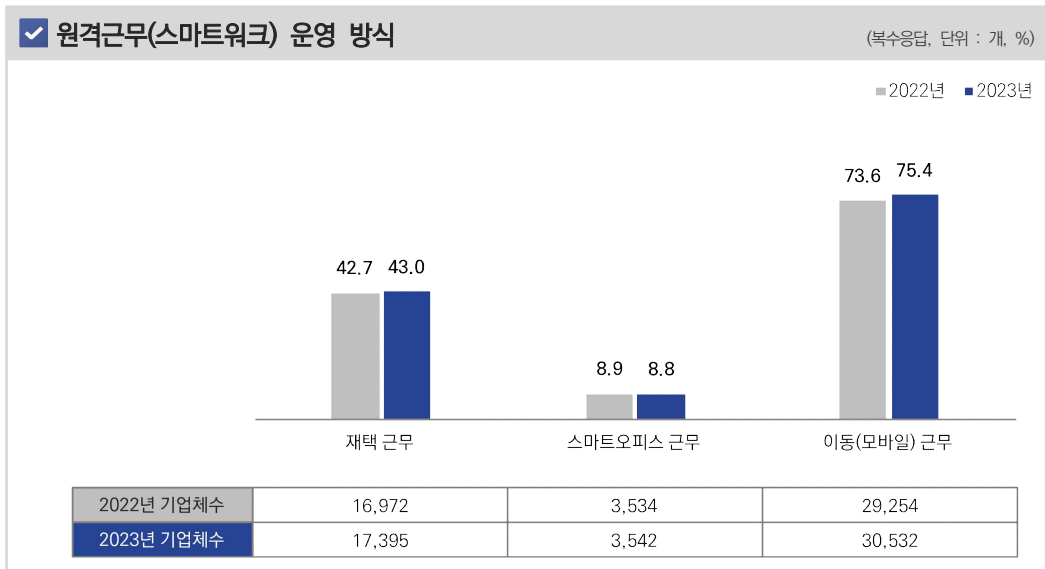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6.2 원격근무(스마트워크) 운영 방식(복수응답)

- 원격근무(스마트워크)를 운영하는 기업체의 운영 방식은 '이동(모바일) 근무'가 75.4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'재택 근무'(43.0%), '스마트오피스 근무'(8.8%) 순으로 조사됨
- 전년 대비 '이동(모바일) 근무'는 1.8%p 증가했고, '재택 근무' 및 '스마트오피스 근무'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원격 근무(스마트워크) 운영 기업체
 ※ 주 : 원격 근무(스마트워크) 운영 방식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'재택근무'는 금융 및 보험업(81.2%), 교육서비스업(77.5%), 도매 및 소매업(67.1%)에서 높게 나타남
- '모바일 근무'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99.5%), 농림수산업(99.2%), 운수 및 창고업(88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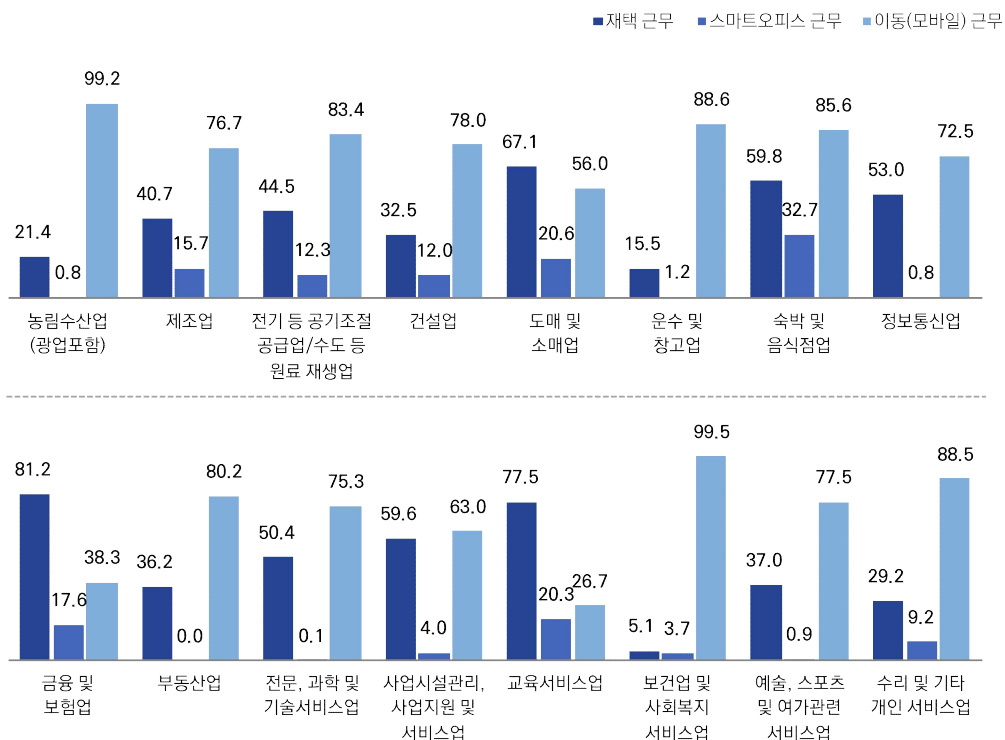
- '재택 근무'는 250명 이상 규모의 기업체(56.0%)에서 타 규모 대비 높게 나타남
- '스마트오피스 근무'와 '이동(모바일) 근무'는 10~49명 규모 기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

[조직 형태별]

- '재택근무'와 '스마트오피스 근무'는 회사법인이 개인사업체보다 높지만, '이동(모바일) 근무'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회사법인보다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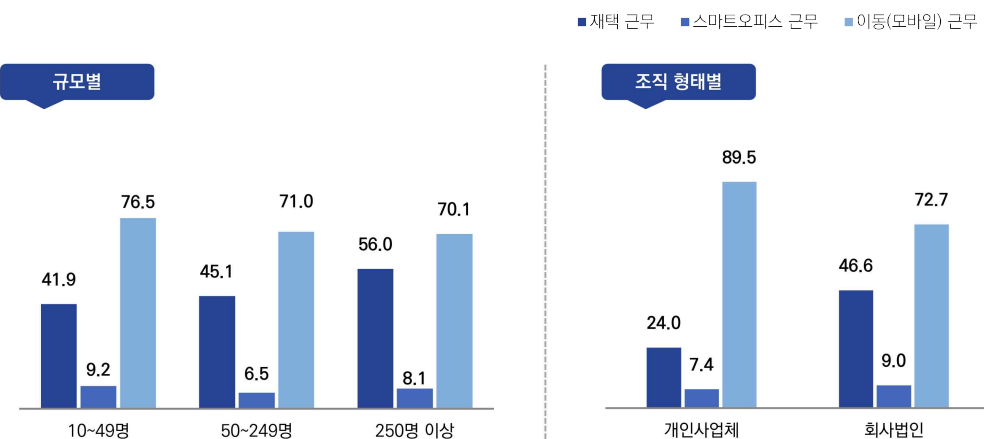
업종별_원격근무(스마트워크) 운영 방식

(복수응답, 단위 : %)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원격근무(스마트워크) 운영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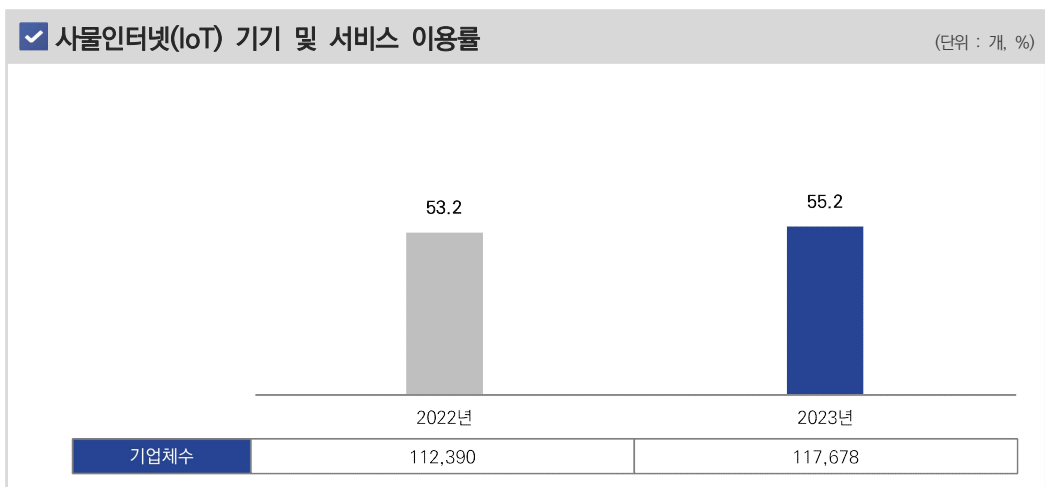
(복수응답, 단위 : %)



1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

1.1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

-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55.2% 수준으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사물인터넷 이용률은 2.0%p 증가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87.7%), 숙박 및 음식점업(82.7%), 교육서비스업(81.4%) 등의 순으로 사물인터넷(IoT)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부동산업(26.8%), 농림수산업(27.0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28.6%) 등은 사물인터넷(IoT)의 이용률이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사물인터넷(IoT)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특히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에서는 사물인터넷(IoT)의 이용률이 70.6%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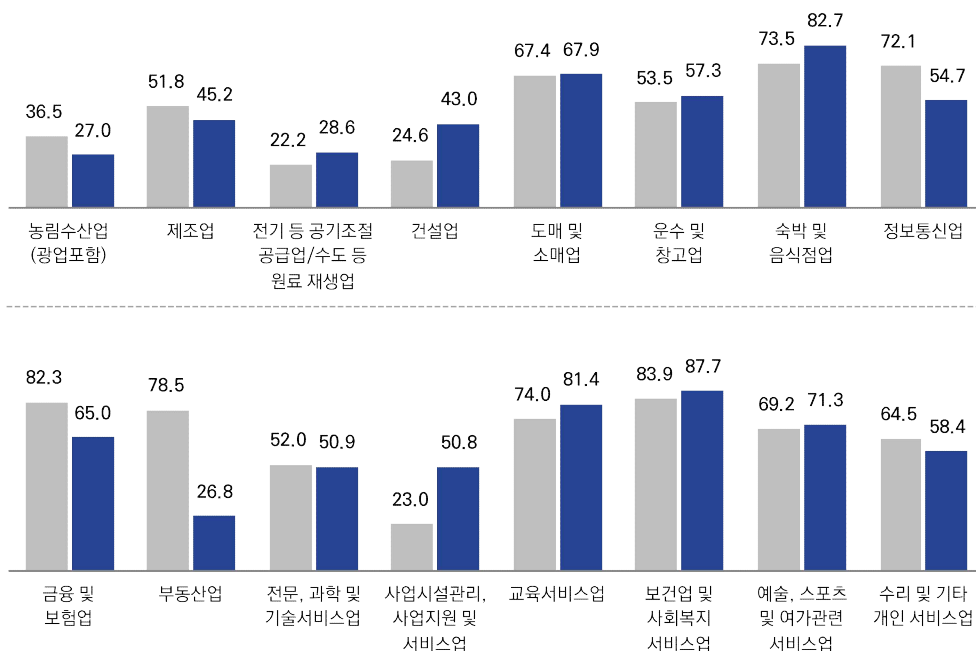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개인사업체가 68.6%로 회사법인(51.5%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업종별_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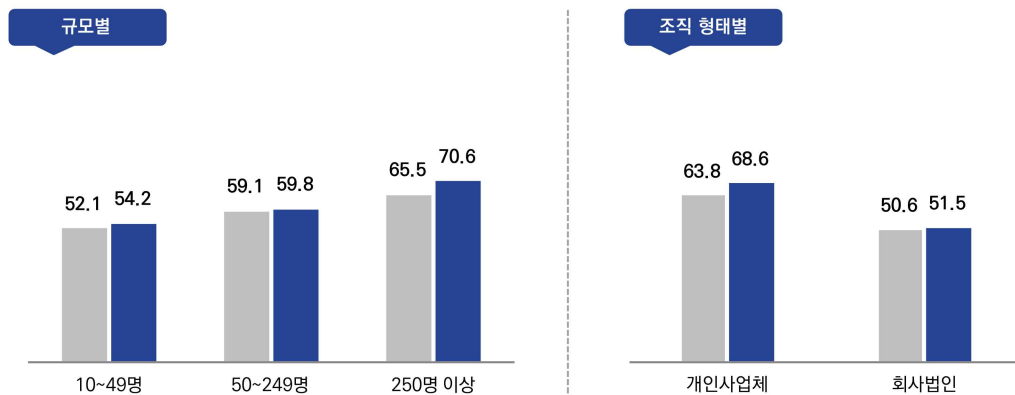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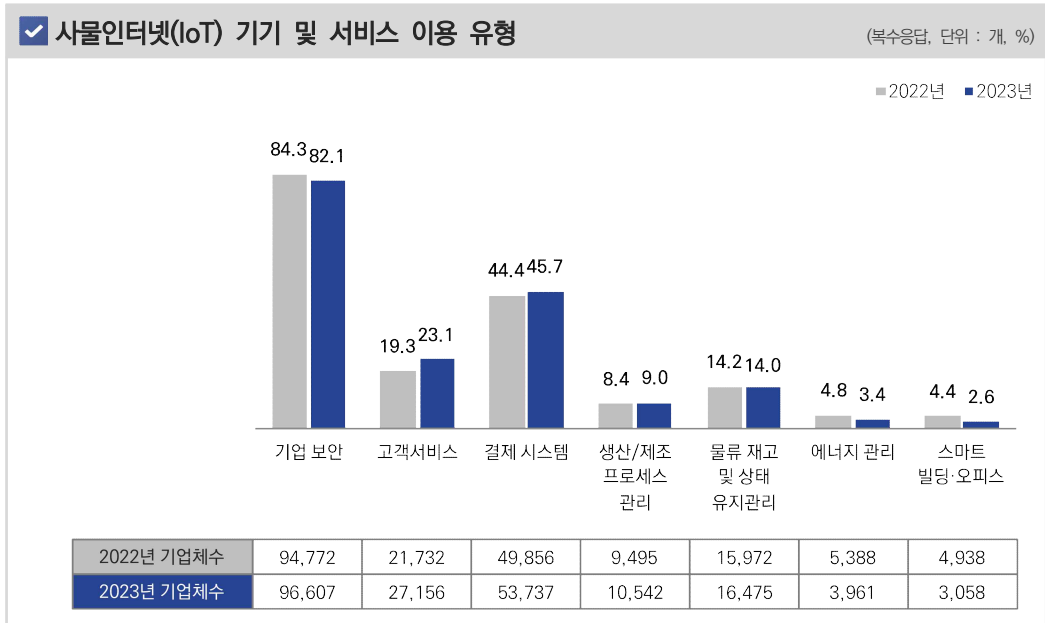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1.2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유형(복수응답)

-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‘기업 보안’(82.1%) 서비스로 조사됨
- 다음으로 ‘결제 시스템’(45.7%), ‘고객 서비스’(23.1%), ‘물류 재고 및 상태 유지관리’(14.0%)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유형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‘기업 보안’은 금융 및 보험업(97.6%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(94.1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재생업(92.4%)에서 높게 나타남
- ‘결제 시스템’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95.9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84.0%), 숙박 및 음식점업(77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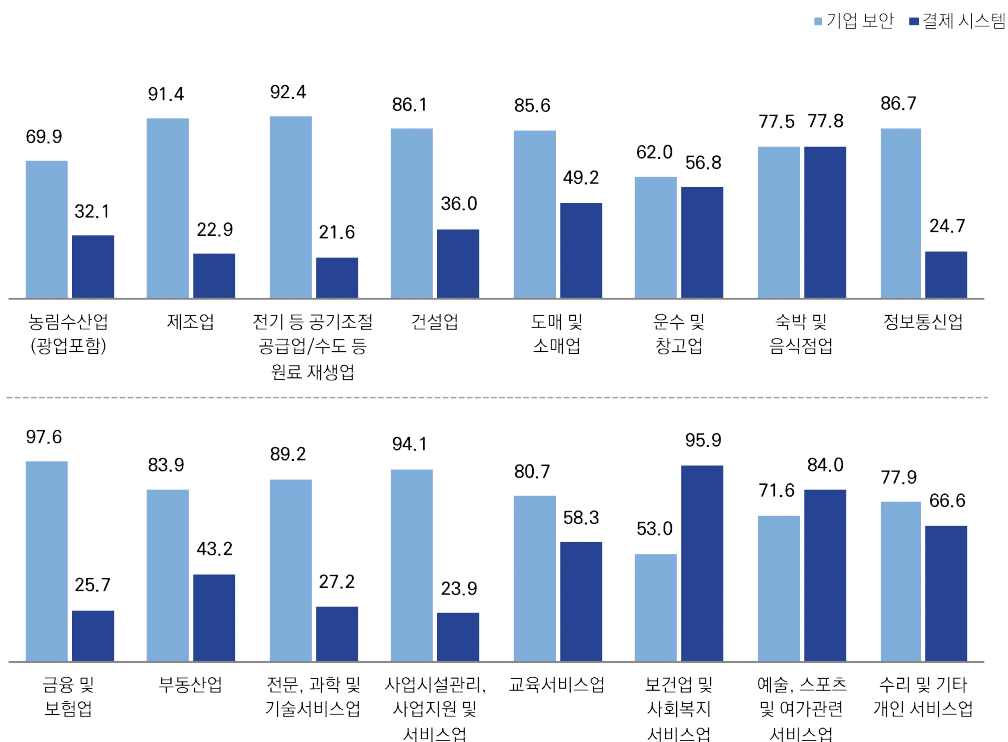
- ‘기업 보안’은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(87.6%)에서 타 규모보다 높게 조사됨
- ‘결제 시스템’은 10~49명 규모 기업체(46.0%)에서 50명 이상 기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기업 보안’은 회사법인(87.3%)이 개인사업체(67.9%)보다 높게 나타남
- 반면, ‘결제 시스템’은 개인사업체(75.4%)에서 회사법인(34.7%)보다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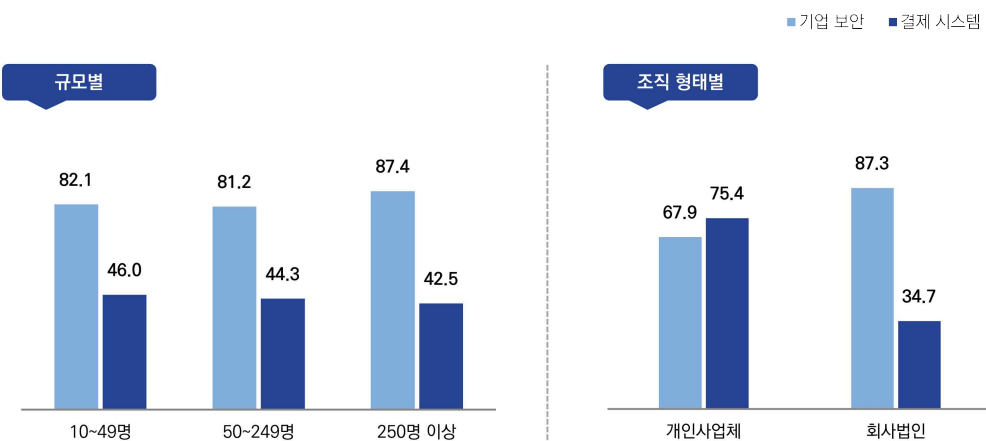
✓ 업종별_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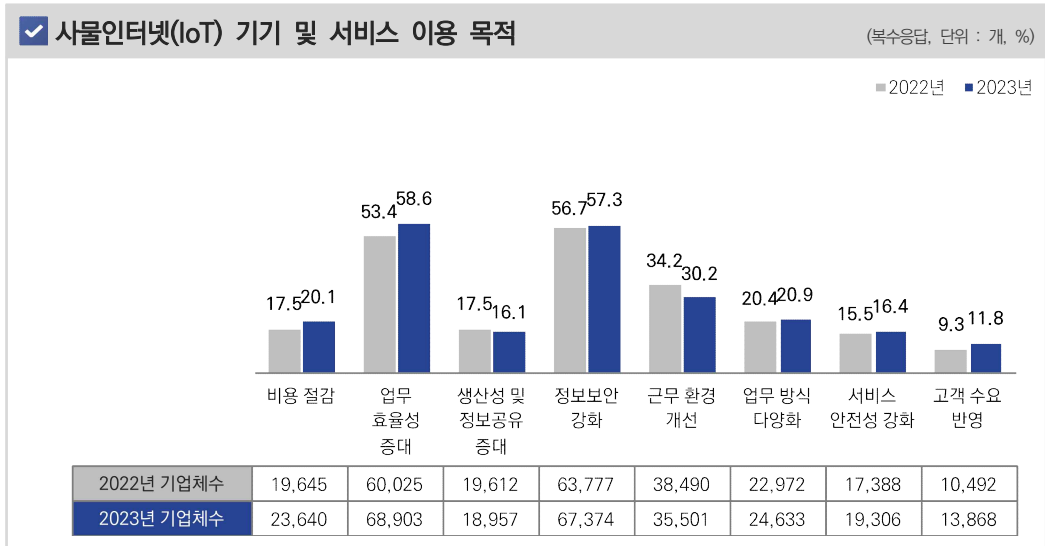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1.3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목적(복수응답)

-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의 이용 목적으로는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가 58.6%로 가장 높으며, 다음으로 ‘정보보안 강화’(57.3%), ‘근무 환경 개선’(30.2%), ‘업무 방식 다양화’(20.9%)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목적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86.8%), 운수 및 창고업(80.7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79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‘정보보안 강화’는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81.6%), 금융 및 보험업(70.2%), 제조업(73.4%)에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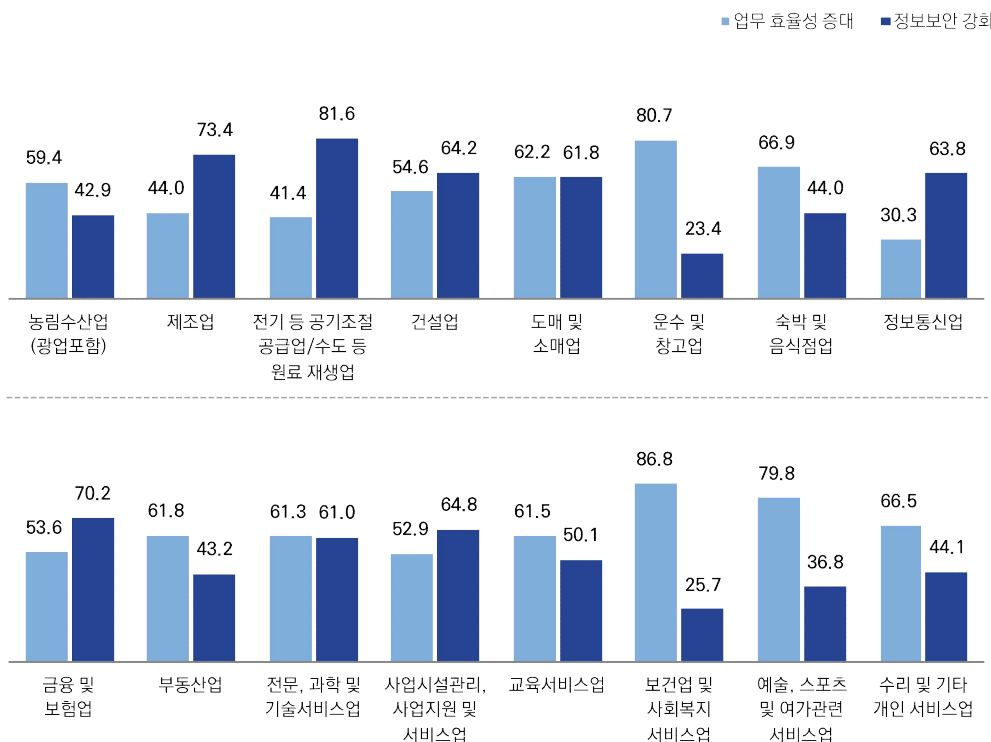
-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와 ‘정보보안 강화’ 모두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(각각 65.3%, 57.8%)에서 타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는 개인사업체(68.9%), ‘정보보안 강화’는 회사법인(63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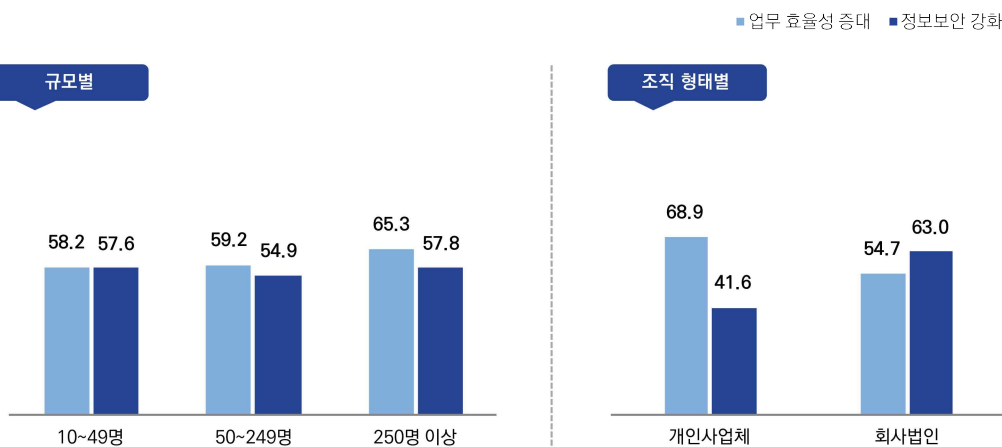
✓ 업종별_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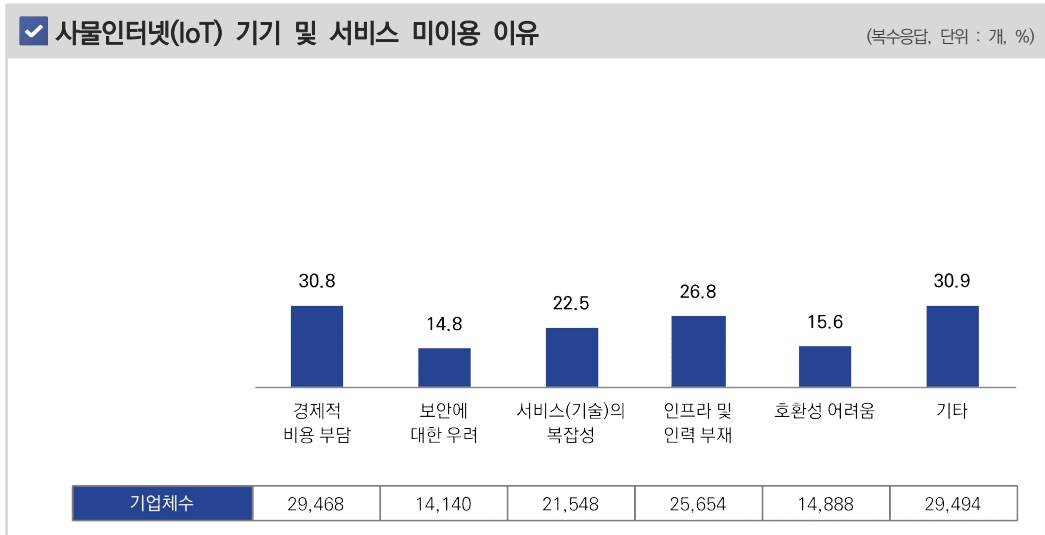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1.4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(복수응답)

-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미이용 기업체의 미이용 이유로는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이 30.8%로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는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(26.8%), ‘서비스·기술의 복잡성’(22.5%) 등이 높게 나타남
- 기타 응답으로는 ‘이용 필요성 부재’가 높게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미이용 기업체
 ※ 주 : 1)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별 복수응답 수치임
 2) 전년 대비 보기 항목이 변경되어 시계열 비교 없음

[업종별]
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은 정보통신업(61.4%), 부동산업(40.6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38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는 운수 및 창고업(40.5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39.1%)에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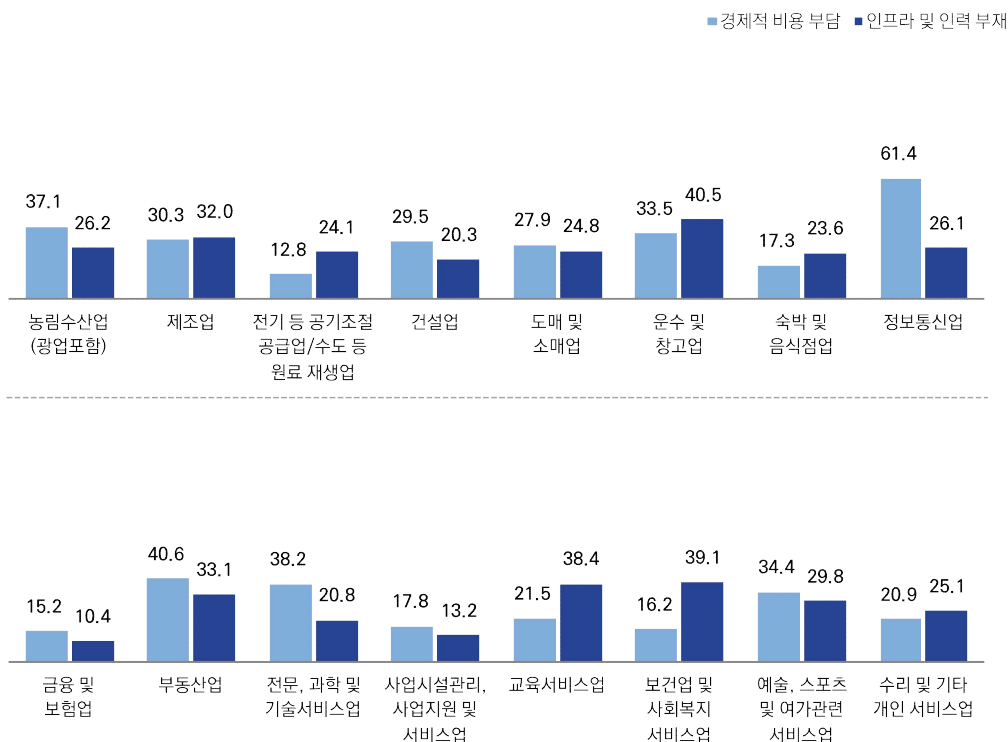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은 250명 이상 기업체에서 38.2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는 종사자 규모별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

[조직 형태별]
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은 회사법인이 32.1%로 개인사업체(23.7%)보다 높게 나타남
-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는 개인사업체가 30.1%로 회사법인(26.2%)보다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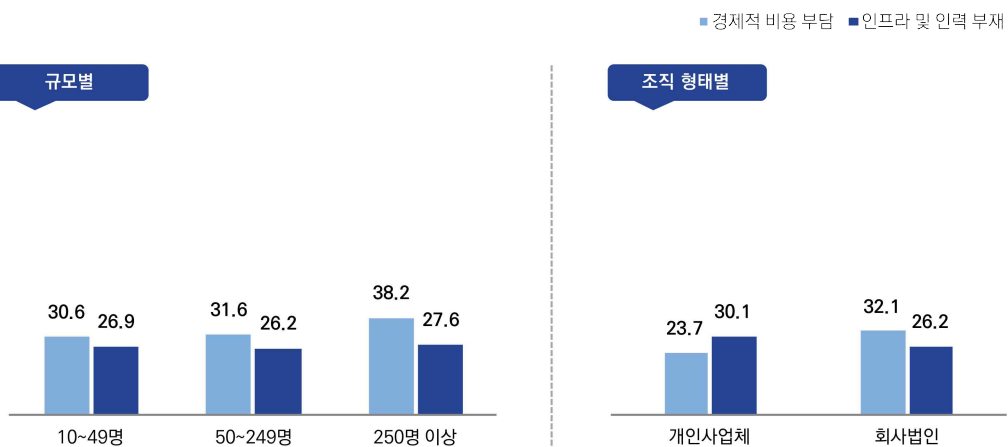
업종별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 사물인터넷(IoT) 기기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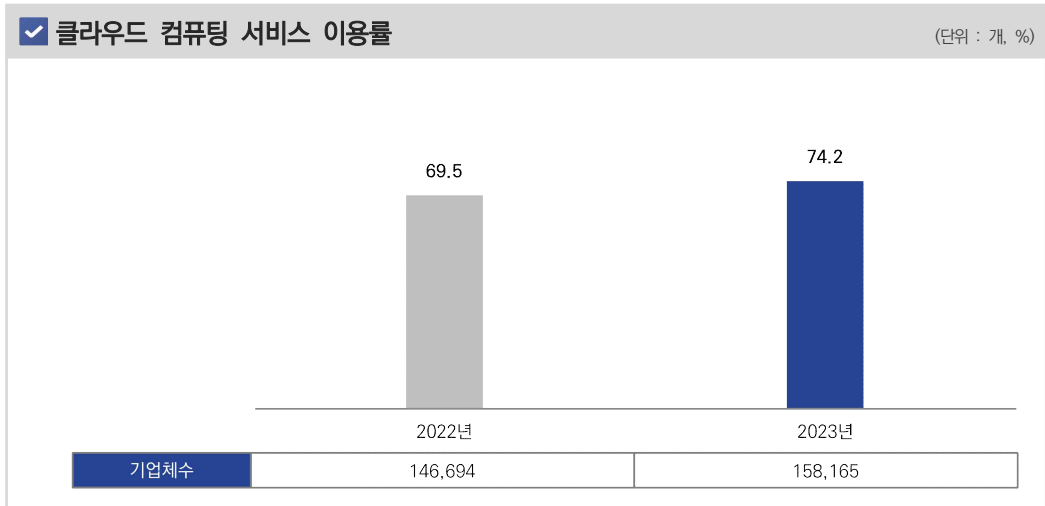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

2.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

-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률은 74.2% 수준으로 조사됨
- 전년 대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률은 4.7%p 증가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교육서비스업(85.0%), 금융 및 보험업(84.3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83.8%)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반면, 부동산업(48.4%), 숙박 및 음식점업(53.6%) 등은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
-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에서 83.0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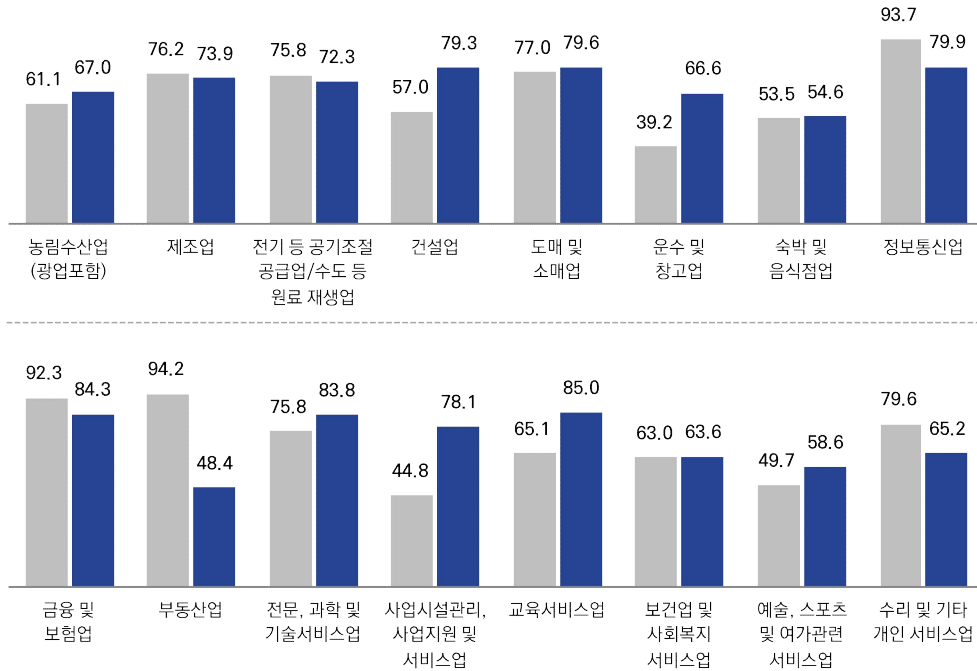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이 77.3%로 개인사업체(63.0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✓ 업종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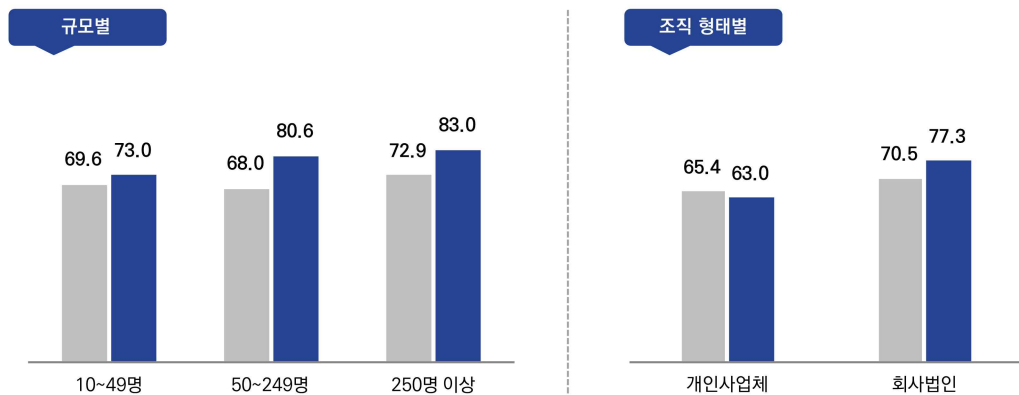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률
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1. 정보화 기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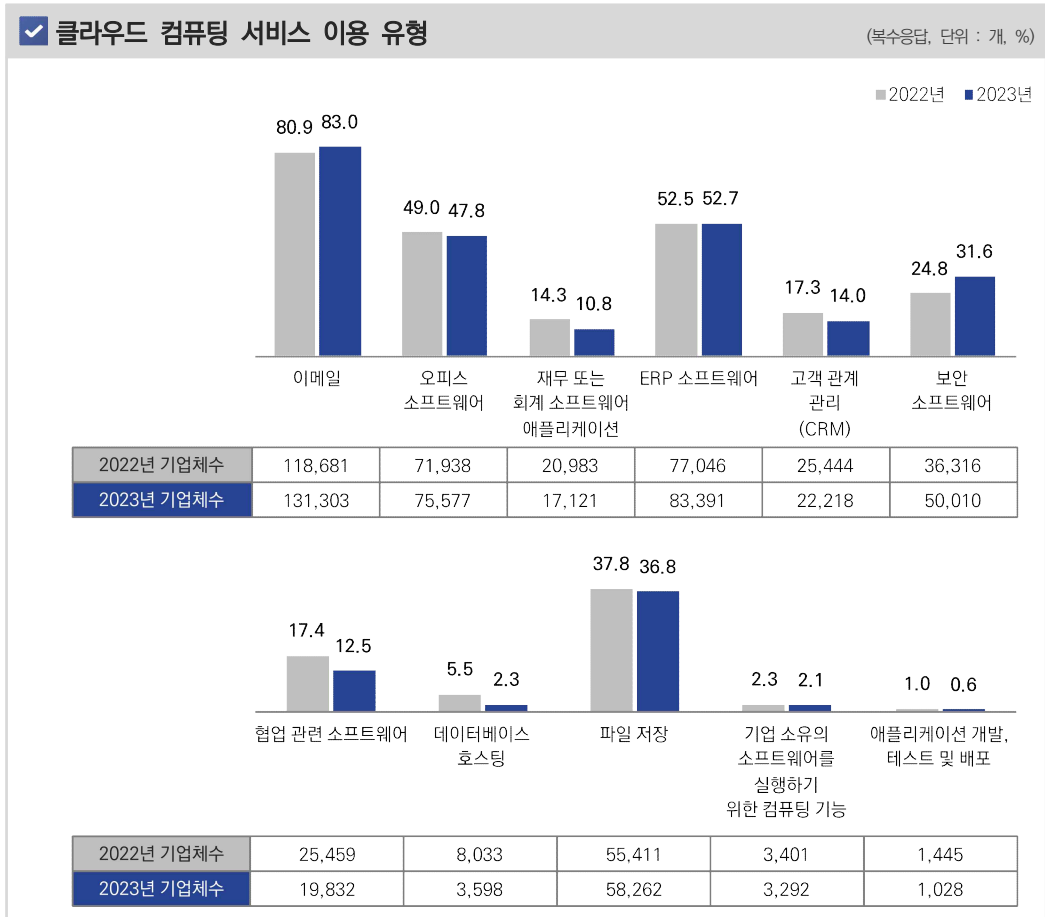
2. 정보화 응용

3. 지능정보기술 활용

4. 정보화 투자 및 효과

2.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유형(복수응답)

-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'이메일'(83.0%)로 조사됨. 다음으로 'ERP 소프트웨어'(52.7%), '오피스 소프트웨어'(47.8%), '파일 저장'(36.8%), '보안 소프트웨어'(31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유형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'이메일'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92.7%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(90.3%), 건설업(90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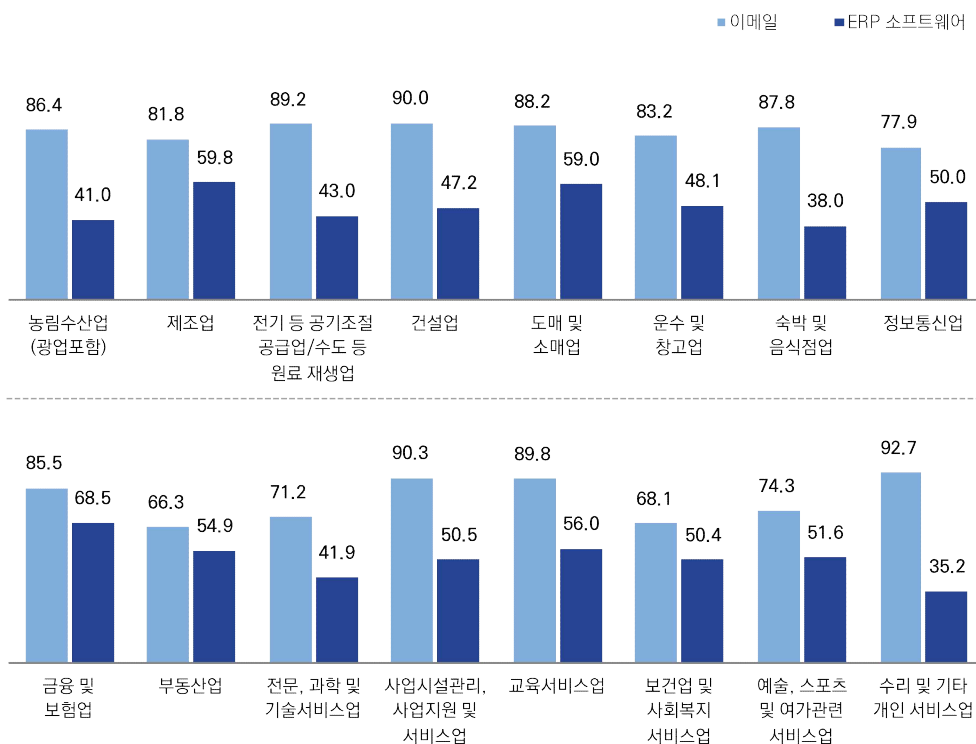
- '이메일'은 규모가 작을수록, 'ERP 소프트웨어'는 규모가 클수록 더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'이메일'과 'ERP 소프트웨어' 모두 회사법인(각각 83.8%, 55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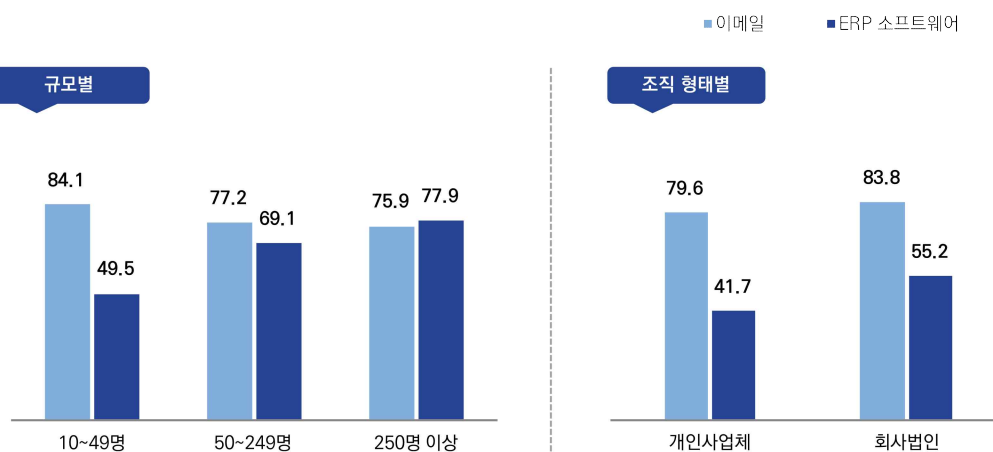
업종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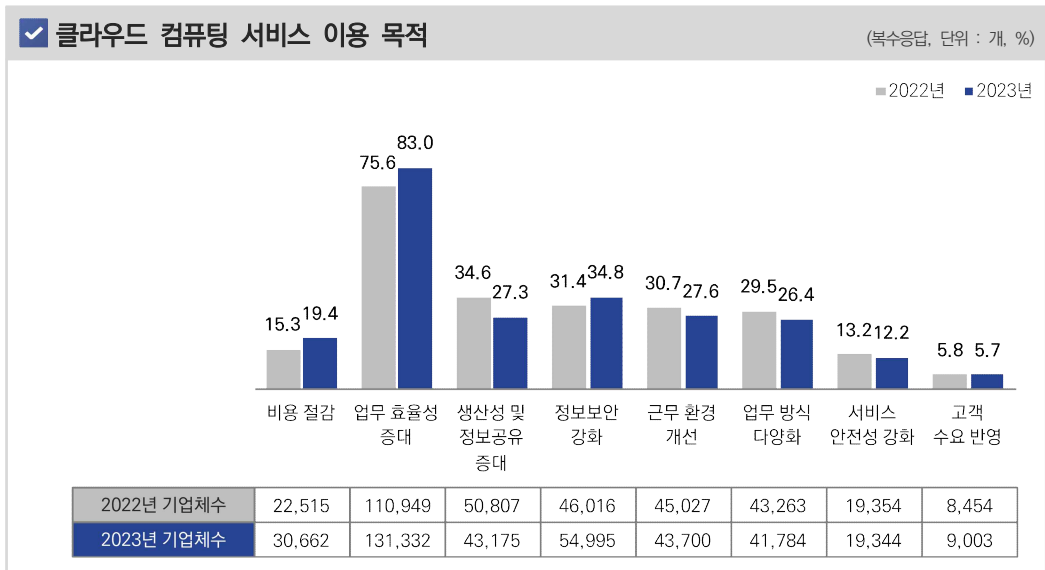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2.3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목적(복수응답)

-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업체의 이용 목적으로는 '업무 효율성 증대'가 83.0%로 가장 높으며, 다음으로 '정보보안 강화'(34.8%), '근무 환경 개선'(27.6%), '생산성 및 정보공유 증대'(27.3%), '업무 방식 다양화'(26.4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목적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'업무 효율성 증대'는 정보통신업(90.5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89.9%)에서 높게 나타남
- '정보보안 강화'는 금융 및 보험업(42.7%), 제조업(42.0%), 도매 및 소매업(41.7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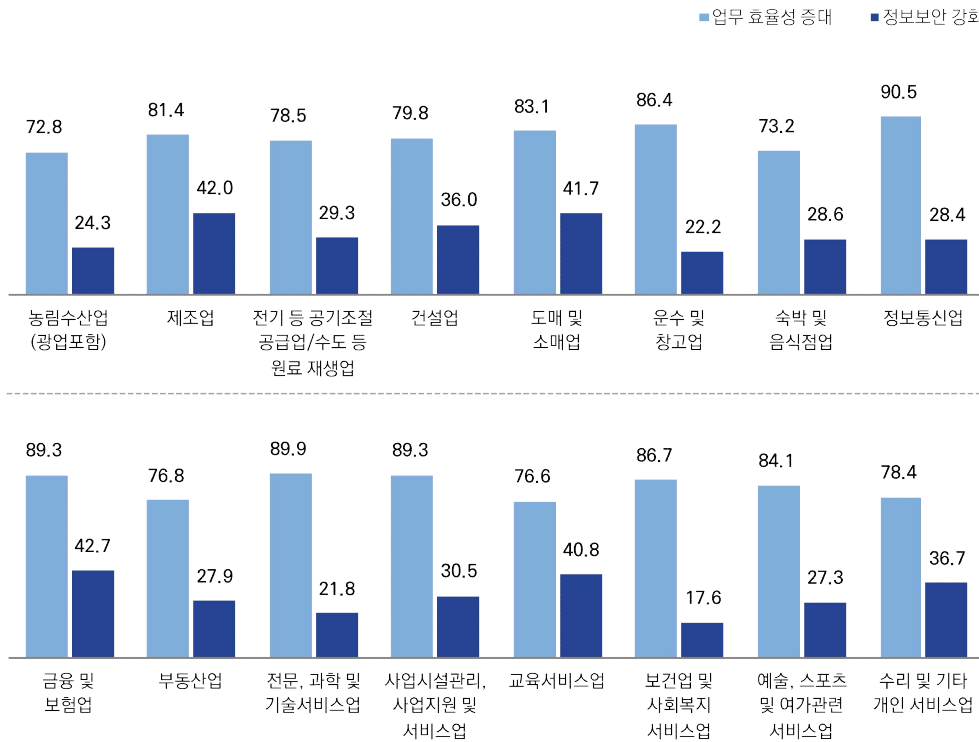
- '업무 효율성 증대'와 '정보보안 강화' 모두 종사자수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(각각 86.0%, 41.9%))에서 타 규모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'업무 효율성 증대'와 '정보보안 강화' 모두 회사법인(각각 83.5%, 37.0%)에서 개인사업체(각각 81.0%, 24.8%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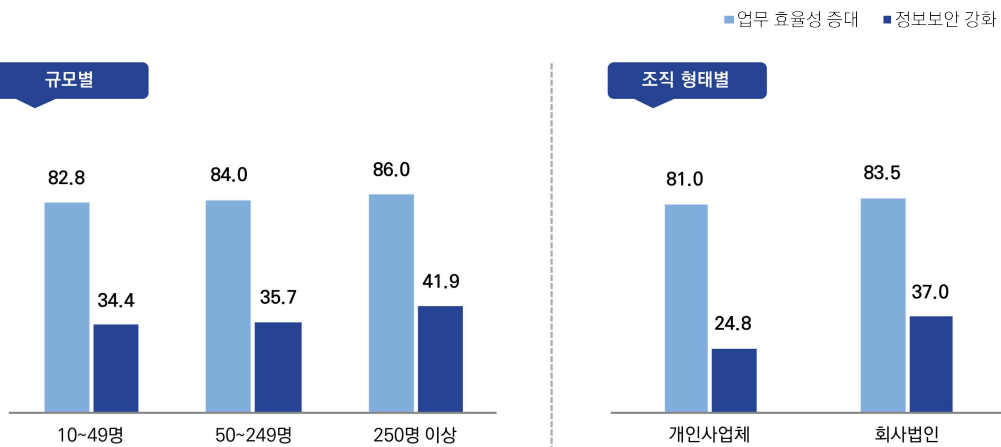
업종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1. 정보화 기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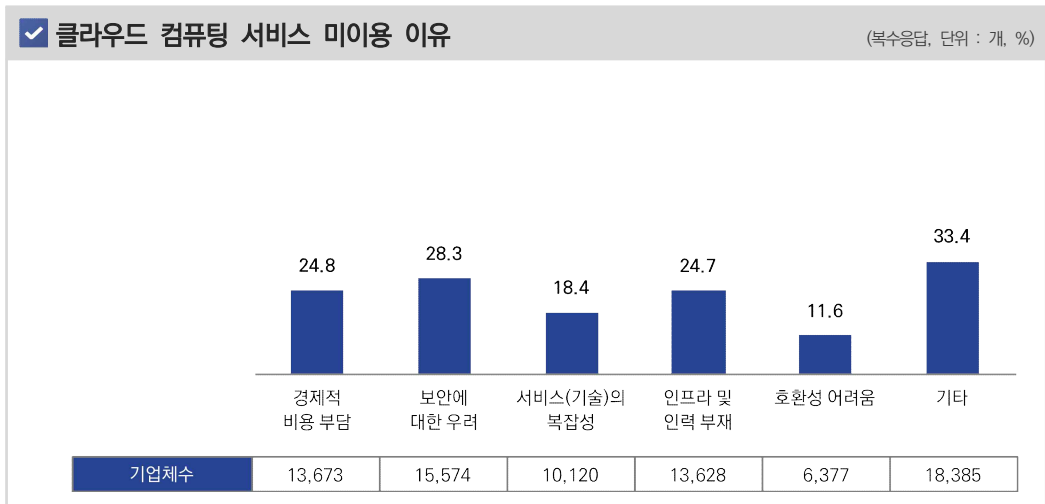
2. 정보화 응용

3. 지능정보기술 활용

4. 정보화 투자 및 효과

2.4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미이용 이유(복수응답)

-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미이용 기업체의 미이용 이유로 '보안에 대한 우려'(28.3%)가 가장 높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'경제적 비용 부담'(24.8%), '인프라 및 인력 부재'(24.7%) 등의 이유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
- 기타 응답으로는 '이용 필요성 부재'가 높게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미이용 기업체
 ※ 주 : 1)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미이용 이유별 복수응답 수치임
 2) 전년 대비 보기 항목이 변경되어 시계열 비교 없음

[업종별]

- '경제적 비용 부담'은 정보통신업(38.5%), 건설업(37.7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35.2%)에서 높게 나타남
- '보안에 대한 우려'는 정보통신업(70.1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60.4%)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38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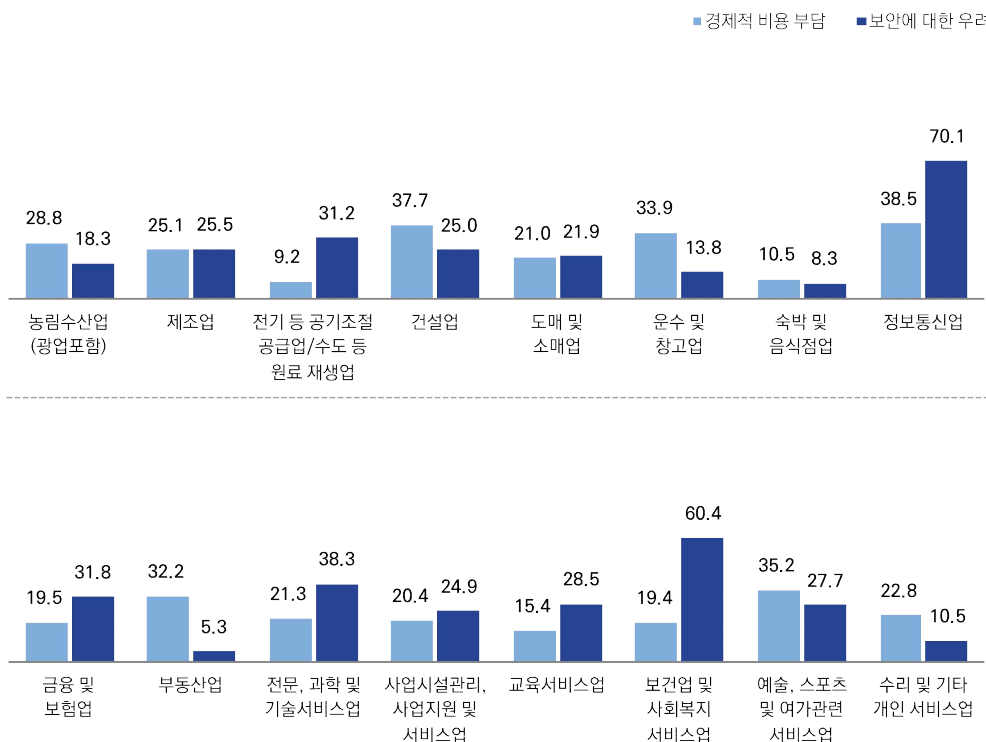
- '보안에 대한 우려'는 250명 이상 기업체에서 41.6%로 타 규모에 비해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'경제적 비용 부담'은 개인사업체(16.6%)보다 회사법인(28.5%)에서 높게 나타남
- '보안에 대한 우려'는 회사법인(27.8%)보다 개인사업체(29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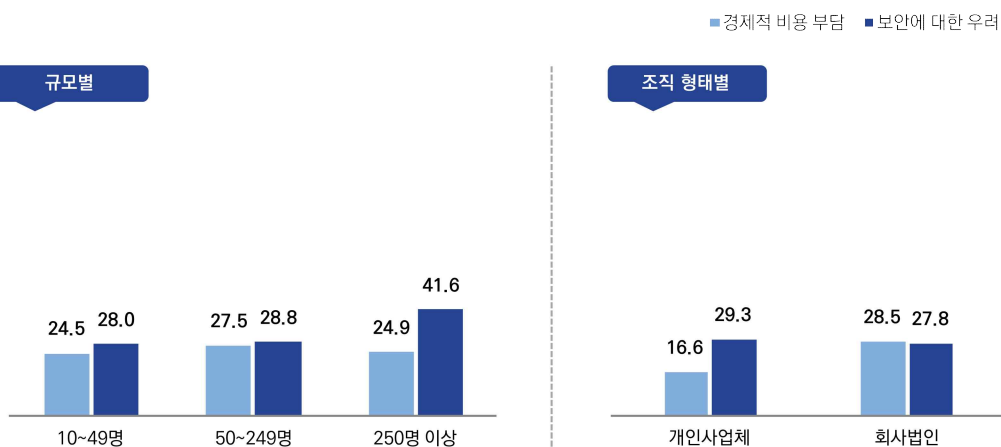
업종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미이용 이유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미이용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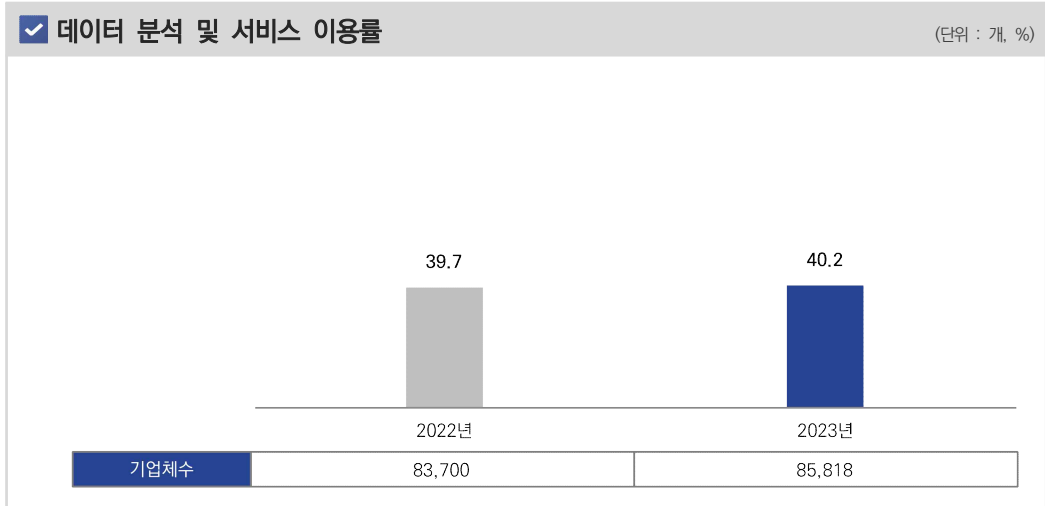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3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

3.1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

-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률은 40.2%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교육서비스업(62.1%), 금융 및 보험업(55.9%), 건설업(55.3%) 등의 순으로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23.8%), 부동산업(25.9%)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250명 이상 규모에서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률이 67.2%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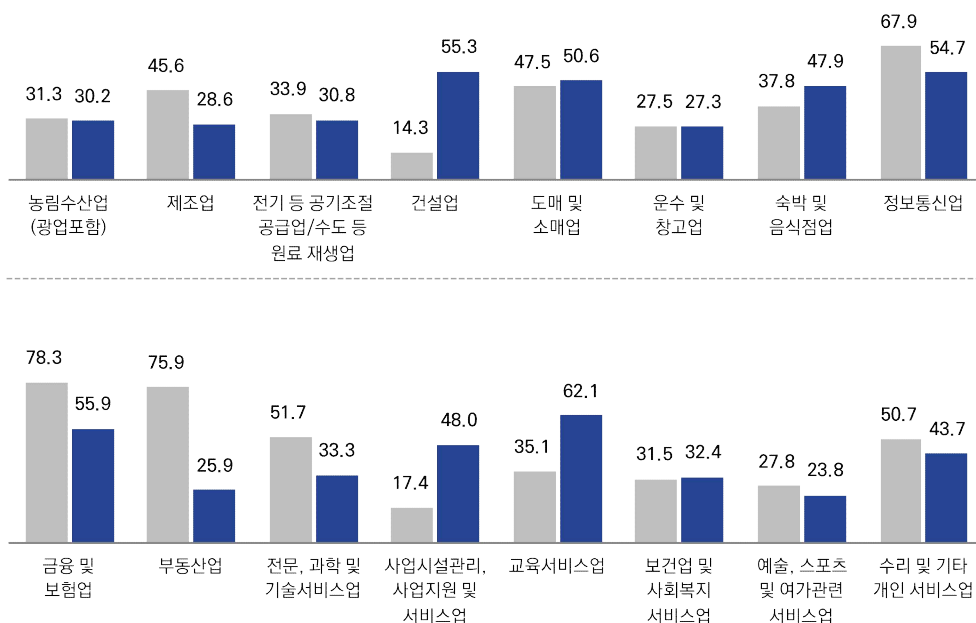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이 42.1%로 개인사업체(33.5%)에 비해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

✓ 업종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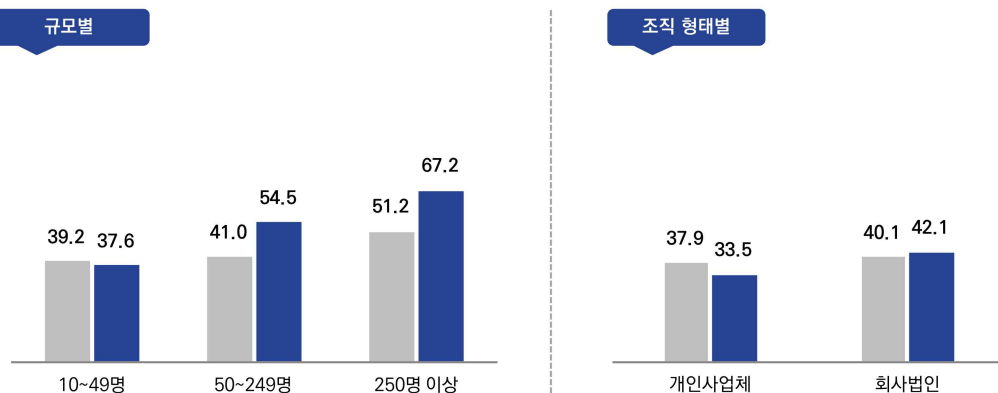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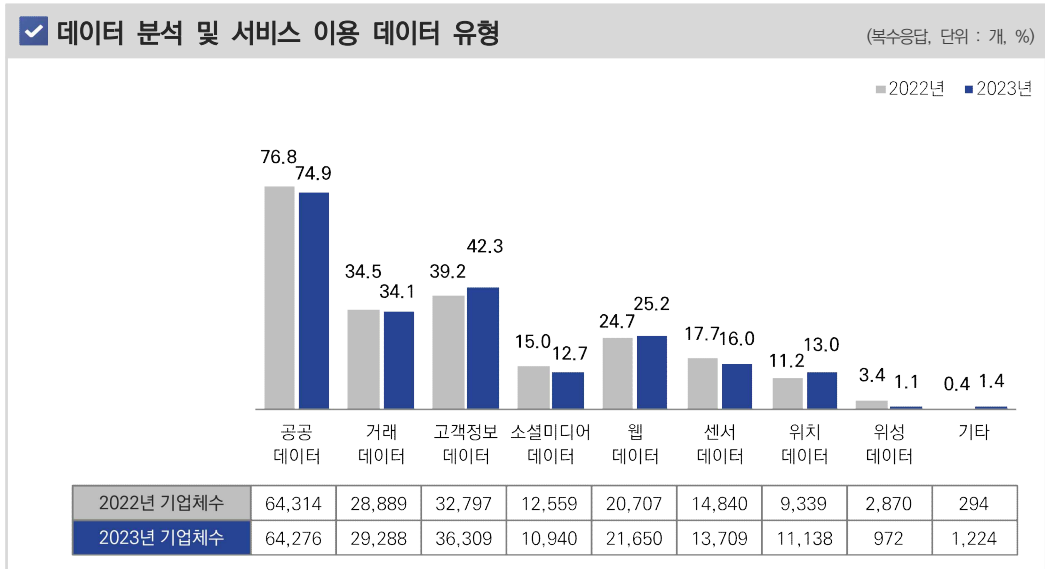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3.2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데이터 유형(복수응답)

-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 유형으로 ‘공공데이터’가 74.9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이어서 ‘고객정보 데이터’(42.3%), ‘거래데이터’(34.1%), ‘웹데이터’(25.2%), ‘센서 데이터’(16.0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데이터 유형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‘공공데이터’는 건설업(88.7%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(83.5%)에서 높게 나타남
- ‘고객정보 데이터’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85.8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71.9%)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70.5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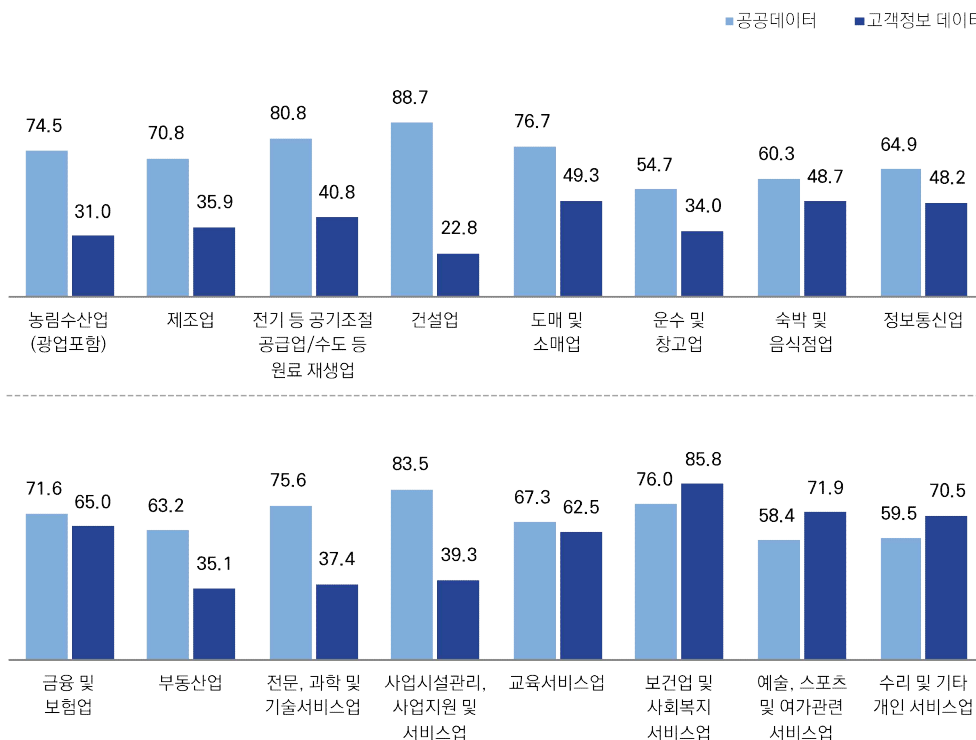
- ‘고객정보 데이터’는 종사자수 250명 이상 기업체(51.1%)에서 타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공공데이터’는 회사법인(75.9%)이 개인사업체(70.3%)보다 높게 나타남
- ‘고객정보 데이터’는 개인사업체(58.9%)에서 회사법인(38.7%)보다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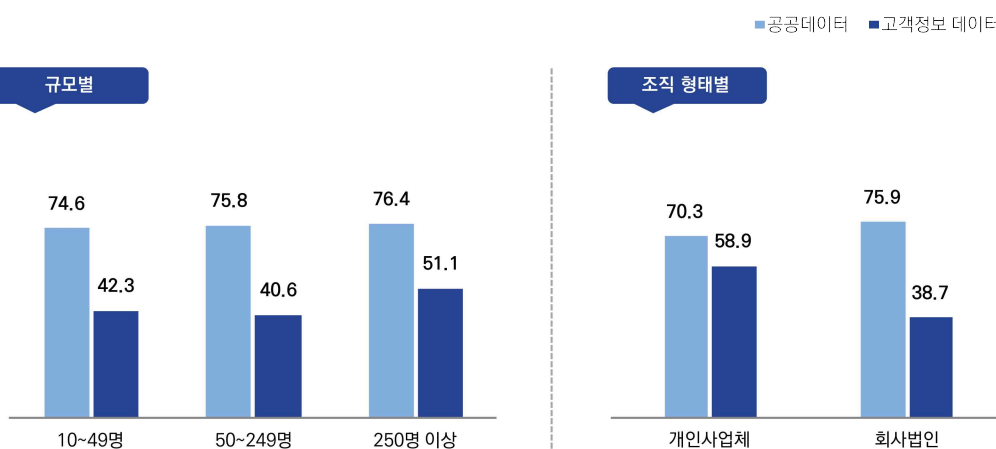
업종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데이터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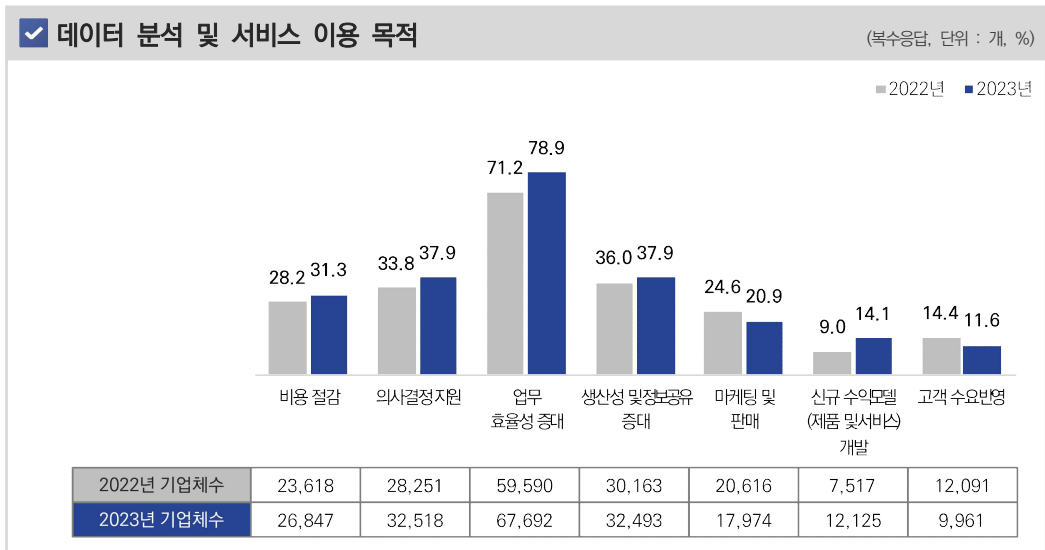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데이터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3.3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목적(복수응답)

-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의 이용 목적으로는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가 78.9%로 가장 높으며, 다음으로 ‘의사결정 지원’(37.9%), ‘생산성 및 정보공유 증대’(37.9%), ‘비용 절감’(31.3%), ‘마케팅 및 판매’(20.9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목적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‘의사결정 지원’은 건설업(46.2%), 도매 및 소매업(44.4%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(40.6%)에서 높게 나타남
-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는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90.7%), 교육서비스업(88.9%), 부동산업(88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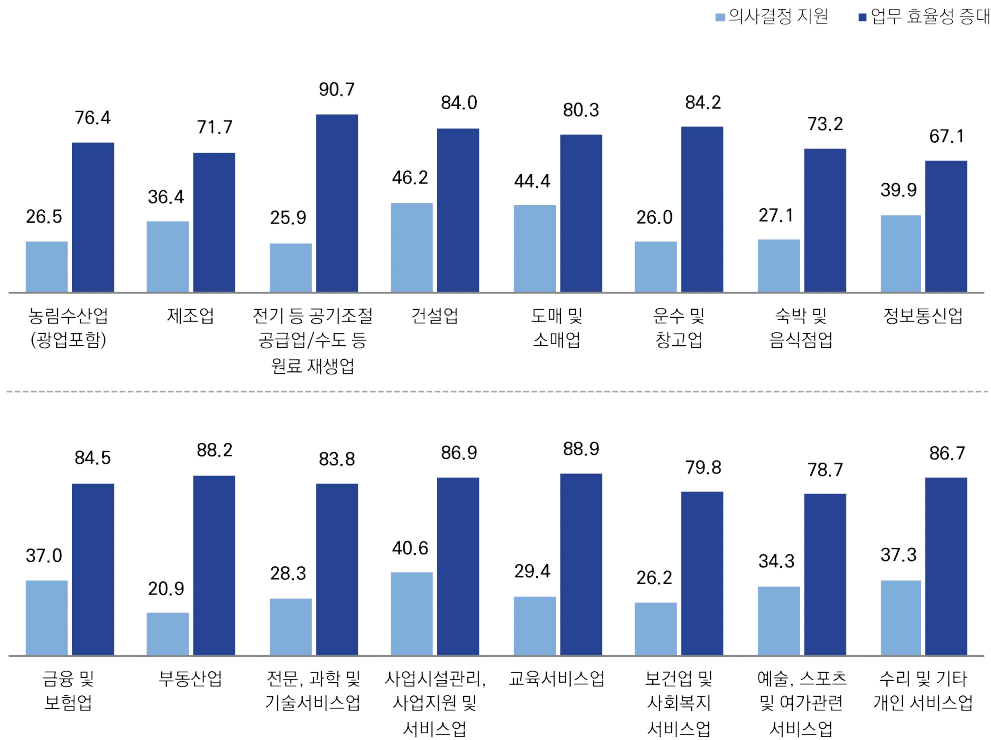
- ‘의사결정 지원’,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 모두 종사자 규모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(각각 40.1%, 84.6%)에서 타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의사결정 지원’과 ‘업무 효율성 증대’ 모두 회사법인(각각 39.3%, 79.3%)에서 개인사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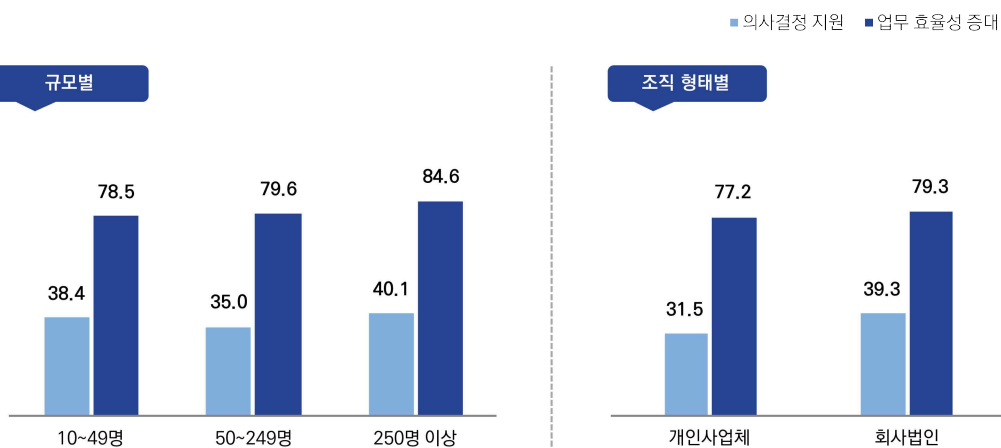
업종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1. 정보화 기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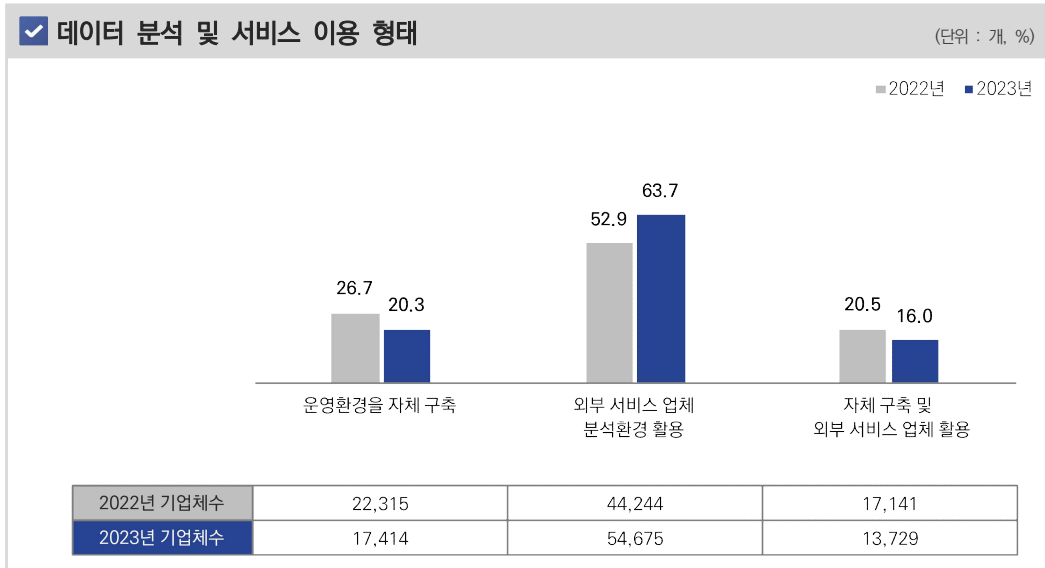
2. 정보화 응용

3. 지능정보기술 활용

4. 정보화 투자 및 효과

3.4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형태

-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의 이용 형태로는 '외부 서비스 업체 분석환경을 활용'한다는 기업이 63.7%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'운영환경을 자체 구축'(20.3%), '자체 구축 및 외부 서비스 업체 활용'(16.0%)의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
[업종별]

- '운영환경을 자체 구축'은 정보통신업(46.2%), 제조업(29.2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24.7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'외부 서비스 업체 분석환경 활용'은 숙박 및 음식점업(78.1%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(76.5%)에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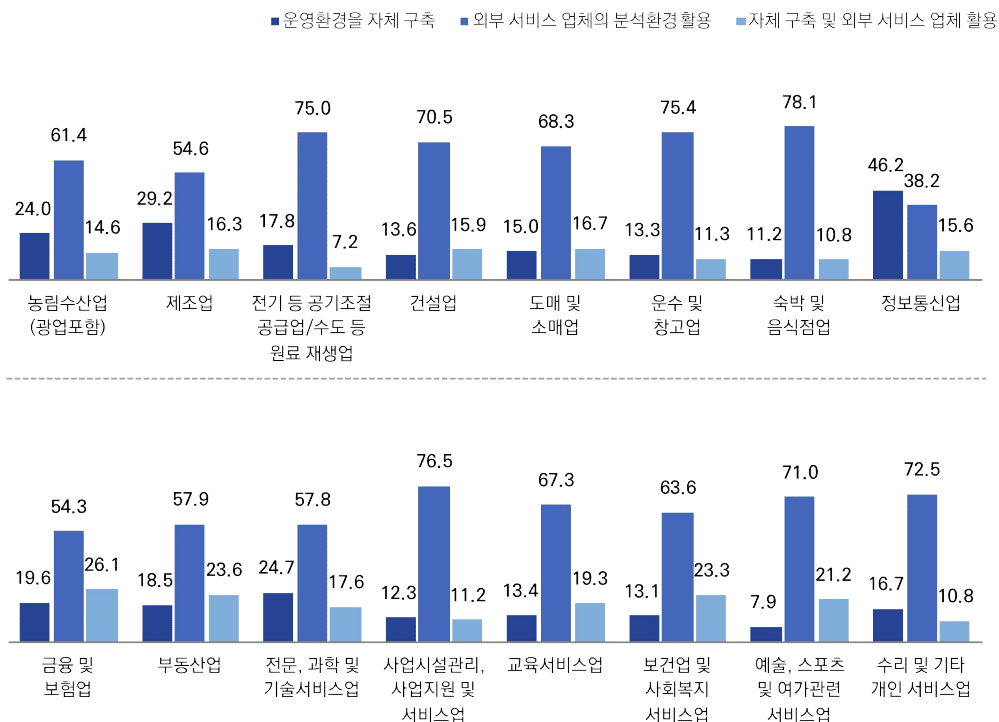
- '외부 서비스 업체 분석환경 활용'은 10~49명 규모 기업체(65.6%)에서 높게 나타남
- '운영환경을 자체 구축'과 '자체 구축 및 외부 서비스 업체 활용'은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(각각 22.6%, 27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'운영환경을 자체 구축'은 회사법인(21.6%)이 개인사업체(14.6%)보다 높게 나타남
- '외부 서비스 업체 분석환경 활용'은 개인사업체(67.4%)가 회사법인(62.9%)보다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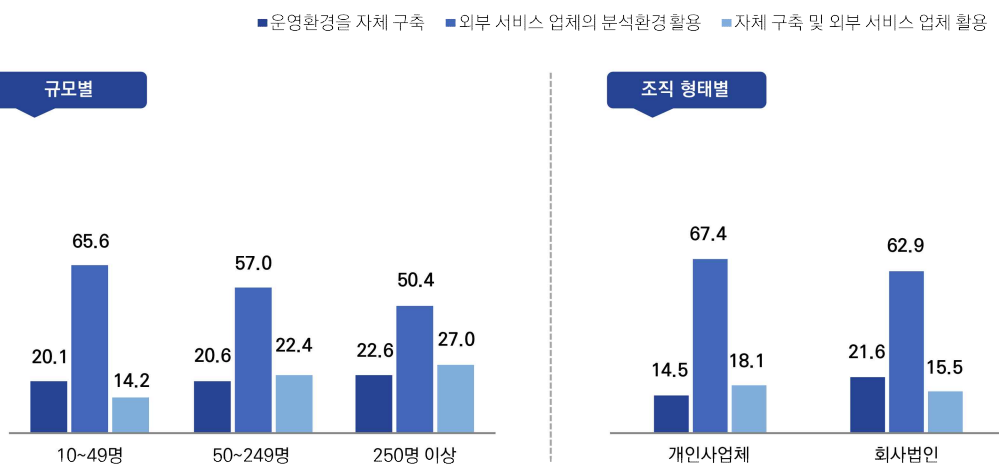
업종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형태

(단위 : 개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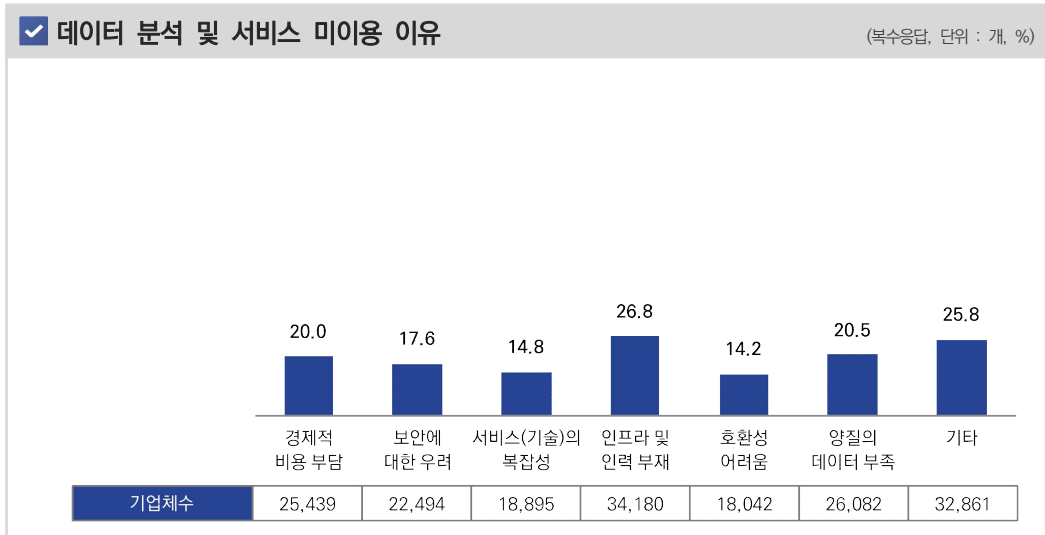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이용 형태

(단위 : 개, %)



3.5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(복수응답)

-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미이용 기업체의 미이용 이유로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(26.8%)가 가장 높았으며, 그 다음으로 ‘양질의 데이터 부족’(20.5%),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(20.0%), ‘보안에 대한 우려’(17.6%)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기타 응답으로는 ‘이용 필요성 부재’가 높게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미이용 기업체
 ※ 주 : 1)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별 복수응답 수치임
 2) 전년 대비 보기 항목이 변경되어 시계열 비교 없음

[업종별]
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은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32.8%), 농림수산업(30.7%), 정보통신업(29.8%)에서 높게 나타남
-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는 교육서비스업(42.5%), 숙박 및 음식점업(31.1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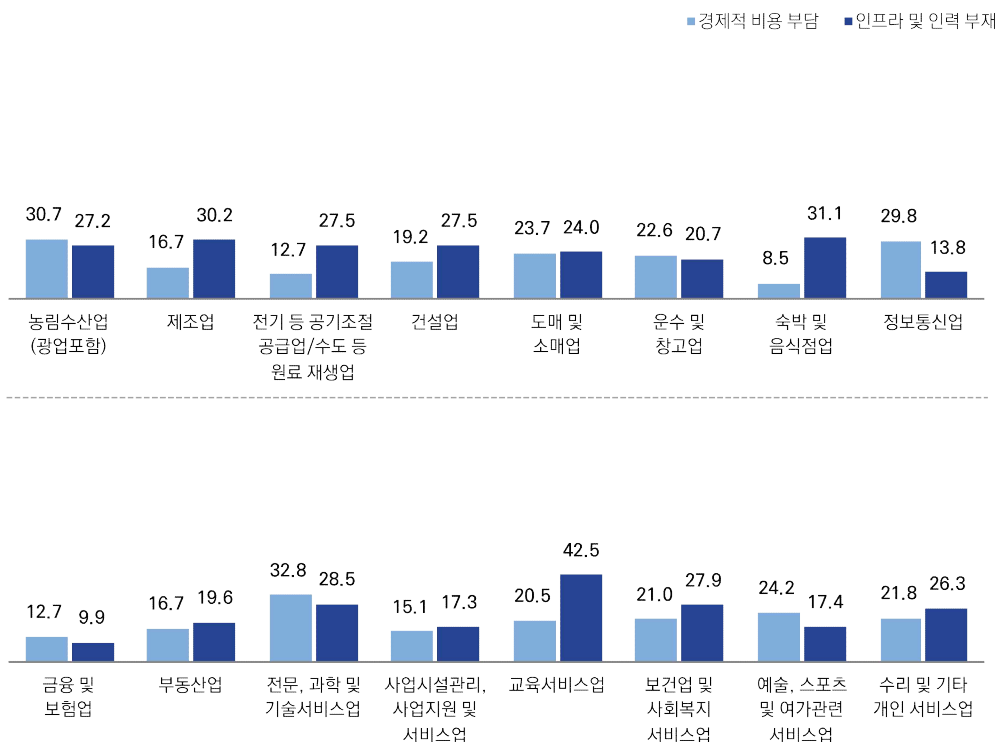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은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에서 23.8%로 높게 나타남
-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는 10~49명 기업체(27.8%)에서 타 규모 대비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과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 모두 회사법인에서 각각 21.3%, 27.1%로 개인사업체보다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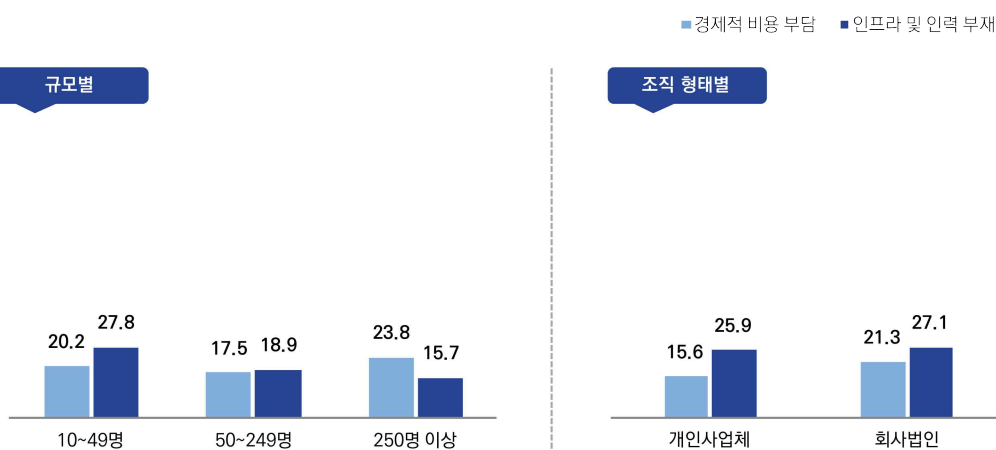
업종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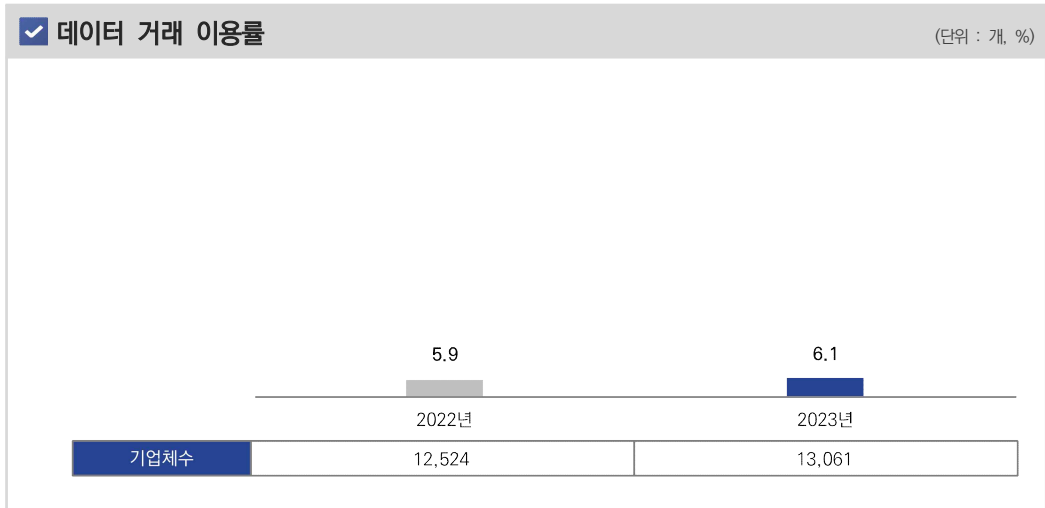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4 데이터 거래

4.1 데이터 거래 여부

- 데이터를 구매 또는 판매한 경험이 있는 기업체는 6.1%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금융 및 보험업(16.4%), 건설업(11.3%), 정보통신업(11.1%) 등의 순으로 데이터 거래 이용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2.0%), 부동산업(2.5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2.8%)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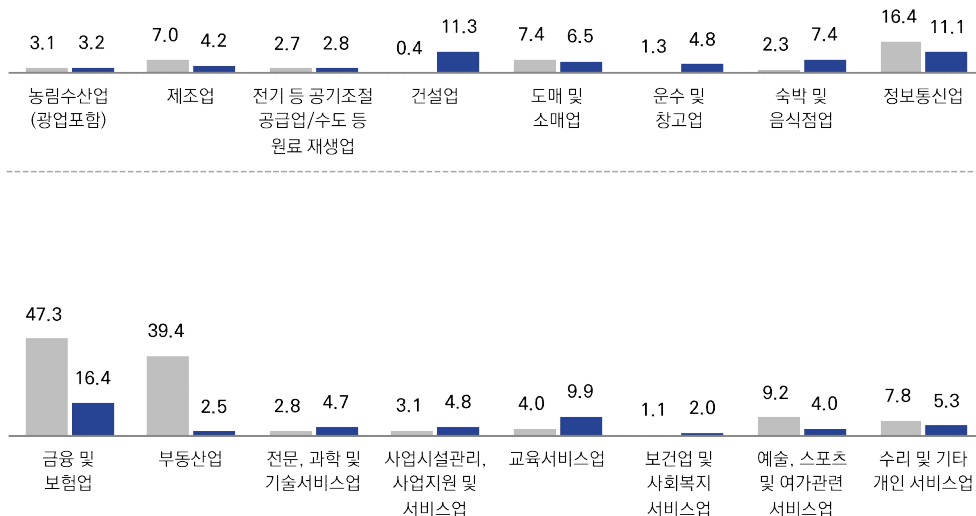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데이터 거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
- 250명 이상인 기업체에서 데이터 거래 이용률이 13.8%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이 6.8%로 개인사업체(3.6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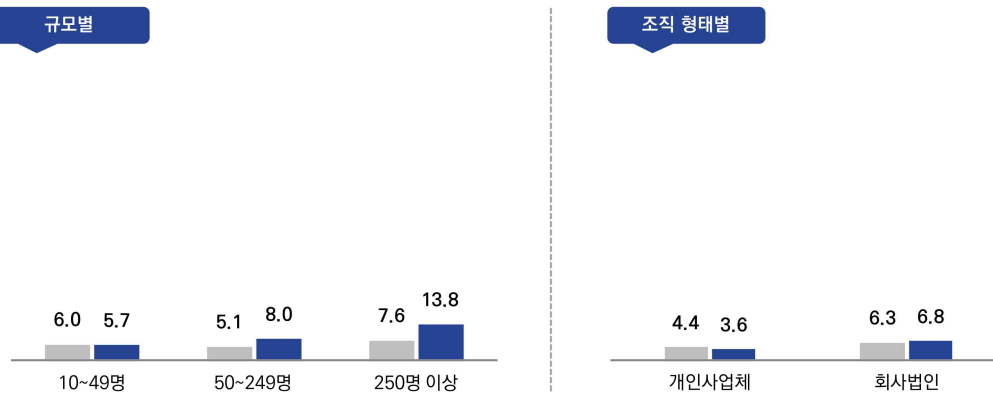
업종별_데이터 거래 이용률
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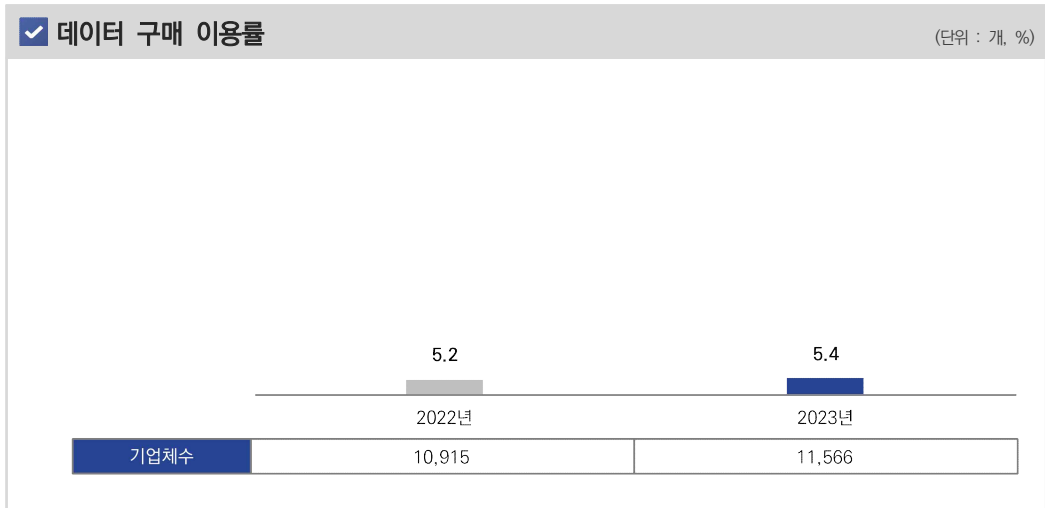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거래 이용률
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4.2 데이터 구매 여부

- 데이터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기업체는 5.4%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금융 및 보험업(13.9%), 건설업(11.1%), 교육서비스업(9.9%) 등의 순으로 데이터 구매 이용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1.5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2.3%), 부동산업(2.4%)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데이터 구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
- 250명 이상인 기업체에서 데이터 구매 이용률이 12.5%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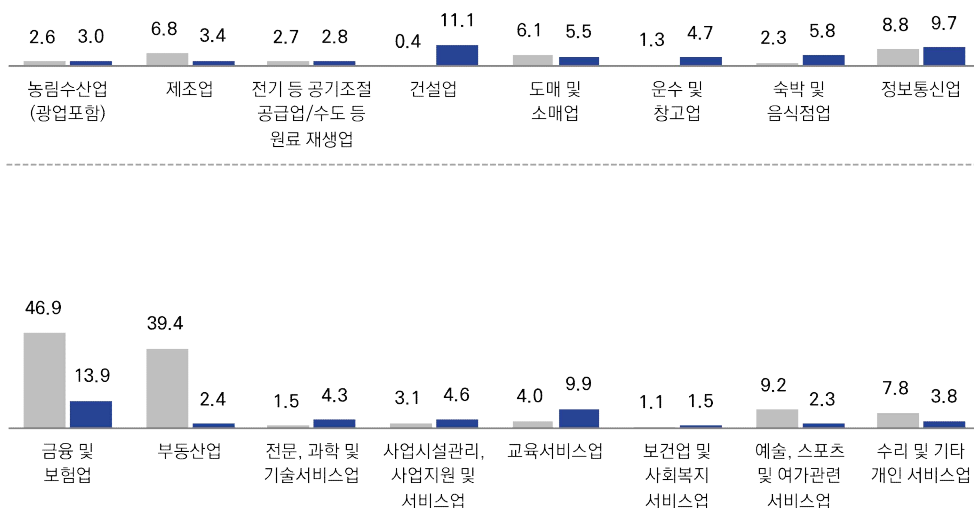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이 6.1%로 개인사업체(3.0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업종별_데이터 구매 이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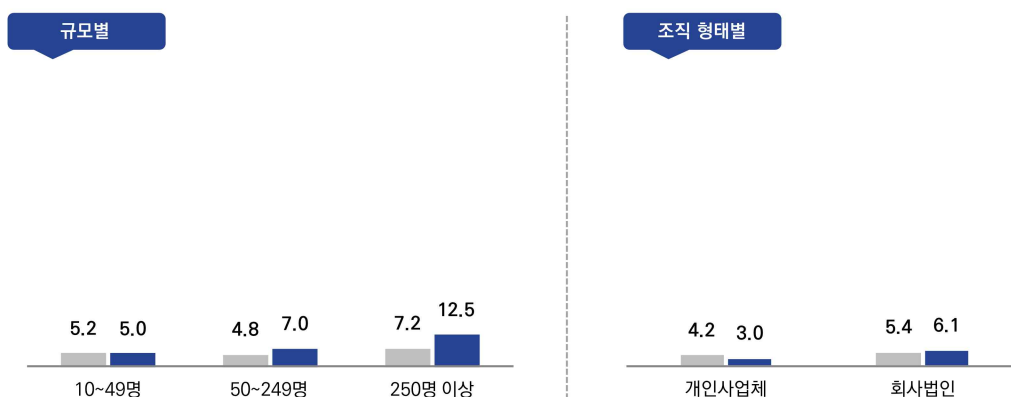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구매 이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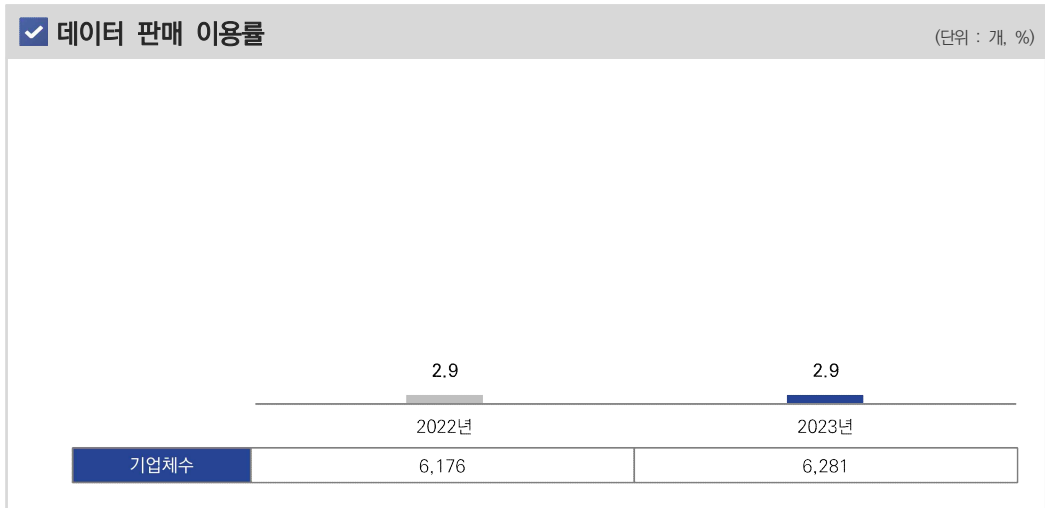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4.3 데이터 판매 여부

- 데이터를 판매한 경험이 있는 기업체는 2.9%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금융 및 보험업(15.2%), 정보통신업(5.6%), 건설업(4.4%) 등의 순으로 데이터 판매 이용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0.8%), 부동산업(0.8%)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1.7%)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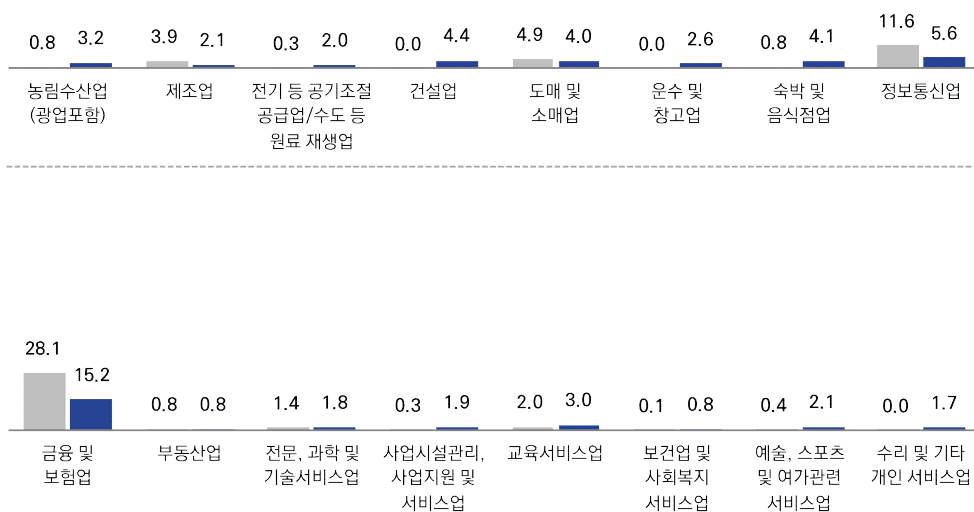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데이터 판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
- 250명 이상인 기업체에서 데이터 판매 이용률이 13.4%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이 3.4%로 개인사업체(1.3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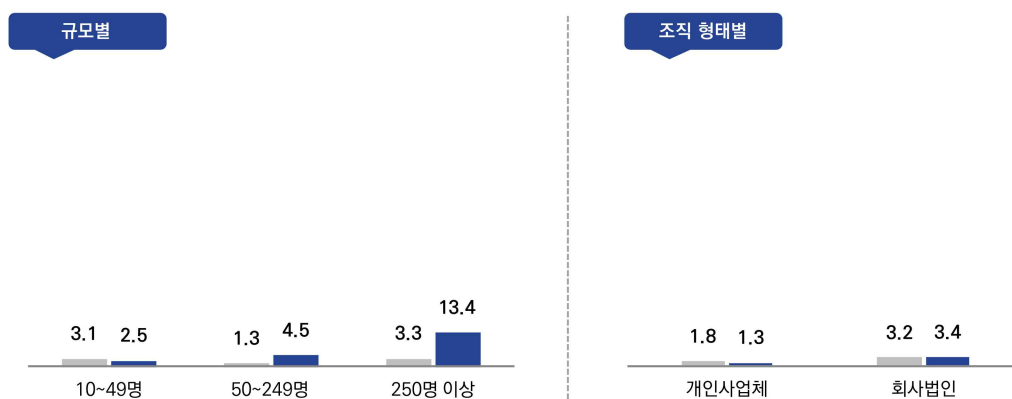
업종별_데이터 판매 이용률
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데이터 판매 이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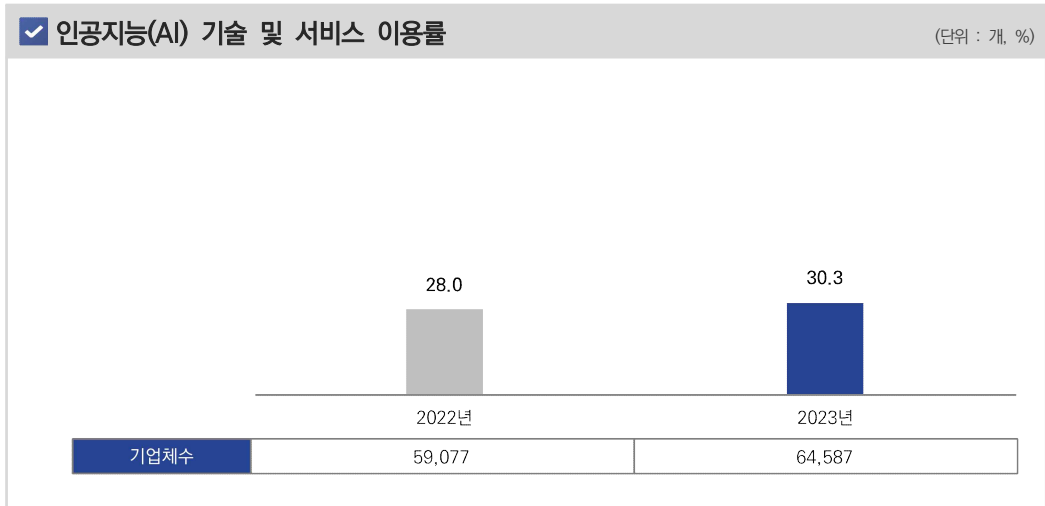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5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

5.1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

-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은 30.3%로 나타남
- 전년 대비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은 2.3%p 증가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금융 및 보험업(52.4%), 정보통신업(49.5%), 교육서비스업(48.7%)에서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운수 및 창고업(16.6%), 농림수산업(19.2%), 부동산업(19.3%)에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
- 종사자 규모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에서 63.3%로 타 규모 대비 가장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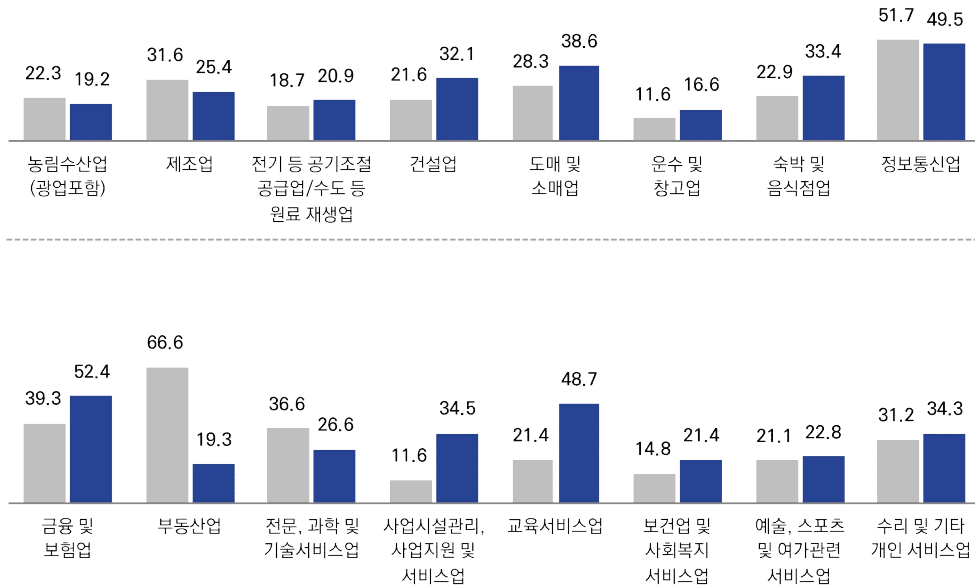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의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이 32.3%로 개인사업체(23.0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

업종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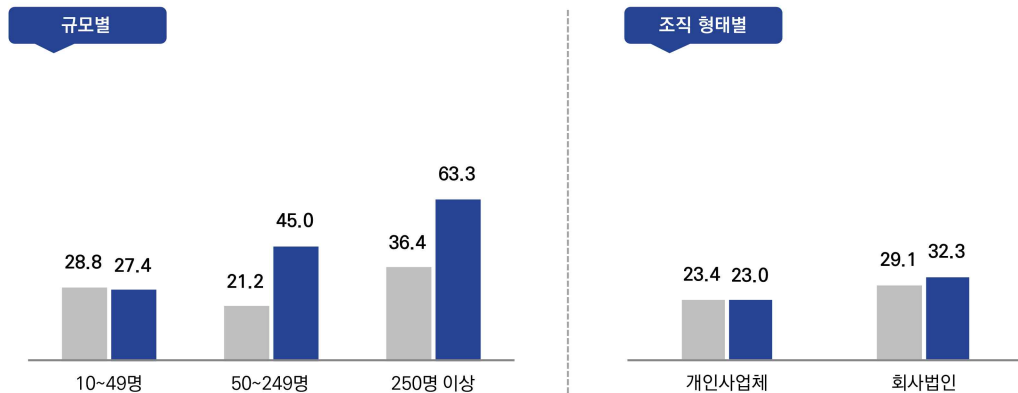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률
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1. 정보화 기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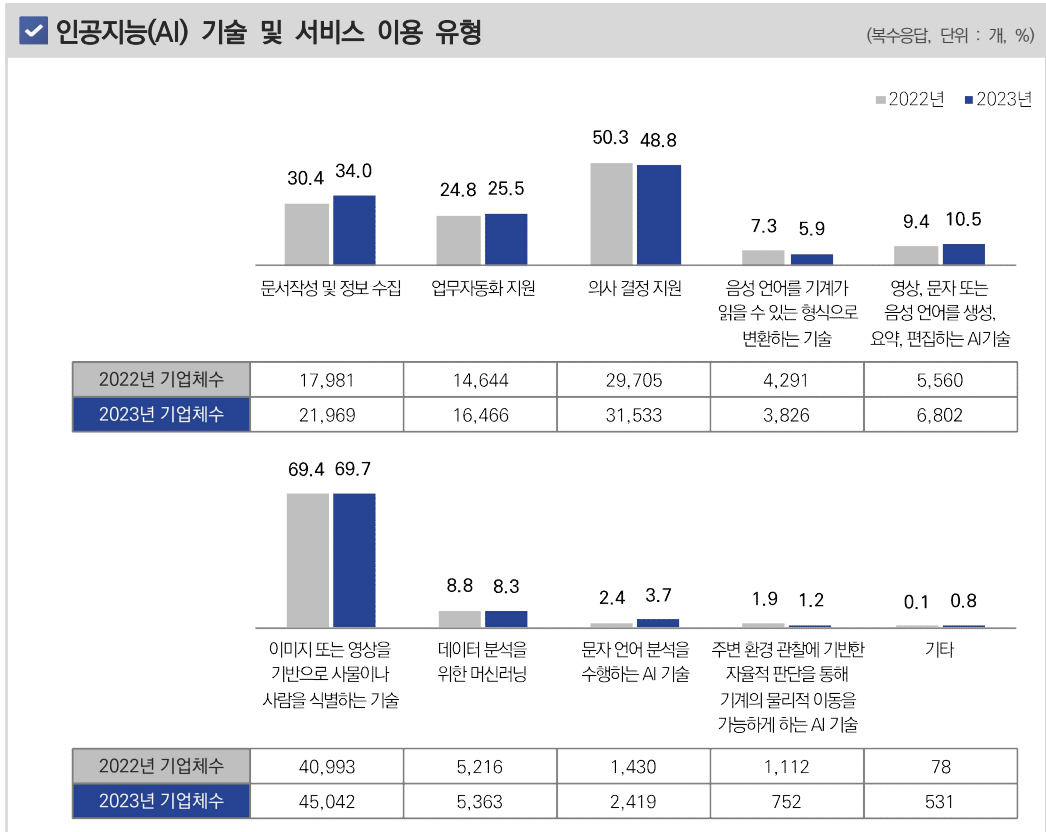
2. 정보화 응용

3. 지능정보기술 활용

4. 정보화 투자 및 효과

5.2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유형(복수응답)

-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하는 기업체의 이용 유형을 보면, ‘이미지 인식, 이미지 처리 등’ 분야가 69.7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다음으로 ‘의사 결정 지원’(48.8%), ‘문서작성 및 정보 수집’(34.0%), ‘업무자동화 지원’(25.5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유형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‘이미지 인식, 이미지 처리 등’ 분야는 숙박 및 음식점업(87.6%), 건설업(83.8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82.9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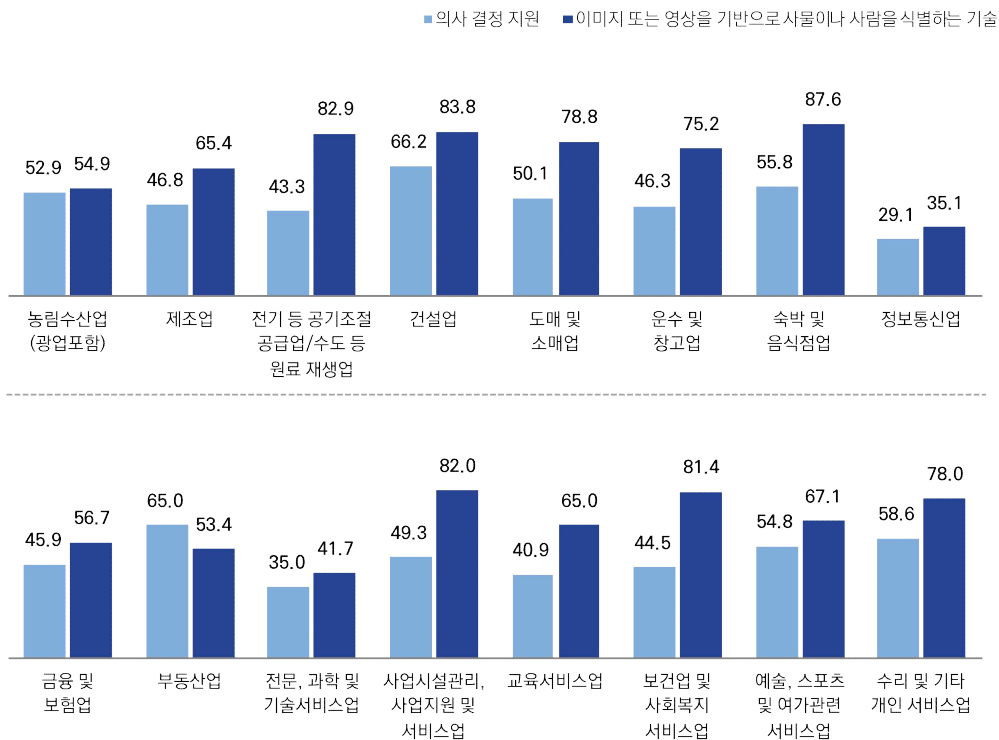
- ‘이미지 인식, 이미지 처리 등’ 분야는 종사자 규모 10~49명 규모 기업체(71.9%)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이미지 인식, 이미지 처리 등’ 분야는 개인사업체(79.8%), ‘의사 결정 지원’은 회사법인(49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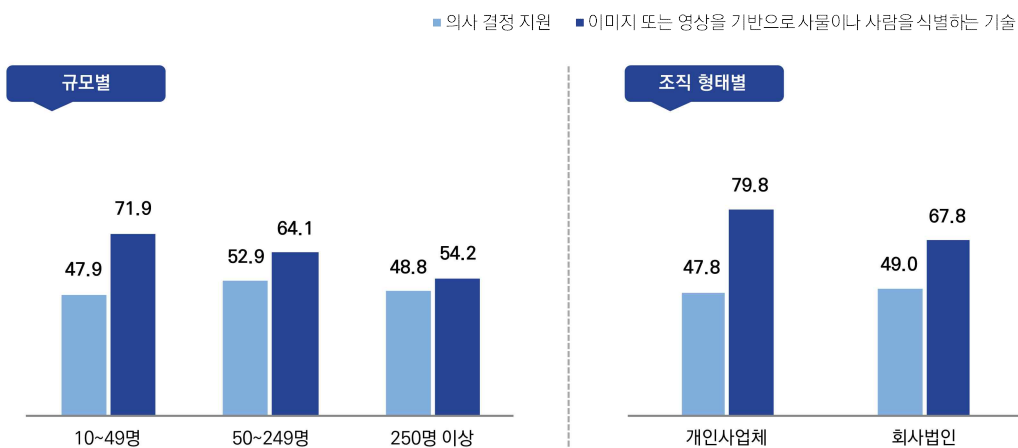
✓ 업종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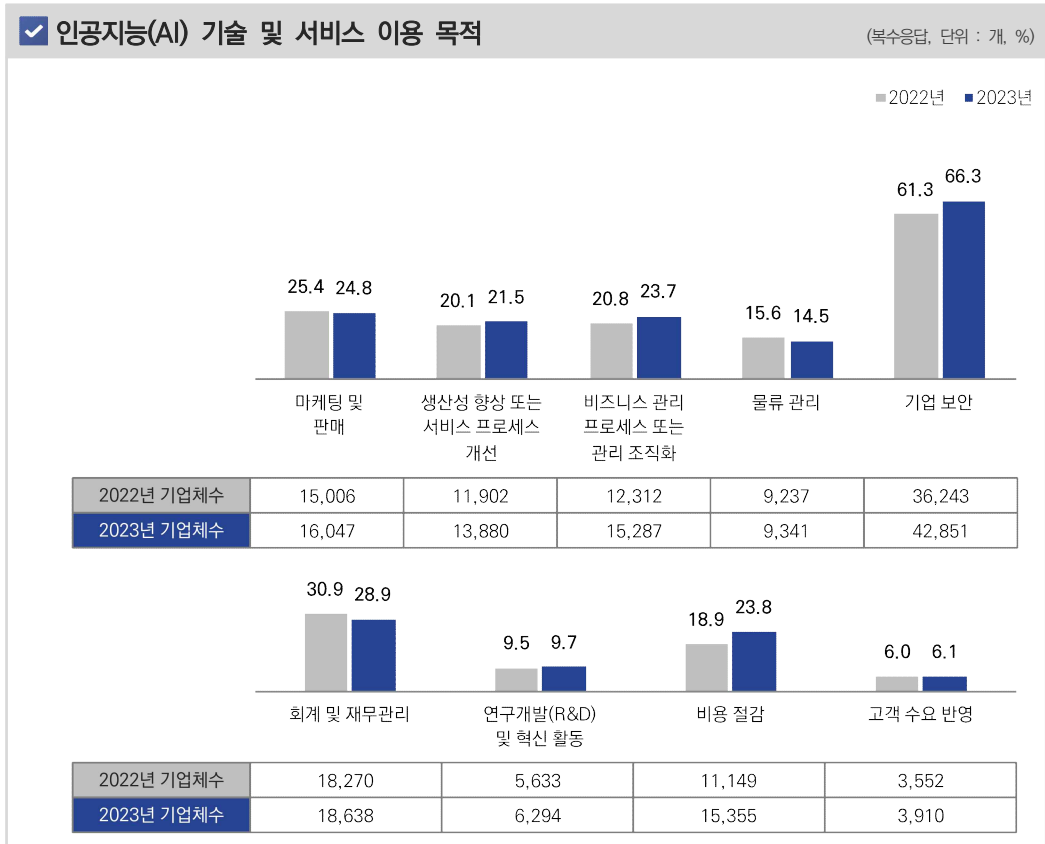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5.3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목적(복수응답)

-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는 ‘기업 보안’ 분야가 66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 ‘회계 및 재무관리’(28.9%), ‘마케팅 및 판매’(24.8%), ‘비즈니스 관리 프로세스 또는 관리 조직화’(23.7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목적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‘기업 보안’은 부동산업(86.5%)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86.3%), 건설업(81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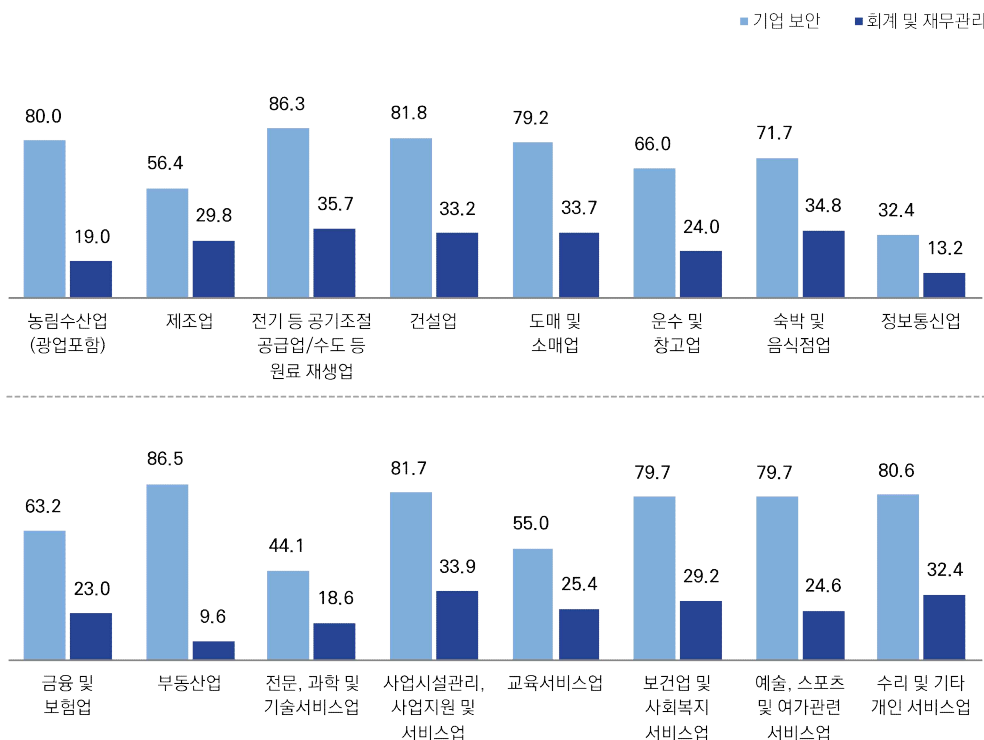
- ‘기업 보안’은 종사자수 10~49명 규모 기업체에서 68.8%로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기업 보안’과 ‘회계 및 재무관리’ 모두 개인사업체(각각 71.0%, 32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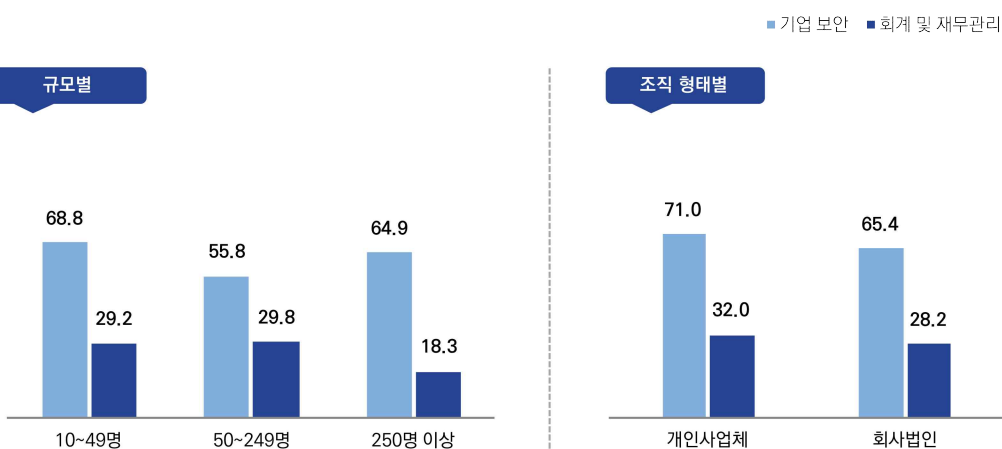
업종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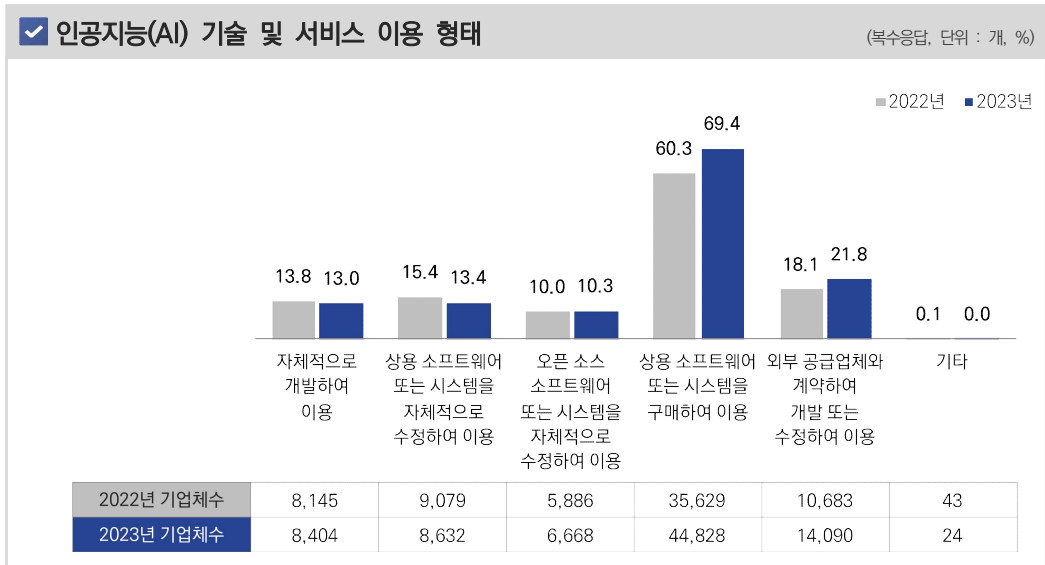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목적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5.4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형태(복수응답)

-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체의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형태로는 '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구매'가 69.4%로 가장 높게 나타남
다음으로 '외부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이용'(21.8%), '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이용'(13.4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기업체
 ※ 주 :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형태별 복수응답 수치임

[업종별]

- '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구매'는 건설업(83.1%)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82.1%)에서 높게 나타남
- '외부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이용'은 농림수산업(30.5%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(26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'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구매'는 종사자 규모 10~49명 규모 기업체(71.2%)에서 높게 나타남
- '외부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이용'은 종사자 규모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(27.9%)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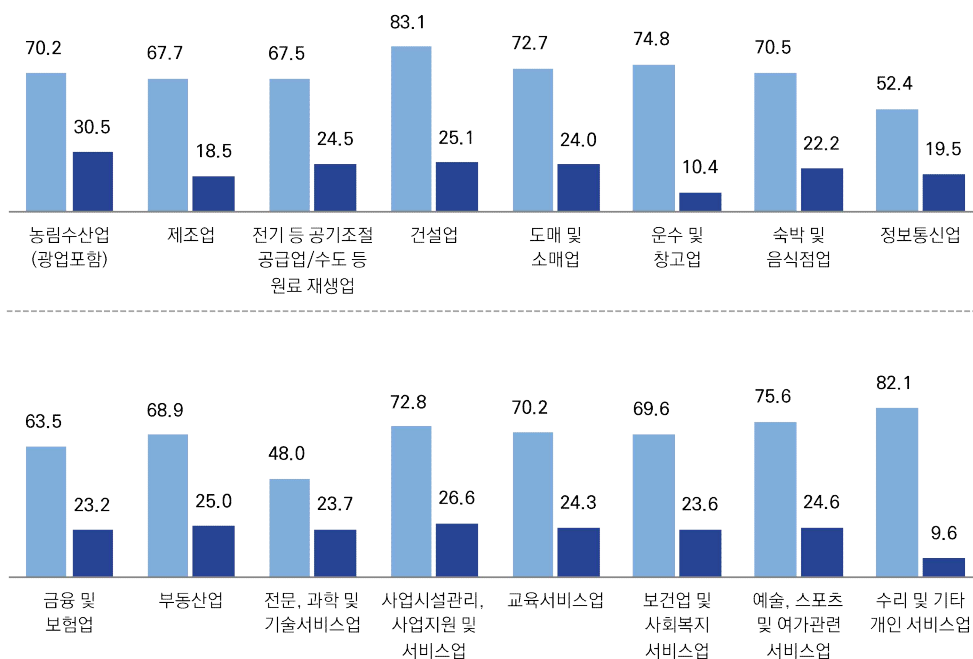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'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구매'는 개인사업체(70.2%)에서 회사법인(69.2%)보다 높게 나타남
- '외부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이용'은 회사법인(22.2%)에서 개인사업체(19.7%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

업종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형태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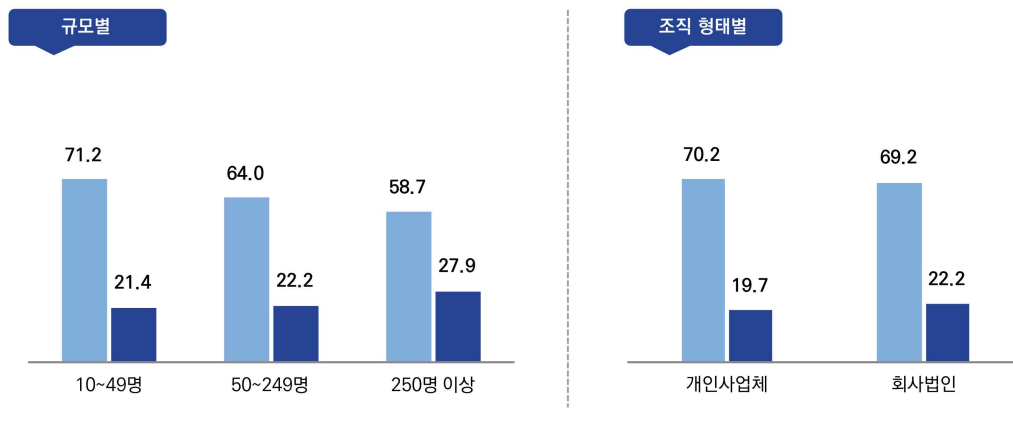
■ 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구매하여 이용 ■ 외부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개발 또는 수정하여 이용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이용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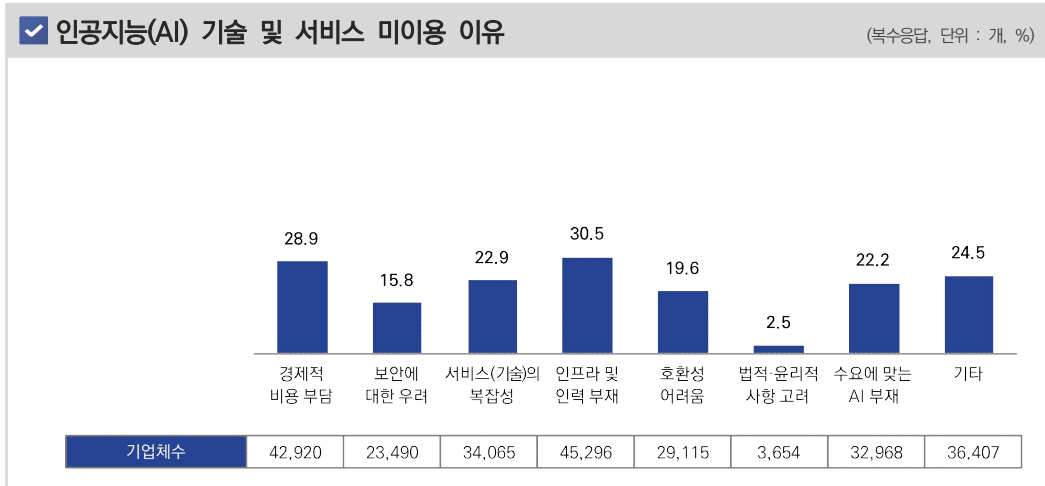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■ 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구매하여 이용 ■ 외부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개발 또는 수정하여 이용



5.5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(복수응답)

-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로는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가 30.5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(28.9%), ‘서비스(기술)의 복잡성’(22.9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- 기타 응답으로는 ‘이용 필요성 부재’가 높게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미이용 기업체
 ※ 주 : 1) 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별 복수응답 수치임
 2) 전년 대비 보기 항목이 변경되어 시계열 비교 없음

[업종별]
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은 정보통신업(56.9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50.6%)에서 높게 나타남
-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48.3%), 정보통신업(46.2%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37.9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규모가 클수록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이라는 응답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은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에서 41.7%로 높게 나타남
- 반면,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는 10~49명 규모 기업체(30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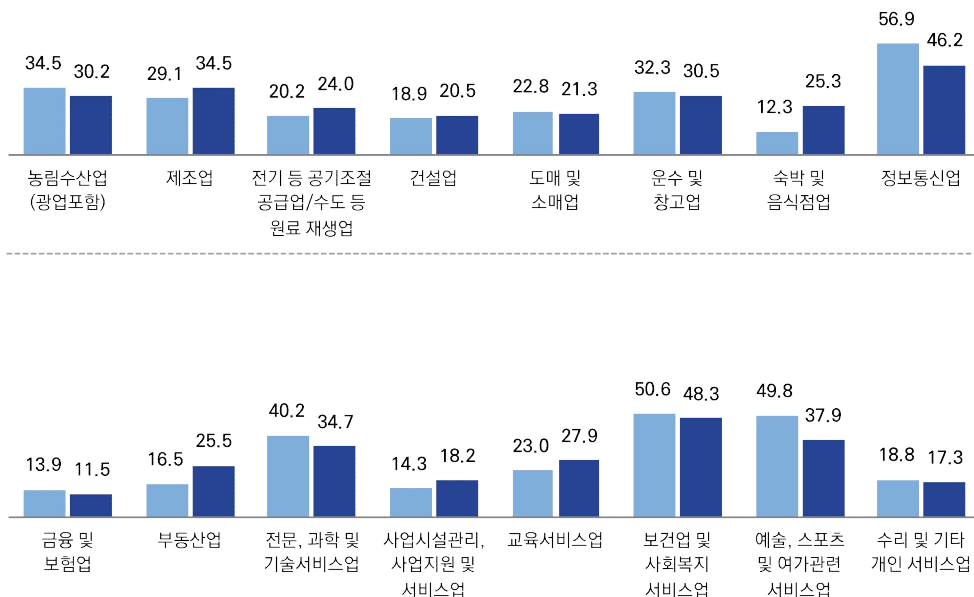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‘경제적 비용 부담’과 ‘인프라 및 인력 부재’ 모두 개인사업체에서 각각 31.3%, 34.9%로 회사법인(각각 28.1%, 29.1%)보다 높게 나타남

✓ 업종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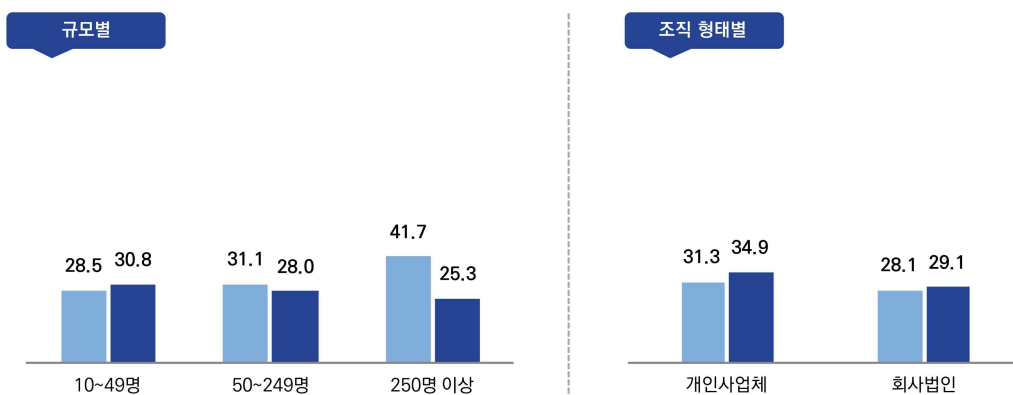
■ 경제적 비용 부담 ■ 인프라 및 인력 부재


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인공지능(AI) 기술 및 서비스 미이용 이유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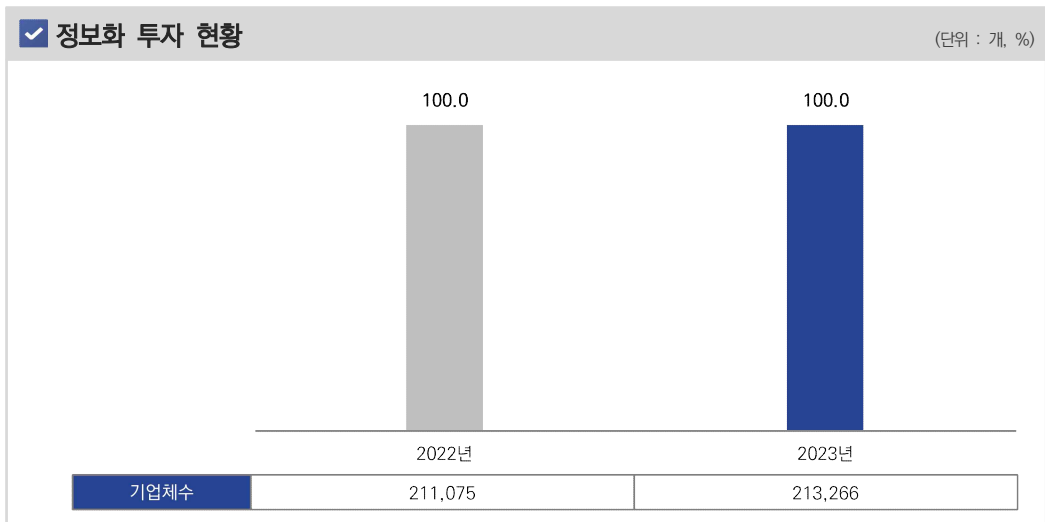
■ 경제적 비용 부담 ■ 인프라 및 인력 부재



1 정보화 투자

1.1 정보화 투자 현황

- 정보화를 위해 투자(비용 지출)한 기업체는 100.0% 수준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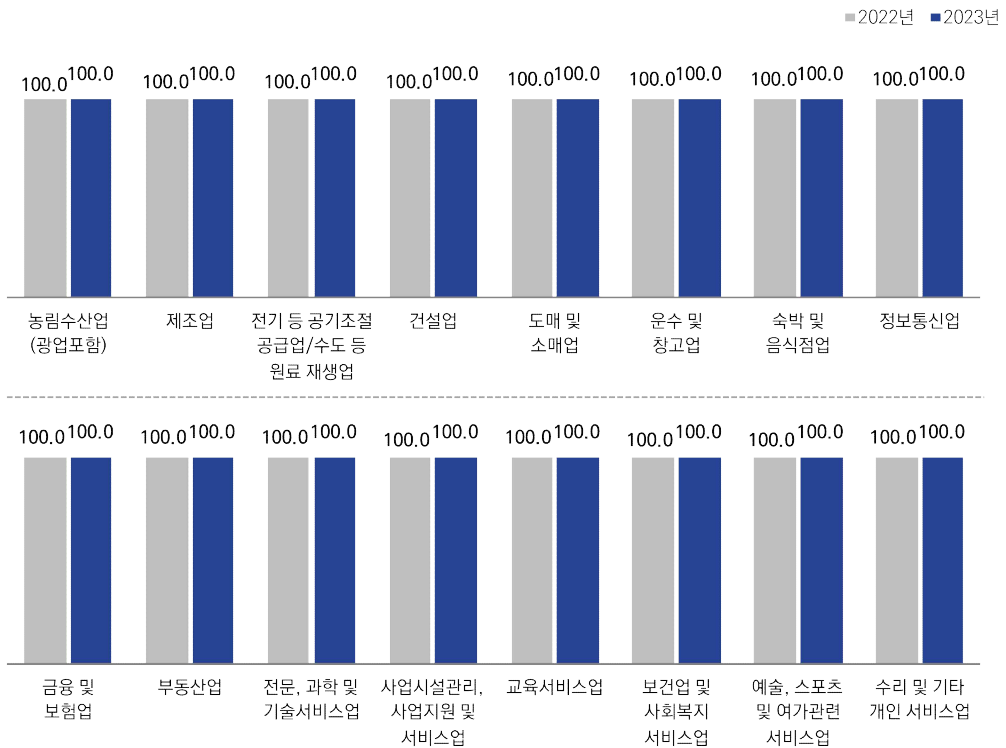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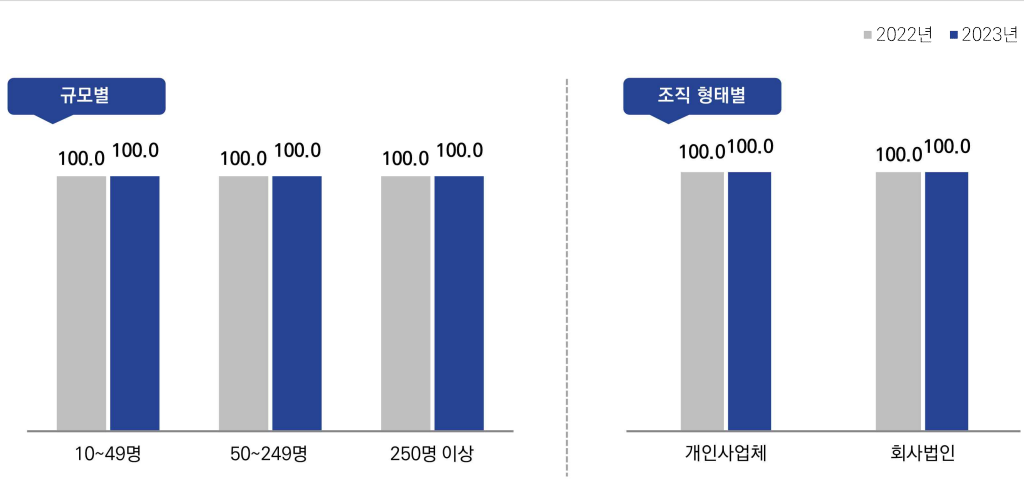
업종별_정보화 투자 현황

(단위 : %)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정보화 투자 현황

(단위 : %)



1. 정보화 기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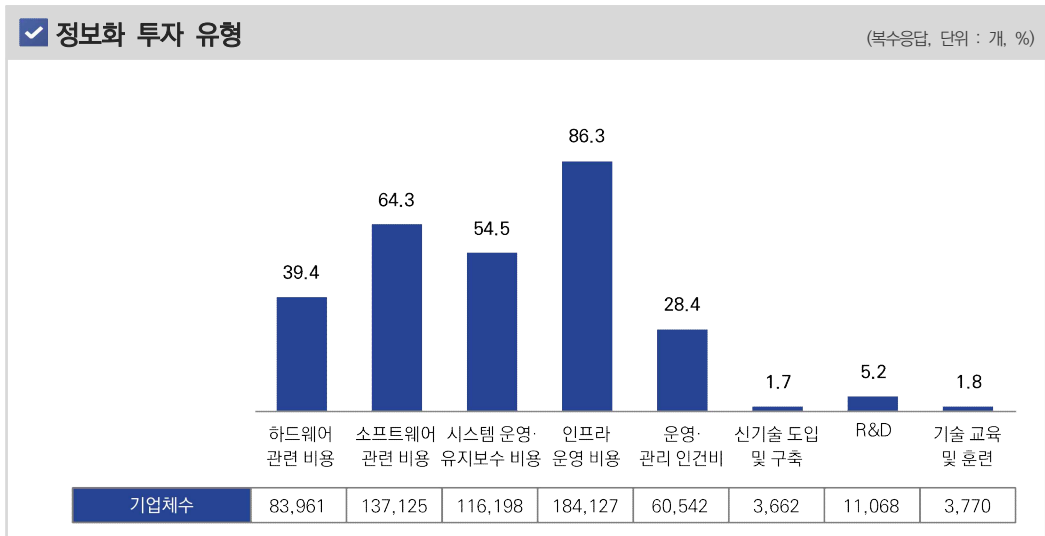
2. 정보화 응용

3. 지능정보기술 활용

4. 정보화 투자 및 효과

1.2 정보화 투자 유형(복수응답)

- 정보화 투자(비용 지출) 유형으로는 ‘인프라 운영 비용’이 86.3%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‘소프트웨어 관련 비용’(64.3%), ‘시스템 운영·유지보수 비용’(54.5%), ‘하드웨어 관련 비용’(39.4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- 신기술 관련 투자로는 ‘R&D’가 5.2%로 나타났으며, ‘기술 교육 및 훈련’(1.8%), ‘신기술 도입 및 구축’(1.7%) 순으로 나타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정보화 투자(비용 지출) 기업체
 ※ 주 : 1) 정보화 투자(비용 지출) 유형별 복수응답 수치임
 2) 전년 대비 보기 항목이 변경되어 시계열 비교 없음

[업종별]

- ‘소프트웨어 관련 비용’은 교육서비스업(79.9%), 정보통신업(77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‘인프라 운영 비용’은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94.8%), 농림수산업(94.6%), 건설업(94.2%)이 가장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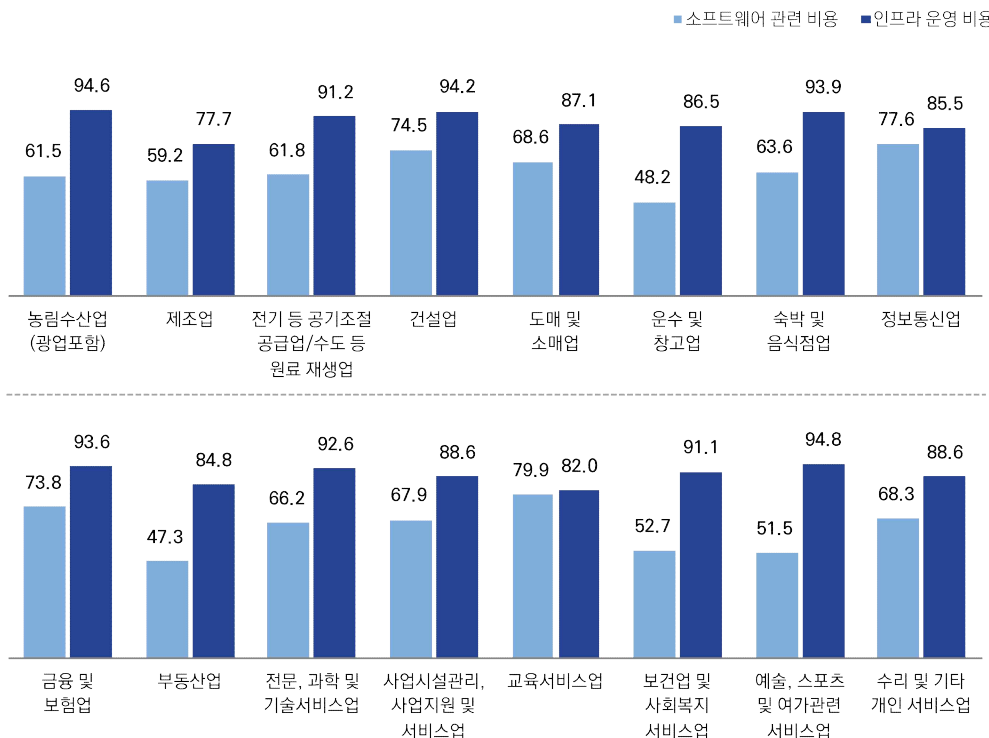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‘소프트웨어 관련 비용’과 ‘인프라 운영 비용’ 유형이 높게 나타남
- 특히 250명 이상 규모에서 ‘인프라 운영 비용’ 유형이 94.5%로 타 규모 대비 높게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‘소프트웨어 관련 비용’은 회사법인이 66.5%로 개인사업체(56.3%)보다 높게 나타남
- ‘인프라 운영 비용’은 개인사업체(88.5%)에서 회사법인(85.7%)보다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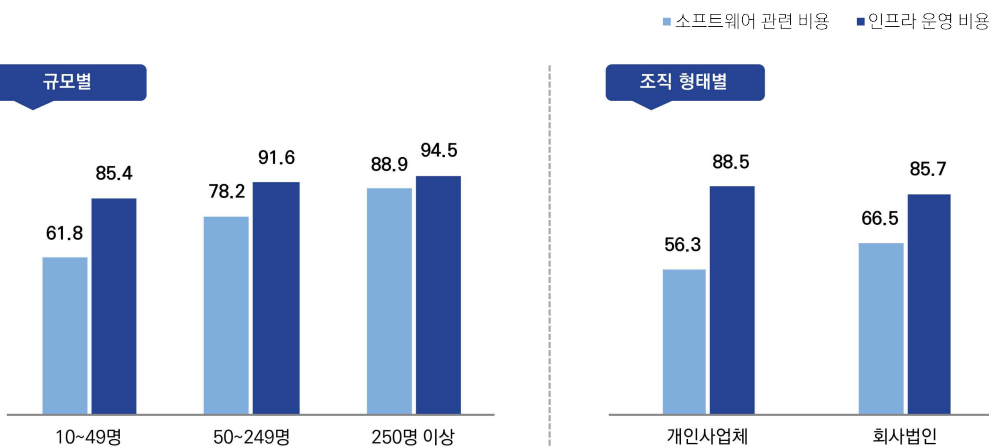
업종별_정보화 투자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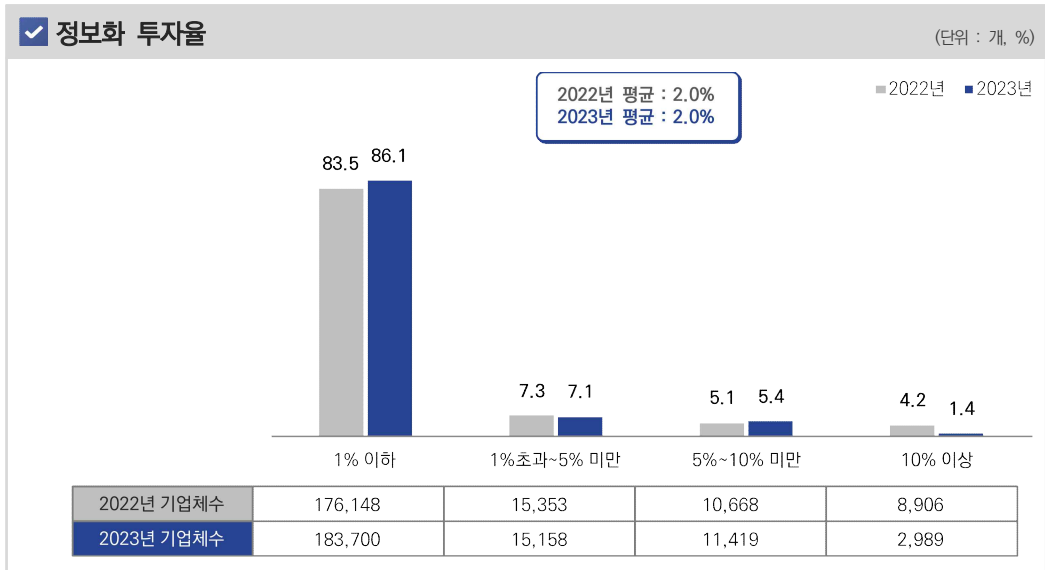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정보화 투자 유형

(복수응답, 단위 : %, 상위 2순위)



1.3 정보화 투자율

- 전체 매출액 대비 정보화 투자액 비율은 평균 2.0% 수준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임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정보화 투자(비용 지출) 기업체
 ※ 주 : 정보화 투자 비율은 매출액 대비 정보화 투자액의 비율로 산출

[업종별]

- 금융 및 보험업(2.7%), 정보통신업(2.3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2.3%)에서 정보화 투자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반면,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/수도 등 원료 재생업(1.5%), 도매 및 소매업(1.6%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(1.8%)은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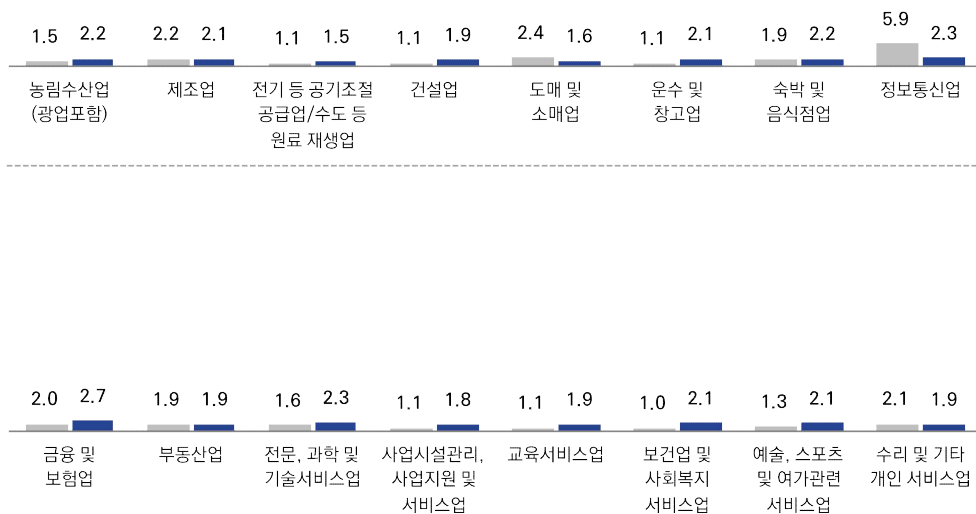
- 정보화 투자율은 모든 종사자 규모에서 2% 내외로 나타남

[조직 형태별]

- 개인사업체의 정보화 투자율은 2.1%, 회사법인은 2.0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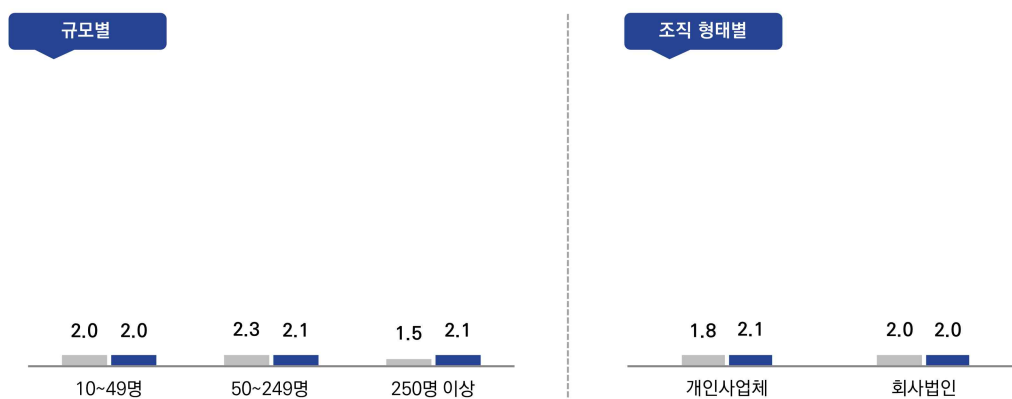
업종별_정보화 투자율(평균)
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정보화 투자율(평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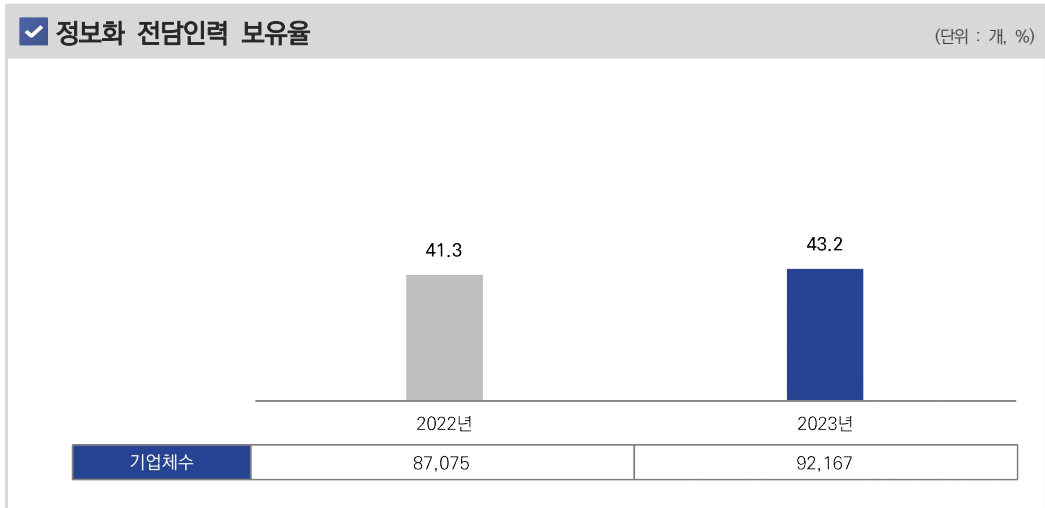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2 정보화 전담 인력

2.1 정보화 전담인력 보유

- 정보화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체는 43.2%로 응답되어 전년 대비 1.9%p 증가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
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
[업종별]

- 금융 및 보험업(62.9%), 제조업(50.7%), 정보통신업(50.0%) 등의 순으로 정보화 전담인력 보유율이 높게 나타남
- 반면, 부동산업(30.4%)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33.5%), 운수 및 창고업(36.1%)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정보화 전담인력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종사자수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의 정보화 전담인력 보유율은 74.5%로 높은 반면, 종사자수 10~49명 규모 기업체의 정보화 전담인력 보유율은 40.9%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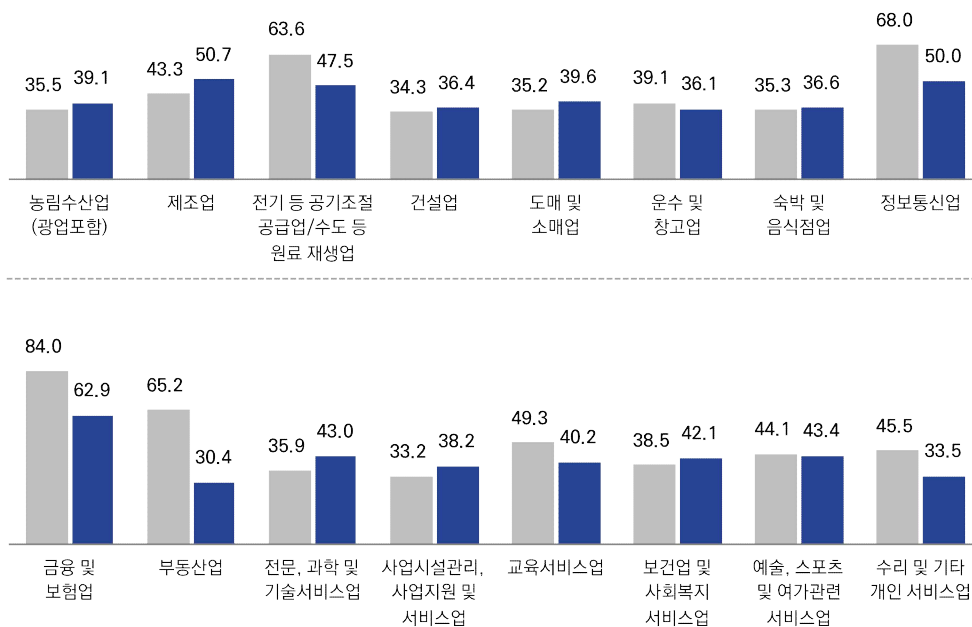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회사법인의 정보화 전담인력 보유율이 44.0%로 개인사업체(40.5%)에 비해 높게 조사됨

업종별_정보화 전담인력 보유율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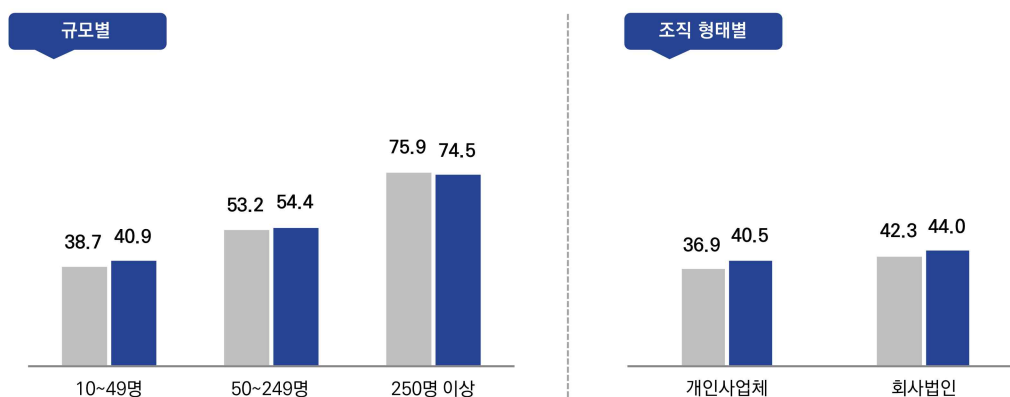
■ 2022년 ■ 2023년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정보화 전담인력 보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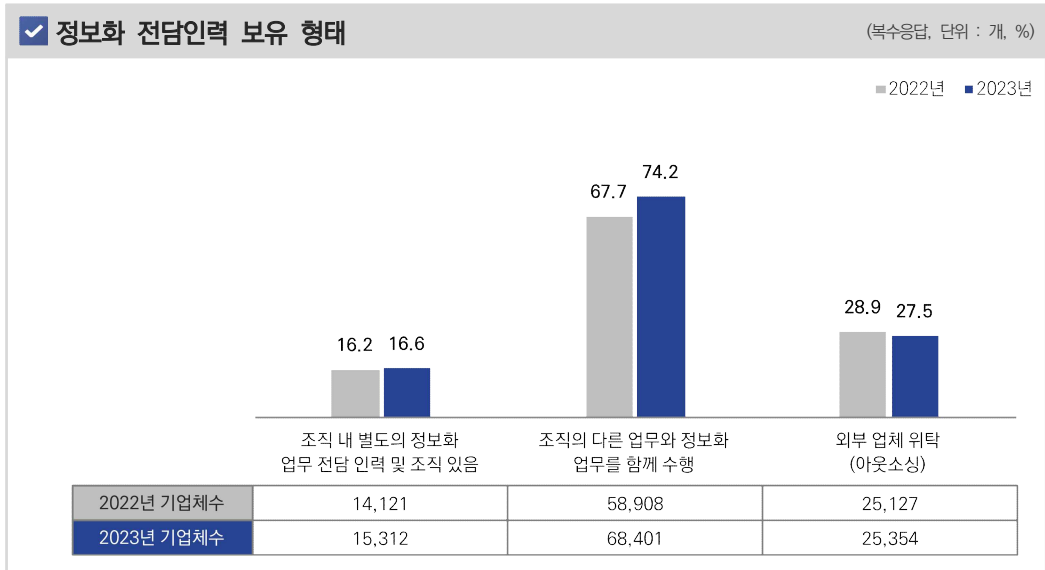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■ 2022년 ■ 2023년



2.2 정보화 전담인력 보유 형태(복수응답)

- 정보화 전담인력 보유 기업의 보유형태를 살펴보면, ‘조직의 다른 업무와 정보화 업무를 함께 수행’이 74.2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다음으로 ‘외부 업체 위탁(아웃소싱)’(27.5%), ‘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’(16.6%)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정보화 전담인력 보유 기업체

[업종별]

- ‘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’는 금융 및 보험업(47.2%), 정보통신업(36.9%), 부동산업(26.7%)에서 높게 나타남
- ‘외부 업체 위탁(아웃소싱)’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48.0%), 부동산업(36.3%), 숙박 및 음식점업(36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‘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’는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(63.7%)에서 타 규모에 비해 높게 나타남
- ‘다른 업무와 함께 수행’과 ‘외부 업체 위탁(아웃소싱)’은 10~49명 규모 기업체(각각 76.7%, 29.1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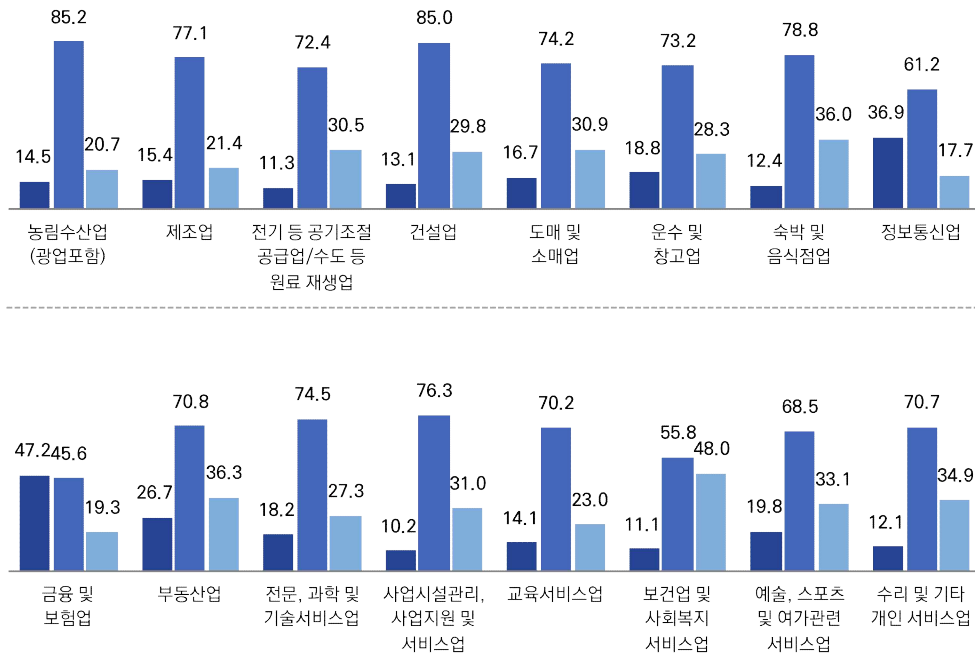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‘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’와 ‘다른 업무와 함께 수행’은 회사법인(각각 18.1%, 75.6%)에서, ‘외부 업체 위탁(아웃소싱)’은 개인사업체(40.1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업종별_정보화 전담인력 보유 형태

(복수응답, 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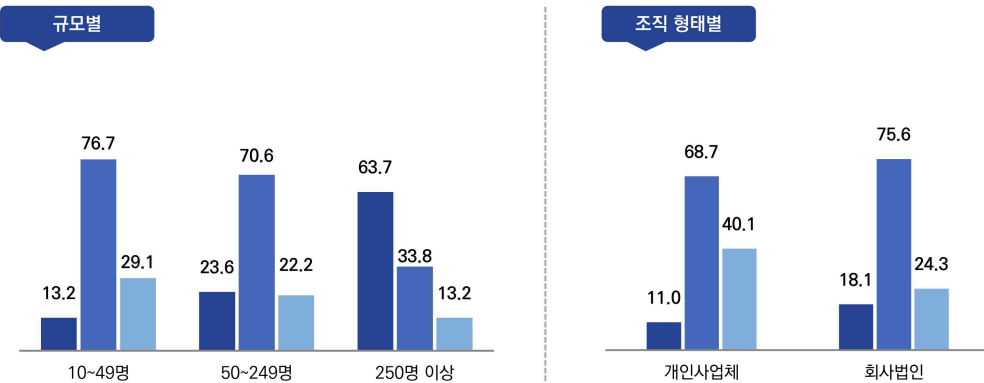
■ 조직 내 별도의 정보화 업무 전담 인력 및 조직 있음 ■ 조직의 다른 업무와 정보화 업무를 함께 수행 ■ 외부 업체 위탁(아웃소싱)



규모 및 조직 형태별_정보화 전담인력 보유 형태

(복수응답, 단위 : %)

■ 조직 내 별도의 정보화 업무 전담 인력 및 조직 있음 ■ 조직의 다른 업무와 정보화 업무를 함께 수행 ■ 외부 업체 위탁(아웃소싱)



1. 정보화 기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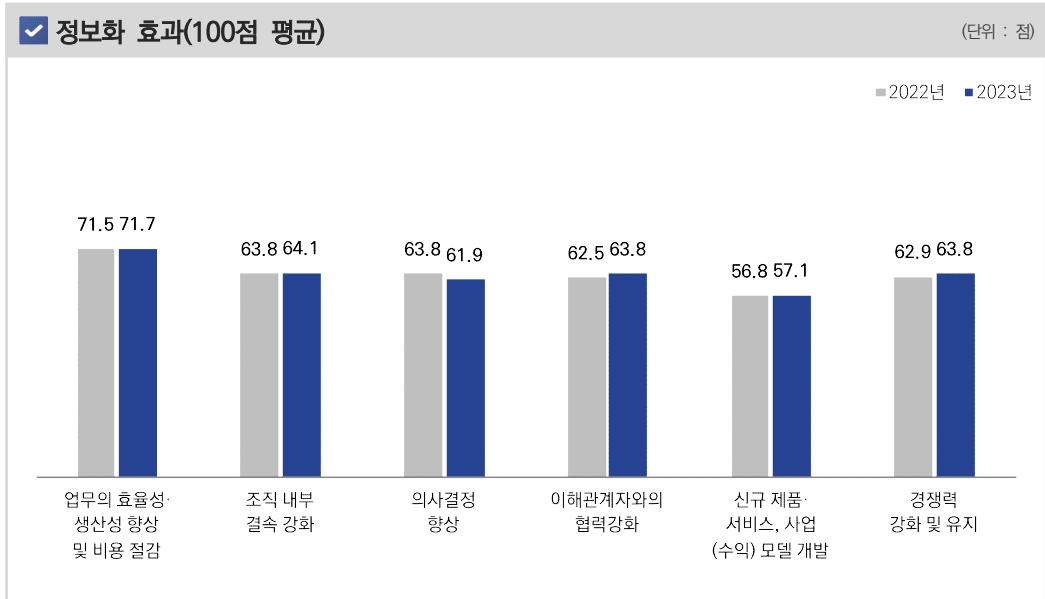
2. 정보화 응용

3. 지능정보기술 활용

4. 정보화 투자 및 효과

3 정보화 효과

- 정보화로 인한 효과를 질문한 결과, '업무의 효율성/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'이 71.7점으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'조직 내부 결속 강화'(64.1점), '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'(63.8점), '경쟁력 강화 및 유지'(63.8점), '의사결정 향상'(61.9점), '신규 제품/서비스, 사업(수익) 모델 개발'(57.1점) 순으로 조사됨



※ 기준시점 : 2023년 12월 31일
 ※ 기업체 : 전국의 종사자수 10인 이상 민간 부문 기업체(통계청, 2023년 12월 기준 기업통계등록부)
 ※ 주 : 정보화 효과별 100점 평균 수치임

[업종별]

- '업무의 효율성/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'은 정보통신업(83.5점), 금융 및 보험업(79.8점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75.5점)에서 높게 나타남

[종사자 규모별]

- '업무의 효율성/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'과 '조직 내부 결속 강화' 모두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
- '업무의 효율성/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'은 250명 이상 규모 기업체에서 79.9점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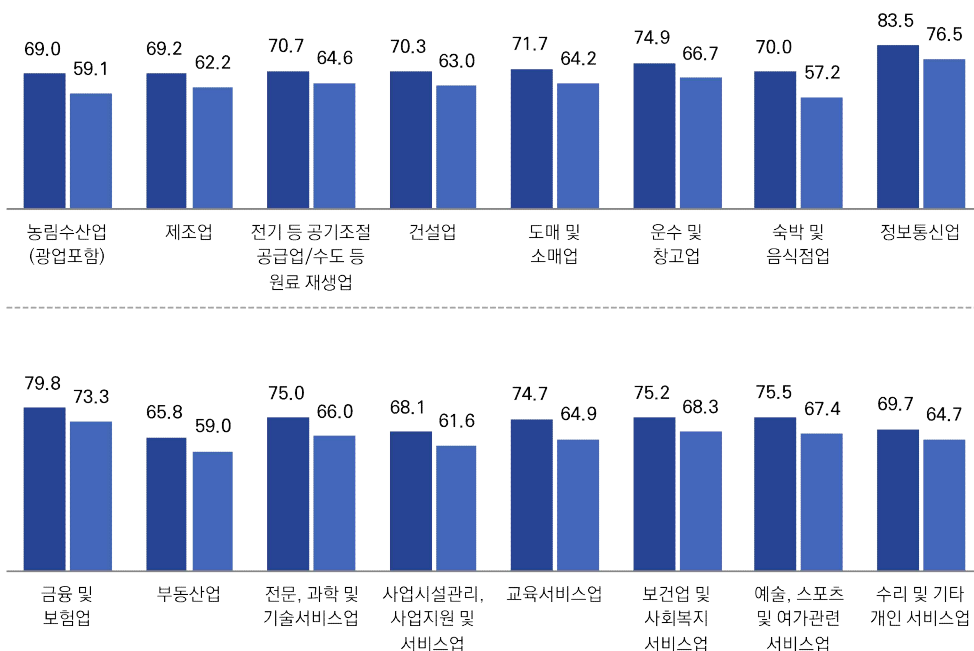
[조직 형태별]

- '업무의 효율성/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'과 '조직 내부 결속 강화' 모두 개인사업체보다 회사법인에서 높게 나타남

✓ 업종별_정보화 효과(100점 평균)

(단위 : 점)

■ 업무의 효율성/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■ 조직 내부 결속 강화



✓ 규모 및 조직 형태별_정보화 효과(100점 평균)

(단위 : 점)

■ 업무의 효율성/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■ 조직 내부 결속 강화

